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 第6次 南北體育會談 會議錄

1990. 1.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 3

2. 會議錄 .....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 14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2. 22 ( 金 ) 10:00 ~ 14:00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地域「統一閣」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張 忠 植 (大韓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김 형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學 來 (大韓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p> <p>任 台 淳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曹 英 承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朴 秀 蒼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장     웅 (조선올림픽위원회 서 기 장)</p> <p>김 세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허 혁 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김 상 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

---

會 議 錄

---

---





## 2. 會議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張忠植) : 안녕 하십니까?

北(김형진) : 예, 안녕 하셨습니다?

(記者들 寫眞撮影)

南(張忠植) : 자, 앉읍시다.

北(김형진) : 아마 張先生님, 한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됩니다.

南(張忠植) : 예. 그동안 별일 없었죠?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오늘 날씨가 대단히 포근한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그리고 오늘 冬至날이 아닙니까?

南(張忠植) : 그렇습니다. 어떻게 팔죽 잡수셨어요?

北(김형진) : 예. 張先生님두?

南(張忠植) : 예. 아침에 먹었습니다.

北(김형진) : 본래 옛날부터 팔죽을 잡수는 風習에서도 「어구랑이」를 드셔서 큰 「어구랑이」를 잡수시면 福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張先生님 큰 「어구랑이」를 많이 잡수셨습니까?

南(張忠植) : 저도 요새는 1년에 한번씩 팔죽 먹는다는 것, 앞으로 이제 南北選手들이 함께 앉아서 팔죽을 먹을 수 있는 時期를 빨리 당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본래 이 冬至야 작은 설 名節과 같지 않습니까?

南(張忠植):예.

北(김형진):그렇게 보면 이 해도 이제는 다 가고 또 새해가 설 명  
節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해도 그 해에 할 일  
이야 본래 그 해에 다 하고 넘어가는 법이 아닙니까?

그런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唯一팀 構成하는 方案 討議도 今年  
3月달에 始作해서 근 아홉달 됐는데 이 해에 마무리 지어야죠. 우  
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張忠植):그래서 우리가 착실하게 單一팀이 流產되지 않도록 智慧를  
모으고 서로 뜻을 합하는데 정성을 다하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김형진):그래서 이거 해도 다 가고 또 이제 張先生님 그런 意向  
도 表示하니까 사실 우리 體育競技로 놓고 말하면야 축구로 놓고 말  
하면 후반전에 마지막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마라손」  
으로 말하면 결승 「테이프」를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競技는 始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긴장성을 늦추지 않고 잘 풀어  
나가는 것이 勝利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마지막  
會談 結束을 오늘 어떻게 잘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남은 거야 사실상 몇 項밖에 없지 않습니까?

南(張忠植):사람이라는 게 자주 만나야 兄弟間이라도 情이 두터워지  
는 거고 아무리 親兄弟間이라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서먹서먹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또 情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야 서로 情  
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會  
談 분위기를 이루어 가면서 이것이 우리 體育界 뿐만 아니라 우리

은 겨레에 파급할 수 있도록 서로 努力을 해야 되겠습니다.

北(김형진) : 그래서 冬至도 民俗名節인데 어떻게 이날 오손도손 우리 잘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 봅시다.

南(張忠植) : 그래서 우리가 김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빨리 그러나 실수가 없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온 겨레가 여기에 큰 期待를 걸고 있는데 말은 서로 참 좋은 말을 하고 뜻은 서로 합하려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하면서도 서로의 體育技術上의 여러가지 常識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만일에 流産이 된다고 하려는 우리 體育界 人士들의 失望뿐만 아니라 온 겨레의 失望이니까 우리가 뜻을 합하는게 우리 열 사람의 責任이 크다고 지난번에 김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北(김형진) : 張先生님 말씀하시는 걸 眞實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좋은 案도 큰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하면 인차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會談 始作해 봅시다.

南(張忠植) : 좋습니다. 그러면 場內를 좀 정돈하고.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北(김형진) : 예. 그러면 會談 시작해 봅시다.

南(張忠植) :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우리側 첫 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單一팀構成・參加문제를 協議하기 위한 第6次 南北體育會談을 開催하게 됩니다.

지난 3월이래 10개월동안 南北雙方은 板門店 「平和의 집」과 「統一閣」을 오가면서 다섯차례의 本會談을 가진데 이어 판문점 中立國監督委員會 회의실에서 세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가짐으로써 도합 여덟차례에 걸쳐 會談과 接觸을 進行한 바 있습니다.

그사이 國際社會는 開放과 民主化, 그리고 相互 和解와 協力の 趨勢속에 실로 놀라운 變化를 거듭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40여년간 持續된 斷絶과 反目的 틀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開放과 和解의 새로운 局面을 열어 나갈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要求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見地에서 南北選手들이 理念과 體制의 差異를 뛰어넘어 合同 訓練과 選拔戰을 실시하고 마침내는 來年 9월 第11回 北京아시아 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參加하는 문제를 協議하는 이 會談에 거는 겨레의 期待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南北雙方은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한 10個項의 提案들을 각기 提示하고 진지한 討議를 해온 結果 몇가지 未解決事項을 除外하고 상당한 部門에 걸쳐 進展을 이룩했습니다.

나는 먼저 지난 여덟차례의 會談과 接觸에서의 討議結果를 整理하여 貴側에 提示하는 바입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그간의 討議結果를 놓고 볼 때 우선 雙方은 10個項 基本事項 가운데 南北關係에서 民族的·象徴的 意味가 큰 1. 選手團의 呼稱, 2. 團旗, 3. 團歌問題에서 南北體育會談 사상 처음으로 基本的 合意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選手團의 呼稱문제와 관련하여 中國語로 表記하는 문제를 놓고 貴側은 그 필요성을 認定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案을 提示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明文化하는데 反對하고 있습니다. 우리側은 中國語表記問題에 대해서도 本會談에서 반드시 合意를 이룩하여 合意書에 明記해야 한다는 立場입니다.

다음으로 스포츠技術上의 本質問題라고 할 수 있는 4. 選手選拔, 5. 選手訓練, 6. 選手團構成問題에 있어서는 合同訓練 段階에서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選拔戰을 실시한다는 데 合意하는 등 그동안 見解差異를 나타냈던 상당한 部分에서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특히 選手選拔에 있어서 南北을 往來하면서 南北選手間에 公開裡에 選拔戰을 실시한다는 데 合意한 것은 體育人 등으로 構成된 參觀團과 記者를 相互 交換하는 契機를 마련함은 물론 南北間에 體育交流가 실현되는 現場을 온겨레가 TV로 지켜볼 수 있는 希望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選手團構成에서 單一팀團長을 하나로 할 것인가 둘로 할 것인가를 놓고 意見이 對立되고 있으며, 選手選拔에 있어 種目別 特性에 따른 細部種目別 選手選拔方法과 관련하여 採點種目에서 參加選手가 2명 이상인 경우 진쪽 選手를 적어도 1명을 包含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意見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選手訓練에서 「合同訓練」과 「共同訓練」의 用語表記에 대해서도 多少 間 論議의 여지가 있으나 이것은 文案表記를 論議할 때에 明白히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單一팀의 支援・保障・實踐과 관련되는 7. 選手團 經費, 8. 身邊安全保障, 9. 單一팀共同推進機構構成, 10. 其他 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項目에서 意見一致를 보았으나 會談妥結이후 單一팀構成・參加 실현문제를 직접 執行하게 될 單一팀共同事務局的 設置場所問題를 놓고 雙方間에 見解差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共同推進機構의 발족에 필요한 單一팀共同委員會의 구체적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들에 대해서도 아직 討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雙方間에 基本事項에 대한 意見一致가 이루어져 合意書を 採擇・交換하려면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以上과 같이 볼 때 雙方間에 協議・解決해야 할 事項은 다음 여섯 가지로 集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項 選手團 呼稱問題에서 中國語 表記問題,

둘째, 4項 選手選拔에 있어 採點種目的 細部種目別 參加選手가 2명 이상일 경우 진팀 選手를 적어도 1명 包含시킬 것인가의 問題,

셋째, 6項 選手團構成에 있어 團長을 한명으로 할 것인가 두명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넷째, 9項 單一팀共同推進機構에 있어 共同事務局的 設置場所 문제,

다섯째, 9項 單一팀共同推進機構의 構成・運營에 관한 別도규정문제,

여섯째,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문제,

나는 以上 여섯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측 立場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選手團呼稱에서 雙方間에 우리말로는 「코리아」, 英語로는 「KO-REA」로 할 것에 合意하였으며, 中國語로도 우리말 發音대로 表記하고 「高麗」로는 쓰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雙方은 意見이 一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이같은 合意內容을 明記하자는데 대해 貴側은 우리側의 거듭된 促求에도 불구하고 이를 回避하고 있습니다.

또한 南北이 合意하는 中國語表記를 北京大會組織委員會에 提議하자는데 明文化하는데 대해서도 意見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南北雙方이 單一팀 呼稱問題에 合意한 趣旨나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하려는 根本意義를 考慮한다면 中國語 表記問題를 놓고 더이상 意見이 엇갈릴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會談에서는 呼稱問題에서 우리말表記 및 英語表記와 함께 中國語表記에 대해서도 合意가 이룩될 것을 期待합니다.

둘째, 採點種目에서 細部種目別 參加選手가 2명이상일 경우, 진팀에서 적어도 1명씩의 選手가 包含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實務代表接觸過程에서 貴側은 이 項을 全種目に 걸쳐 適用하도록 하자는 意見을 提示했다가 다시 採點種目에서도 이 項을 適用시키지 말자는 意見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貴側의 이같은 主張들을 考慮하여 우리側 案의 4. 選手選拔 項의 라-(2) 採點種目 (다) 項 『細部種目別 出戰選手가 2명이상인 경우에

는 南과 北에서 각기 적어도 1명씩은 包含되도록 한다』는 內容을  
빼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물론 貴側이 提示한 該當項目도 이와 함께 削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選手團 團長을 單一團長制로 할 것인가 共同團長制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雙方間에 見解差異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選手團의 團長은 南北이 單一팀으로 나가는 根本趣旨와 實際狀況에 맞  
게 單一團長制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側의 立場입니다.

우선 南北이 하나의 팀으로 나가는 이상 團長이 2명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團長을 한사람으로 하는 것은 民族의 團合된 모습을 對外的  
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나 民族의 훌륭한 기량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하는 見地에서 合當한 것이며, 選手團의 一絲不亂한 組織管理를 念頭에  
둘 때에도 當연한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憲章과 OCA 憲章에서도 團長은 하나로 하도록 規定되어 있  
으며, 과거 單一팀을 構成했던 東西獨의 經驗에 비추어 보더라도 團長은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實際面에 있어서도 單一팀 代表를 두사람으로 내세울 수는 없  
으며, 選手團을 運營함에 있어서도 責任者가 둘로 될 수는 없는 일입니  
다.

貴側은 이 문제를 單一팀共同委員會의 共同委員長과 共同事務局長을 南  
北이 각기 두는 것에 비유를 하지만 單一팀構成推進을 위한 南北間 協  
議機構와 하나의 팀으로 構成・參加하는 單一팀의 機能을 混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雙方間에 提起되는 문제를 協議・解決하기 위해서 共  
同委員會라는 協議機構를 별도로 構成하기로 한 점에서도 選手團 團長은



하나로 해야 합니다.

貴側은 選手選拔原則과 公正性을 말하지만 最優秀選手를 選拔하되 가능한 한 南北間에 均衡을 현저히 잃지 않도록 合意한 選手選拔의 原則에 비추어 보더라도 選手가 많은 측에서 團長을 맡고, 적은 측에서 副團長을 맡도록 하면 原則面에서나 公正性面에서도 合理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貴側이 民族團合誇示와 스포츠精神發揮라는 單一팀參加의 본래 趣旨에 意見을 같이한 이상 單一團長制에 同意할 것을 期待합니다.

넷째, 單一팀共同事務局의 設置問題에서 우리 측은 共同事務局을 서울과 平壤에 설치하고 適正數의 人員을 共同事務局에 각각 派遣·常駐시킬 것을 提案했습니다. 이에 대해 貴側은 처음에는 共同事務局을 板門店에 두자고 했다가 第3次 實務代表接觸에서는 『共同事務局을 하나로 構成하되, 서울과 平壤에서 一定期間씩 번갈아가며 事業을 遂行한다』는 내용의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共同事務局이 서울과 平壤에서 『一定期間씩 번갈아가며 事業을 遂行한다』고 事業遂行期間을 限定시키고 事業遂行場所를 期間別로 서울 또는 平壤中 어느 한곳에서만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制限하는 것은 單一팀構成·參加의 基本趣旨로 보나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의 任務·性格으로 보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共同事務局은 共同委員會의 會議는 물론 共同委員會에서의 모든 決定事項의 執行을 직접 擔當해야 할 機構인 만큼, 共同委員會가 열릴 때 뿐만 아니라 南北選手들의 合同訓練, 選拔戰, 選手團構成, 選手團結團式, 強化訓練, 單一팀의 大會參加 등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하여 委任된 事項

一切를 직접 現場에서 支援・執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貴側은 共同事務局을 하나로 構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南과 北의 어느 쪽에서 一定期間씩만 事業을 遂行해서는 하나의 共同事務局이 계속적으로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共同事務局이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하여 직접 現地에서 業務를 支援・執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물론 共同委員會가 南北 雙方的 協議體라는 점을 考慮한다 해도 共同事務局은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고 適正數의 人員을 相互 과건・상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共同事務局長은 事業遂行의 필요에 따라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서 共同으로 業務를 遂行하면 하나의 共同事務局으로서의 機能을 圓滑히 發揮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趣旨에서 貴側 역시 共同事務局의 業務를 서울과 平壤에서 遂行해야 한다는데 대한 必要性을 認定한 이상 우리측 案에 同意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의 構成・運營과 관련한 具體的 규정문제입니다.

單一팀 共同推進機構는 南北 雙方이 單一팀을 構成・參加하기 위한 具體的 事項을 協議・決定하고 執行・支援하는 實踐機構입니다.

따라서 共同推進機構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具體的 合意를 이룩하는 것은 이 會談의 基本任務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의 構成・運營에 관한 別도규정안을 각기 提示하여 진지한 討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 문제입니다.

니다.

單一팀構成・參加에 合意함에 있어 순수한 스포츠精神에 立脚하여 雙方 間에 이를 성실히 履行함은 물론 그 履行을 확실히 保障하겠다는 約束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附帶措置라고 할 것입니다.

單一팀構成・參加를 成功的으로 推進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體育外的 문제도 障礙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雙方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保障에 대한 信賴를 內外的으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合意事項의 用語定義,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한 日程의 遵守, 體育外的문제와의 不連繫,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문제 등에 대해 合意하고 이를 雙方當局이 保證하는 것이 좋은 方案이 될 것입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이상으로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單一팀構成・參加와 관련한 우리측 立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주일후면 待望의 90年代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會談이 어느모로 보나 매우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9월로 다가선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으로 參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몇가지 基本事項들에 대한 合意의 土臺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南北雙方이 오늘 會談에서 最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을 期待합니다.

北(김형진) :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마시십시오.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張先生님 이제 첫發言에서 合意되지 못한 몇가지 問題에 대한 貴側의 立場을 表明했습니다.

저는 基本發言에 앞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事實上 다섯차례 本會談과 또 세차례 實務會談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問題들이 合意되었습니다. 이제 合意되지 못한 問題들이 不過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合意되지 못한 問題에서 어떻게 하나 加급적으로 이제 빨리 妥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誠意가 이룩되었습니다.

團長問題에서도, 團長問題에서도 이제 우리가 貴側의 立場을 提起했고 實務會談들에서도 이 問題가 論議되었고, 그러나 오늘 貴側에서는 團長問題에서 貴側의 主張을 계속 받아들일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데 대해서는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事務局設置,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問題에서도 貴側에서는 그 어떤 修正이나 折衷案도 없이 貴側의 提案을 그대로 主張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採點制 種目에서 이 2名以上이 參加하는 境遇 北과 南의 選手가 各各 1名씩 參加한다고 한 이 提案하나를 貴側에서 이제 우리側 提案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다른 細部種目에서도 包含시킬 대신 撤回했습니다.

그래서 貴側이 提起한 問題들과 이 問題들에 대한 立場을 우리는 基本發言에서 이제 立場을 表明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릴것은 事實上 貴側에서 보다 會談의 進展을 위해서 좋은 案들을 다시 研究해서 提起할줄 알았는데 서두에 遺憾을 表示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北側 基本發言〉

張忠植 首席代表여러분!

南側代表 여러분!

나는 오늘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을 무어 參加할데 대한 하나의 目的과 使命을 안고 이렇게 雙方 代表들이 여섯번째로 자리를 같이 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唯一팀 構成에 대한 北과 南의 體育人들과 온겨레의 期待와 關心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가고 있는때에 唯一팀 構成을 위한 第6次 會談에 參加하기 위하여 統一閣을 찾아오신 南側代表 여러분들을 歡迎하는 바 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北南體育人들과 온겨레의 절절한 念願을 反映하여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唯一팀으로 出戰하는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北南體育會談을 시작한 때로부터 9個月이 지나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民族이면서도 世上사람들 앞에서 北과 南의 體育人들이 對決하고, 서로 맞붙어 승벽내기를 하던 참을 수 없는 悲劇을 끝장내고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는 唯一팀으로 出戰해서 民族의 슬기와 團합된 모습을 誇示하려는 崇高한 目的으로부터 本會談을 成事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側이 北南體育會談이 열린 첫 時期부터 唯一팀을 誕生시키는데 모든것을 服從시키는 原則에 서서 問題討議에서 意見差異가 생길때마다 먼저 讓步하고 妥協하는 立場을 堅持하여 온 것은 그의 뚜렷한 表示로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誠意와 努力이 열매를 맺어 그동안 다섯차례의 本會談에서 雙方은 唯一팀 構成方案을 10 個項으로 調節하여 一致시킨데 기초해서 選手團名稱과 깃발, 노래등 重要한 問題들을 合意하게 되었고 選手選拔과 訓練, 選手團構成 또 唯一팀 共同機構등 나머지 7 個項의 59 個 細部種目に 대한, 細部項目에 대한 雙方案을 充分히 研究·檢討해서 異見을 接近시킴으로써 細部項目들 問題討議를 順調롭게 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次會談 以後 세번에 걸쳐 進行된 實務代表接觸에서 雙方은 第4項 選手選拔問題부터 第10項 其他問題에 이르기까지 總 59 個 細部項目 가운데서 內容上 異見이 接近되어 있는 項目들을 合意하고 提案上 差異나는 여덟개 項目에 대하여 우리側이 다섯개項目을 대범하게 讓步함으로써 細部種目別 個人競技 參加人員數가 2名以上인 境遇의 選拔問題, 選手團團長問題,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問題만을 未決로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側의 거듭되는 讓步와 雅量에 의하여 다섯차례의 本會談과 세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통하여 唯一팀 構成方案 63 個項目 가운데서 거의 모든 項目에 대하여 完全한 合意를 이룩하고 오늘 6次 本會談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事實은 北南사이에 會談은 있었어도 結實이 없었고, 唯一팀을 構成하자는 말을 하면서도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해서 그것을 成事시키지 못했던 지난날에 비하여 볼 때 劃期的인 前進이고 커다란 事變이 아닐 수 없습니다.

南側代表 여러분!

北과 南의 온겨레와 體育人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唯一팀 構成은 이제 눈앞의 現實로 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얼마남지 않는 問題를 놓고 서로 自己意見과 主張만 固執 하면서 合意를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해서 唯一팀 構成이 成事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歷史와 온겨레와 北과 南의 모든 體育人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罪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온겨레와 北과 南의 體育人들이 것처럼 懇切히 熱望하는 唯一팀을 誕生시켜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會談代表들의 崇高한 使命과 榮譽로운 任務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問題討議에서 서로 讓步하고 妥協하는 姿勢와 立場을 가지고 會談에 성근하게 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로서 10 個項의 方案에 대해 完全 合意를 이룩하고 內外人民들에게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出戰하게 되었다는 驚異적인 消息을 傳해 주게 되리라고 確信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未決로 남아있는 唯一팀 選手團團長 問題를 비롯한 몇가지 問題에 대한 우리의 原則적인 立場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選手團團長問題입니다.

우리가 지난 會談과 實務代表 接觸에서 거듭 強調한 바와 같이 唯一팀 團長을 共同團長制로 하는것은 唯一팀의 本然의 趣旨와 目的에 符合될뿐 아니라 體育實務의 견지로 보아도 가장 合理的인 案이라고 確信합니다.

雙方이 지난 會談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唯一팀을 構成하는 根本

趣旨는 北南體育인들이 함께 國際競技에 出戰하여 우리民族의 優秀한 技倆과 슬기를 남김없이 發揮할 뿐 아니라 重要하게는 그 過程을 통하여 장장 40여년동안 北과 南에 쌓이고 쌓인 誤解와 不信과 對決을 解消하고 民族的 和解와 團합의 새 轉機를 마련하는 決定的인 局面을 열어 놓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選手團團長問題를 이런 趣旨에 맞게 해결하자면 共同團長制로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우리는 確信합니다.

우리가 共同團長制로 하여 아시아競技大會에 나가서 提起되는 모든 問題들을 두사람이 오손도손 合意해서 順調롭게 잘 處理해 나가게 되면 選手團의 和睦을 保障하고 體育인들이 마음껏 才能을 發揮하게 하는데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唯一팀의 團長을 共同으로 하는것은 體育를 통해서 親善과 尊重, 和睦을 圖謀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 하는 아시아올림픽理事會 憲章의 基本原則에도 결코 矛盾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符合된다고 봅니다.

選手團團長을 共同團長制로 하는 境遇, 代表權行使問題와 關聯하여 우리는 競技大會期間 團長을 輪番制로 하자는 意見입니다.

둘째로, 共同事務局 設置場所 問題입니다. 共同事務局을 내오는 것은 唯一팀으로 國際競技에 參加하기 위한 共同訓練과 綜合訓練을 成果의으로 保障하는 것과 함께 出戰前에 아시아 올림픽理事會와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諸般連繫를 가지게 하자는데 基本目的이 있습니다.

따라서 共同事務局을 이러한 目的과 우리나라의 現實에 알맞게 設置하는 것은 唯一팀訓練과 出戰準備에서 提起되는 여러가지 問題들을 圓滿하게 解決하는데서 매우 重要的 意義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共同事務局을 이러한 本然의 使命과 符合되게 내오자면 그것을 北과 南이 唯一팀과 關聯하여 提起되는 業務를 共同으로 迅速·正確하게 處理할 수 있도록 한 場所에 設置하고 함께 일하여야 합니다.

만일 共同事務局을 平壤과 서울에 各其 갈라놓으면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와 連繫를 가지는, 組織委員會와 連繫를 가지는데도 여러가지 問題가 있고, 더욱이 共同事務局이란 本來의 使命과도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事務局을 따로 各其 設置하게 되면 事業에서 統一性を 保障할 수 없고 實踐活動에서도 여러가지 不便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自명한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共同事務局을 板門店에 두자는 우리의 案이 어느모로 보나 合理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貴側이 우리와 意見を 달리하는 條件에서 우리는 지난 3次 實務代表 接觸때 共同事務局을 하나로 하되 平壤과 서울에서 一定한 期間 번갈아가며 함께 事業할데 대한 修正案을 提起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修正案은 共同事務局의 使命과 任務에 맞게 한 場所에서 北과 南이 共同으로 事務를 보면서 提起된 問題들을 雙方이 함께 論議해서 迅速·正確히 處理할 수 있게 하는 合理的인 方案이고 貴側의 主張과 要求도 充分히 反映하고 있는 案입니다.

그러나 貴側은 지난번 會談에서 우리의 修正案을 研究해 보겠다고 하고서도 오늘 會談에서 우리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形便에서 우리는 唯一팀을 하루빨리 構成하려는 一念으로부터 共

同事務局을 平壤과 서울에 設置하고 適正數의 人員을 各其 派遣·常駐시킬데 대한 貴側의 提案에 同意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個人競技 細部種目別 選手選拔問題 입니다. 貴側은 個人競技 選手選拔問題에서 採點制 細部種目에서 2名以上이 競技에 參加하는 境遇, 北과 南의 選手들을 各各 1名씩 參加시킬데 대한 案을 提起했습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貴側은 오늘 그案을 撤回하였습니다. 事實上 貴側이 選手選拔에서 採點制 細部種目に 規定한 것은 北과 南의 選手들이 均衡을 保障하고자 한 選拔原則에도 接近되어 있고 또 北과 南의 選手들이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데도 좋은 案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범을 잡고도 열을 떼어버린다는格으로 이 좋은案을, 이 좋은案을 다른 細部種目に 一般化하고 助長·發展시킬 대신에 貴側이 撤回함으로써 매우 遺憾의 뜻을 다시한번 포함니다.

그러나 우리는 選手選拔에서 貴側이 採點制 種目에서 設定한 細部種目에서 2名의 選手가 競技에 參加하는 境遇, 北과 南의 選手들이 各各 1名씩 參加한다는 이 좋은案을 撤回한다는 貴側의 案에 어떻게 하나 唯一팀을 構成시키기 위한 誠意있는 努力으로서 亦是 貴側의 撤回案에 同意합니다.

다음으로 貴側이 提起한 唯一팀 名稱, 中國語 表記問題입니다. 原來 이 問題는 우리가 會談에서 論議할 性質의 問題가 못된다고 봅니다.

唯一팀 名稱問題로 말하면 지난 11月 16日에 있는 第4次會談 때에 英語로 「KOREA」로 하고 우리말로 英語發音대로 「코리아」로 하며 略字로는 「KOR」로 한다고 合意가 된 問題입니다. 따라서 唯一팀 名稱 問題 討議는 이것으로서 完全히 落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貴側이 中國語 表記問題를 굳이 協議하고자 한 條件에서 우리는 이 問題에 대한 立場을 表明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唯一팀名稱의 中國語 表記를 「高利亞」, 漢文으로 말하면 높을 「高」字에 리할 「利」, 버금「亞」, 다른 하나는 역시 「考里亞」, 상고할 「考」字에, 마을「里」字, 버금「亞」字 「考里亞」로 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北南唯一팀 共同委員會와 北南唯一팀 共同事務局 構成 및 運營에 관한 細則, 貴側에서는 規定이라고 했습니다. 이 細則에 관한 問題입니다.

우리는 貴側이 3次 實務代表接觸에서 北南唯一팀 共同委員會와 北南唯一팀 共同事務局 構成 및 運營에 관한 細則을 討論할 것을 提議한 것을 受諾하고 그것을 研究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案을 發表하겠습니다. 北南唯一팀 共同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細則, 草案입니다.

北南唯一팀共同委員會(以下 共同委員會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構成 運營한다.

### 1. 性 格

共同委員會는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選手團構成 및 參加問題에 관한 事項들을 具體적으로 協議推進하기 위한 非常設協議機構이다.

### 2. 機 能

共同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協議決定한다.

- 1)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 2)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

- 3) 《아파체》選定에 관한 事項
- 4) 競技大會期間中 競技進行 및 運營과 關聯하여 열리는 各種 會議參加 및 該當 競技審判選定에 관한 事項
- 5) 選手團構成과 競技參加와 關聯된 選手 및 關係人員들의 北南來往과 關聯한 事項
- 6) 選手團 服裝 및 參加에 따르는 裝備에 관한 事項
- 7) 選手團構成이 完了되고 第 11 次 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를 提出한 以後 選手團參加와 關聯한 大會組織委員會와의 各種 連絡 등 對外的 機能에 관한 事項
- 8) 其他 唯一팀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 事項

### 3. 構 成

- 1) 共同委員會는 雙方 올림픽委員會 및 競技團體關係者들로 構成한다.
- 2) 共同委員會는 北과 南에서 各各 共同委員長 1名, 副委員長 1名, 委員 9名으로 構成한다.
- 3) 共同委員會 委員長은 雙方 올림픽委員會 委員長 또는 副委員長으로 하며 共同委員會 副委員長은 共同事務局長을 兼하도록 한다.

### 4. 運 營

- 1) 會議날자
  - ① 共同委員會 會議날자는 共同委員會에서 合意하며 共同事務局을 통하여서도 定할 수 있다.
  - ② 어느 일방에서 會議날자를 變更시키려고 하는 경우 늦어도 3日前에 相對側에 通告하여 同意를 얻도록 한다.
- 2) 會議場所

① 共同委員會 會議는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한달에 한번 이상한다.

② 會議를 平壤과 서울에서 하기 어려울 경우 雙方이 合意하여 다른 場所에서도 할 수 있다.

### 3) 會議參加

① 會議에는 雙方의 共同委員長, 副委員長, 委員들이 參加한다.

② 會議에는 雙方에서 必要的한 關係者들도 參加할 수 있다.

### 4) 會議議題

① 本會談에서 合意한 共同委員會 機能과 關聯한 모든 問題들을 議題로 한다.

② 雙方 共同委員長들이 合意하는 事項도 議題로 定할 수 있다.

### 5) 會議進行

① 開會는 招請側 共同委員長이 宣言하며 會議는 司會없이 한다.

② 會議에서 基本發言은 共同委員長들이 하는것을 原則으로 하며 委員들도 할 수 있다.

③ 會議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한다.

④ 會議記錄은 錄音, 錄畫, 速記 등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 6) 合意文件

① 合意文件은 雙方 委員長들이 署名하여 交換한다.

② 合意文件은 共同으로 發表하는것을 原則으로 한다.

### 7) 修正 및 發效

① 이 細則은 雙方이 合意에 따라 修正 및 補充할 수 있다.

② 이 細則은 雙方이 署名하여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가진다.

北南唯一팀 共同事務局 構成 및 運營에 관한 細則입니다.

雙方은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唯一팀으로 出戰하는데서 提起되는 諸般事業을 擔當遂行할 北南唯一팀 共同事務局(이하 「共同事務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構成·運營한다.

#### 1. 共同事務局 機能

- ① 北南唯一팀 共同委員會 會議召集과 運營, 記錄등 實務의事業을 擔當한다.
- ② 共同訓練을 組織하고 執行한다.
- ③ 競技大會에 參加할 選手選拔, 競技를 組織하고 執行하며 選手와 役員을 選拔하여 共同委員會에 提起한다.
- ④ 選手들의 訓練 및 競技大會參加와 關聯된 人員들이 北南來往때 提起된 身邊安全, 便宜保障事業을 擔當 遂行한다.
- ⑤ 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國際 및 아시아體育機構와의 連繫, 競技大會와 同伴되는 行事參加등 唯一팀의 對外的 關係에서 提起되는 모든 事業을 執行한다.
- ⑥ 唯一팀 選手團에 대한 歡送 및 歡迎行事を 組織하며 選手團의 服裝 및 행정품 도안을 作成하여 北南唯一팀 共同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執行한다.
- ⑦ 其他 北南唯一팀 共同委員會에서 委任하는 實務問題들을 處理한다.

#### 2. 共同事務局 構成

- ① 共同事務局은 各其 事務局長 1名과 9名 程度の 常務成員으로 構成한다.
- ② 雙方이 合意하는 必要한 數의 實務人員을 共同事務局에 둘 수 있다.

### 3. 共同事務局 運營

#### 1) 事業場所

- ① 共同事務局은 1個月을 週期로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事業한다.
- ② 共同事務局이 構成되어 첫 事業場所는 ……
- ③ 共同事務局 成員들은 한 場所에서 事業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事業을 시작한 다음 雙方이 合意하여 節次를 討論한다.

#### 2) 會議議題

- ① 共同委員會 會議에서 決定하는 事項을 議題로 한다.
- ② 雙方 共同事務局長들이 協議하여 定한다.
- ③ 訓練場所들에서 提起된 問題들도 議題로 할 수 있다.

#### 3) 會議形式

- ① 共同事務局 局長會議을 運營한다. 共同事務局 局長會議는 各其 共同事務局 局長과 必要한 수원이 參加한다.
- ② 共同事務局 會議을 運營한다. 共同事務局 會議에는 雙方的 共同事務局長, 常務成員들이 參加하며 必要에 따라 適當數의 實務委員들이 參加할 수 있다.
- ③ 어느一方의 共同事務局長이 事情에 依하여 會議에 參加할 수 없을 境遇에는 事전에 相對側에 알리고 代理人을 參加시킬 수 있다.

#### 4) 會議進行

- ① 開催宣言은 主催側 共同事務局長이 하며 會議는 司會없이 進行한다.
- ② 發言은 共同事務局長들이 하는것을 原則으로 하며 常務成員들도 할

수 있다.

- ③ 會議는 非公開로 하는것을 原則으로 하며 合意에 따라 公開로 할 수도 있다.
- ④ 會議記錄은 錄音 또는 速記로 한다.

#### 5) 合 意

- ① 雙方사이의 合意事項은 口頭로 確認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必要한 境遇 文件으로 確認할 수 있다.
- ② 雙方사이의 意見一致가 되지 않는 境遇에는 共同事務局의 名義로 共同委員會에 提起하여 承認을 받아 執行한다.

#### 6) 其 他

- ① 共同事務局 成員들은 選手들과 訓練場所에 雙方이 함께 나갈 수도 있고 各其 따로 나갈 수도 있다.
- ② 共同事務局과 共同事務局 사이에 直通電話를 架設하고 利用하도록 한다.

#### 4. 修正 및 發效

- 1) 이 細則은 雙方의 合意에 따라 修正 및 補充할 수 있다.
  - 2) 이 細則은 雙方이 서명하여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가진다.
- 예, 以上입니다.

南(張忠植) : 지난번 實務接觸을 통해서 우리 實務代表들이 提議한 問題에 대해서 貴側에서 部分的인 面에 있어 저희 立場을 理解해 주셔서 지난 5次會談에 비해서는 우리가 意見を 많이 접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次會談에서 제가 왜 여섯가지 問題를 우리가 重點的으로 討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것은 發言文에서 제가 다 밝혔습니다만, 첫째 우리의 呼稱問題에 있어서 單一팀이 構成돼가지고 中國에 갔을때 과연 우리 雙方의 意見에 맞는 그러한 합당한 漢字表記로 나타내 주었으면하는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中國語表記에 대해서 이것을 主張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貴側에서 오늘 提案해주신 「꼬리아」하고 우리側에서 지난번까지 主張했던 「코리아」 상당히 意見이 접근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表記가 中國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커」는 「KO」이것이,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코리아」(可里亞, 可禮亞) 貴側에서 말하는 「꼬리아」(高利亞, 考里亞),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北京에서 받아줄지 안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案이 결국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내세운 이것이 절대 잘못되어진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마을「里」字나 예도「禮」字는 그렇고 버금「亞」字 이건 다 같습니다. 높을「高」字나 그렇지 않으면 옳을「可」字나 그 問題가지고서 이야기입니다만, 이거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漢字表記에 대해서 雙方이 提案했다고 하는것만 해도 우리의 노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共同團長制 問題입니다만 共同團長制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單一팀을 굳이 만들어 놓고 두사람의 團長이, 몸은 하난데 머리가 둘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北(김형진) : 張先生님, 제가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意見을 달리하는 問題가 몇개 없지 않습니까? 자 採  
點制 우리가 받아들였습죠 細部種目, 그다음에 共同事務局 設置問題 받아들  
였죠, 그런데 共同事務局設置에 한마디 말씀드릴것은 共同事務局의 場所는  
이제 우리가 貴側의 案을 받아들임으로써 平壤과 서울에 각각 있게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낸데서는 하나로 되었는데, 그걸 理解하  
시고.

다음에 意見이 合意 못되는 거는 團長問題, 中國語表記問題 두문제 남지 않  
았습니까? 그렇습죠?

南(張忠植): 지금 아직 10個項중에서…….

北(김형진):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내 意見을 提起하겠습니다. 어느 問題부터, 合意되지 못한 問題부터 討  
論합시다. 어느 問題부터 했으면 좋겠는지 貴側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부터 討論합시다. 貴側에서 어느것부터 討論하자 하면.

南(張忠植): 제가 提案했던 여섯가지 問題에 대해서 하나씩, 이젠 時間도  
없으니깐요.

北(김형진): 答辯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南(張忠植): 뭐 하나를 매듭을 지어가면서 해야 빠른 時間內에 이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北(김형진): 張先生님, 무슨 案 있는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南(張忠植): 그러니깐 우리가 名稱問題에 대해서 中國語 表記로 하자, 貴  
側에서 中國語 表記로 받아들였는데 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깐 貴側에서  
내용은 「高利亞」나 우리側에서 내용은 「可禮亞」나 이것이 어떤 것이

결국은 中國語에 가까우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貴側에서 낸 音이 英語發音에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요겁니다. 우리 쓴 것 자 보세요, (「高利亞」, 「考里亞」라고 쓴 것을 보이며) 예, 다 아시는건데.

南(張忠植) : 우리것 提示한것 아시죠?

北(김형진) : 예, 알아요.

南(張忠植) : 그러니깐 音을「可」字냐, 高을「高」字냐, 우리도 두개를 냈습니다. 하나는 里을「里」字 대신 音을「可」字에다가 예도「禮」字를 넣고 버금「亞」字로, 버금「亞」字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字가 우리는 里을「里」字를 낸거하고 「里」字, 「考里亞」 나중것은 맞구만요.

그러니깐 이 네가지 案중에서 나는 우리가 合意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側의 「코리아」(可里亞, 可禮亞)도 내가 보기에는 타당한 發音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問題의 核心이 될수 있는것은 團長問題와 앞으로 共同機構 즉 共同委員會가 構成이 돼서, 다행히 貴側에서 共同事務局設置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뜻을 접수해 주셔서 진일보 발전이 됐습니다만, 問題는 共同委員會에 대한 細則 이것이 잘되어서 서로간의 意見을 좁혀야 되겠다.

나는 貴側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表示하신것에 대해서는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정말 합할수 있는 그러한 地點에 와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問題는 內容을 만들어 놓고 實行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도록 하게 된다

면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다 이겁니다. 問題는 實際적으로 南北選手들이 선발이 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없고 體育技術상에 있어서 雙方이나 國際體育界에서 볼때 정말 이것은 가장 合理的인 그러한 方法으로 選手選拔을 했고 또한 이것이 單一팀을 만드는데 있어 큰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데 대한 規則을 잘 만드는데 우선 더 誠意를 表示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名稱問題라든가 團歌라든가 이러한 問題 즉 民族的인 和解의 精神에서 우리가 接近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時間적으로 볼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것입니다.

問題는 앞으로 선수선발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南北間에 정말 體育交流的인 이러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려면 역시 體育技術上의 問題를 우리가 보다 重要視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北(김형진) : 張生先님, 基本發言에 다 말씀하시는거 다 들었습니다. 뭐 案을 내십시오, 案 있으면.

南(張忠植) : 다음에 團長問題 지금 자꾸만 거둬하는데 우리가 꼭 團長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貴側에서 複數로 두사람이 團長이 돼가지고서 北京 가서 서로 번갈아 하자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副團長 對 團長 이렇게 돼가지고서 責任의 限界가 나뉘지는 것하고 團長이 두사람이 돼가지고서 代表團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했을때 과연 번갈아 가면서 한다 해서 거기에서 實際적인 내 차례가 아니었을때 예를 들어서요, 김단장님이 차례가 되었는데…….

北(김형진) : 張先生님, 이거 말씀하는데, 失禮를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問題씩 하십시오, 한 問題씩.

아니 그러니깐 貴側에서 中國語 表記 討論하자면 中國語 表記 問題를 討論하고 그 다음에 낙착짓고 團長問題 또 討論하고 이래야지, 基本發言에서 말씀하신것 계속 말씀하시니까.

案 있으면 案 말씀하세요.

南(張忠植) : 제안에 대한 說明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씩 …….

그러면 우리 側의 「可禮亞」에 대해서 「可禮亞」라고 쓴것에 대해서 貴側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北(김세진) :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한데, 오늘 이제 몇가지 問題에 있어서 雙方間에 意見差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問題를 討論하는데서 말하자면 오늘 會談運營 問題지요, 한 問題 한 問題 이렇게 討論을 하고 넘어가는데 會談을 빨리할 수 있지 않느냐?

北(김형진) : 張先生님, 中語問題부터 하겠습니까? 합시다. 中語表記問題.

北(김세진) : 잠깐 한가지를 좀 미안합니다.

아까 首席代表先生 여섯가지 問題의 차이점을 놓고 앞으로 討論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섯번째 問題에서 單一팀 參加問題와 관련한 合意事項의 성실한 保障問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具體적으로 어떤걸 意味하는 겁니까?

南(張忠植) : 결국은 우리가 合意書 여러가지 다 만들어 놓고 선수 선발한다. 또 選手가 南北으로 왕래한다 이러한 問題들을 다 合意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코치라든가 즉 貴側에서 말하는 指導員 또는 우리 側에서 말하는 監督, 貴側에서는 責任指導員 이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던

데, 이러한 사람들의 問題라든가 또는 서로 意見이 달라졌 다든가 말씀이  
죠, 선수선발하는 問題라든가.

또한 共同委員會를 구성해 놓고 共同委員會에서 상호간에 위원들간에  
意見이 對立되어 가지고서 우리 本會談에서 合意는 다해놓고 그 다음  
에 共同委員會 가지고선 거기서 本會談 못지않게 장시간 동안 이걸  
한다고 생각할때 말로는 單一팀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더 어  
려운 問題들이 생긴다 하게되면 이거는 本會談에서 그에 대한 保障  
問題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北(김형진) :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南(任台淳) : 제가 조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南(曹英承) : 가만 우선 제가 말이죠.

北(김세진) : 曹先生, 曹先生한테 물어 본게 아니고 首席代表先生이 말씀하  
신 거기 때문에 首席代表先生이 …….

南(曹英承) : 김세진 대표! 누가 말하든지 간에 말씀을 드리면 될거 아  
네요.

南(張忠植) : 그건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北(김세진) : 그래도 首席代表先生이 말씀했기 때문에 首席代表先生 말을  
듣자고 제기를 한것이지.

南(任台淳) : 아니지 우리 側에서 答辯을 하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해!

南(曹英承) : 김세진 대표! 貴側에서의 質問에 대한 것은 누가 對答하든  
지 定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北(김형진) : 曹先生님, 말씀하세요.

南(曹英承) : 왜 말씀을 할려 그러는데 막고 그래요.

北(김세진) : 아니, 그 말을 막는게 아니라.

南(曹英承) : 代表가 이야기 할때는 .

北(김형진) : 아니 말씀 안하시겠어요? 안하시겠으면 다른 분 하십시오.

曹先生님 안하시겠으면 다른 분 하세요.

南(曹英承) :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우선 무엇을 討議해야 되겠느냐 하는것 이전에 貴側 團長께서 말씀하신걸 죽 듣고 느끼는 것도 많고 또 서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우선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는데 사실 지난번 實務代表接觸때도 우리가 여러번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뭐냐하면 항상 討議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만한 量중에서 이만한 量을 우리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 졌다 하는 식의 말을 하지말자.

北(장 웅) : 그러니까 團長先生 論評하자는 거요 뭐요? 다른 소리하면.

北(김세진) : 曹先生 내가 물어본것 對答한다 해놓고 또 다른 이야기 하는데 내 이래서 자꾸 말예요.

北(김형진) : 曹先生 이렇게 하면 안되죠.

北(장 웅)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團長先生 論旨 論評하자는 건가? 빨리 討議를 해야지 뭐.

北(김세진) : 맞지 않는 소리를 해요.

北(김형진) : 누구하고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구만.

南(任台淳) : 아니 그런데 오늘 會議가 잘 進行이 안되는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하는 도중에 자꾸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식이 되어가지고서 야 어디 會談이.....

北(장 웅) : 基本問題 討議하면 되지 않소, 자꾸 이거 實務代表接觸것 까지.

北(김형진) : 張先生 이거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세진代表가 묻지 않았습니까? 曹先生님 이야기 하면 그거는 이런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또 그걸 團長이 말한걸 基本 發言한걸 論評을 저기서 또 하자고 그래?

南(張忠植) : 우리가 다 代表아닙니까? 貴側의 다섯분이 代表 우리 다섯사람이 代表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뭐냐하면 내가 이야기 하면 여기서도 質問 나올수 있고 또 團長님이 이야기 하면 .....

北(김형진) : 아 글썽 그건 理解해요. 張先生님, 理解하는데 그 質問에 대한 對答을 주어야지, 뭐 또 曹先生 거기 論議하자고 그러면 안되지요.

南(曹英承) : 우선 하나가 뭐냐하면 늘 보며는 예컨대 우리가 案을 제기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스포츠 原則과 관례에 따라 가장 순수한 案을 우리가 먼저 提起합니다.

하며는 貴側에서 그에 대한 討議를 하는 과정속에서 처음부터 그것이 좋다하고 명쾌하게 나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상 보면 다른 것을 가져 나왔다가 그 다음 중국적으로 우리 案을 받아 들이면서 讓步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高利亞」, 「考里亞」 이 問題에 있어서도.....

北(김세진) : 아니 曹先生 그 얘기 듣자고 내가 質問한게 아니라는데요.

南(曹英承) :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北(김상부) : 지금 누가 그걸 물어봐서 그 얘기를 하오. 우리 보고 하우.

南(曹英承) :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서두를 시작하는 겁니다.

北(김세진) : 누가 그걸 물어봐서 그 얘기를 하겠소.



南(曹英承) : 우리가 지금 앉아서 누굴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北(김세진) : 그러면 우리가 묻는 말에 對答을 주고 그 다음 할말이 있으면 해야지, 아 우리 묻는 말은 對答도 없고 무슨 남의 집 다른 소리를 하오. 그게 무슨 놈의 會談秩序예요. 이따금씩 曹先生 말이에요. 재미없다 말이에요. 자꾸 이러기 때문에…….

南(曹英承) :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내 말이 끝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北(김세진) : 그러면 그걸 먼저 答辯하고.

北(김형진) : 曹先生 理解해야지. 이거 누구하고 首席代表先生 이거 누구하고 해야 되겠는지 나 좀 바쁘구먼. (雙方騷亂)

南(張忠植) : 團長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代表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또 貴側에서도 저 다른 代表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質問한다고 해서 그쪽 團長만 말씀 하라는게 아니라 代表性 이라는 共同立場에서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北(장 웅) : 秩序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뭐. 貴側 남쪽에서 내놓은 案이 다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접수하면서 처음에 접수하라이따위 소리야 여기서 하면 돼요? 거 안되는 거지. 相對方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말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雙方騷亂)

南(張忠植) : 우리 뭐냐 하면 김代表께서 말씀 하니까 우리 曹代表께서 말씀하는데.

北(장 웅) : 그러면 안되지. 서로 간에 기분 나쁘지 뭐.

南(任台淳) : 내가 얘기 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예컨대 지금 採點制 種目만 해도 그렇습니다. 採點制 種目에 대해서 貴側에서

採點制 種目에 다만 왜 두사람 以上 들어갈적에 상대측 사람도 한사람  
넣도록 하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걸 全 種  
目에 適用시키도록 하자는게 貴側 主張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全種目に 適用시키는 데는 主觀的인 評價  
가 介入되는 採點制 種目과 여러가지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른 種目에는 그 部分에 대해서 適用시킬 수 있는 그런 案들을 전부 具  
體的으로 提議했기 때문에 必要 없다.

그리고 貴側에서 거기에 대해서 適用시킬 項目, 種目이 있다할 것 같으  
면 提示하면 우리가 考慮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 했어요.

그런데 貴側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 그렇다면 다 빼버리자』  
이런 意見을 貴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尊重을 해서 이  
번에 들어 내기로 했다 하고 貴側에 提議를 했는데.

우리가 讓步한것 까지 이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야 어디 會談에  
임하는 姿勢냐 말이에요.

北(장 웅) : 아,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구. 이거  
잘못 理解했구만, 잘못 理解했어요.

南(朴秀蒼) : 表現자체를 否定하지 마세요.

北(장 웅) : 잘못 理解 했어요. 그건 記錄種目까지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안했으니까 지금 …….

南(曹英承) : 장웅代表! 장웅代表!

北(장 웅) : 잠깐, 내가 한마디 합시다. 曹先生 내 한마디 합시다.

南(曹英承) : 장웅 代表! 아까 내 말하다 중간 하다 말았는데 내가 이  
야기를 먼저 하고.

장웅代表가 지난번에 實務接觸을 할때 撤回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  
고 提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團長께서 와 가지고 遺憾스럽  
다 이런 表現은 안된다 이겁니다. (雙方騷亂)

北(장웅) : 내말 한마디 더 들으라구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理  
解를 잘못 했다고요.

南(曹英承) : 記錄을 보세요. 지난번에 貴側 案을 主張하다가…….

北(김세진) : 우리가 지금 首席代表 先生이 얘기한 問題에서 疑問나는 問  
題를 물어보는 건데…….

南(曹英承) : 그래 우리가 撤回 한다는데 뭐 遺憾스럽다는 얘기 입니까?

北(김형진) : 이거 이거 그만…….(雙方高聲)

南(李學來) : 제가 한마디…….

北(김형진) : 얘기 하십시오.

南(李學來) : 이거 會議 劈頭부터 말이죠. 아까 말씀할 때에는 처음에  
는 좋게들 얘기들이 나오셨는데, 연말에 좋은 會談 雰圍氣를 통해서 무언  
가 좀 좋은 결실을 맺자고 얘기 됐는데 어찌 會議 雰圍氣가 이렇게 험  
악해 졌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會談方法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세진 代表가 우리 首席代表님께 質問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꼭 首席代表만 答辯해야 한다는 規定은 없어요.

北(김형진) : 예, 그건 그래요.

南(李學來): 代表中에 누가 答辯을 해도 괜찮습니다. 曹代表가 그 問題에 대해서 答辯을 해야 겠다고 그러면 答辯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왜 내가 首席한테 質問을 했는데 曹代表가 答辯하느냐고 그러면 우리 이 會議雰圍氣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問題로 말이죠. 서로 諒解를 하고 이렇게 會議를 進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北(장 응): 그게 아니라…….

北(김형진): 가만 좀 있어요. 이거 동지날에 뜨거운 팔죽을 잡고 아 직도 열이 식지 않은 모양입니다. 격하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이거 식혀서 아 식혀서, 張先生님! 이렇게 하지 맙시다.

南(曹英承): 團長말씀 가운데 異論이 있기 때문에…….(雙方騷亂)

北(장 응): 曹先生! 曹先生, 團長동무 말할 때야…….(雙方騷亂)

北(김형진):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首席代表 先生하고 合意를 본것이니까. 中國語 問題 먼저 提起합시다.

이래서 提起한 問題는 다음에 討議하면서 貴側에서 6번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討論하자는가. 貴側에서 提議한 順序대로 中國語 問題 부터 討論합시다. 中國語表記.

이제 張先生님 中國語 表記에서 貴側에서 提起한 「可里亞」, 「可禮亞」가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中國語表記 問題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立場을 明白히 한거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提起한 「高利亞」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提起했는가.

貴側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反對하면 反對하고 좋으면 좋다.

南(張忠植) : 예, 그거 말씀하세요.

北(김형진) : 이 「高利亞」, 「코리아」를 「高利亞」로 쓰는 問題 우리가 中國에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張先生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中國에서 그래도 主權國에서 좋은걸 써야지 나쁜걸 쓰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問題가 論議된 것이고. 그래서 「高利亞」로 提起한 높을 「高」, 이할 「利」, 버금 「亞」字, 그 다음에 상고할 「考」, 마을 「里」, 버금 「亞」이 「考里亞」이걸 外國語 「코리아」發音 그대로 主權國 側에서 表記해서 세상에 發表했습니다.

南(張忠植) : 무어라고 發表했어요?

北(김형진) : 이제 「高利亞」, 그래서 우리는 무슨 거기 것을 따르는 것 보다도 外國語 發音 表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가 決定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發表한대로 그대로 提起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副次的이기는 하지만 語音上 볼때에도 「高利亞」가 「코리아」에 가깝겠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겠다. 그리고 事實上 「高利亞」外來語 表記가 무슨 뜻이 여기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主權國에서 自己 表記 發音대로 이렇게 發表한만큼 이런걸 염두에 두고 저걸 提起했습니다.

南(張忠植) :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긴말 않겠어요.

왜냐하며는 우리가 中國에서 어떻게 表記할줄 모르니까 우리 雙方間에 「高麗」를 안쓰기로 한 이상은 그 세音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가급적 우리들의 뜻에 맞는 그래서 나는 雙方間에 좋은 이름을 내서 그것을 中國側에 提案하면 거기에서 參考로 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中國側에서 發表했다니까 우리 한번 確認해 보겠습니다.

北(김형진) :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다르게 숨은 것이 없겠습니까?

南(張忠植) : 그래서 오늘 여기서 名稱問題 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과연 中國側에서 이렇게 發表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確認해 보고 우리가 論議합시다.

北(김형진) : 오늘 또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두 案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 없습니까?

南(張忠植) : 아니 中國側에서 이렇게 發表했다고 생각할 적에…….

北(김형진) : 아니 그러니까 張先生님, 貴側에서 꼭 合意하자니까 合意해야죠.

南(張忠植) : 아니죠. 내가 한번 中國側에 알아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보세요, 한번.

北(김세진) : 首席代表先生, 이제 中國語 表記는 석자로 한다. 이렇게 오늘 協議하고.

저렇게 우리가 두가지 案 내놓은 것 하고 貴側에서 두가지 案 낸것 하고 中國側에 提議해 보자 이 얘기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그렇다면 張先生님 이거하고 貴側에서 낸 「可禮亞」, 「可禮亞」 우리 이걸 몽땅해서 中國側에 勸告해 보지 않겠습니까?

南(張忠植) : 과연 이렇게 發表가 됐는지 確認해 봐야 되겠습니다.

北(김세진) : 그러니까 난 여기서 어떻게 하나 合意點을 좁히자 하나까

또 미지수로 넘기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張先生님…….

南(張忠植): 아니 그러니까 中國側에서 과연 이렇게 發表되었는가 알아봐야죠. 그렇죠?

北(김형진): 그러니까 그 두 案하고 貴側의 「可里亞」, 「可禮亞」 4 案을 해서 中國側에 勸告하는 것을 合意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南(張忠植): 아, 그건 좋습니다.

北(김형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合意합니다. 「可里亞」, 「可禮亞」 그 다음에 「高利亞」, 「考里亞」를 네개를 써서 第 11 次 아시아 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勸告한다.

南(李學來): 그 問題는 이제 貴側에서 案을 내놓으셨으니 그걸 한번 檢討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決定하는게 어떻겠습니까?

南(張忠植): 中國側에 한번 알아 봐야 되겠어요.

南(任台淳): 그러니까 지금 貴側에서 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中國語 表記, 呼稱에 대한 中國말 表記問題도 조금 協議를 할 수 있는 마당이 벌써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首席代表께서 말씀하셨듯이 貴側이 이제 두 가지 案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中國에서 發表했다는데.

예컨대 어떤 言論에서 記載가 된것인지 또는 公式 發表를 한 것인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그래서 그것도 確認해 봐야 되겠고, 또 역시 專門家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름을 짓는 問題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 作名을 하더라도 이름 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짓겠는가 다 그러는데 이게 팀의 名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名稱을 짓는데 역시 서로가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좀 알아보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貴側에서 案을 내셨다고 하는 事實이 重要하다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選手團 呼稱에서 두가지 項目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項目은 우리 말로 「코리아」로 英語는 「KOREA」 略字는 「KOR」로 하며 中國語로는 英語 發音대로 表記하며 「高麗」로는 表記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번째 項目에 가서는 中國語로는 이제 석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무슨 무슨 字로 表記하도록 北京 아시아 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提議한다. 그러니까 이름 석자만 그건 相當히 合意가 용이하게 됐다고 생각 하는데, 오늘 거기까지만 合意한 걸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南(張忠植): 合理的인 提案을 하셨다구요. 貴側에서 案이 나왔고 그랬으니까.

北(허혁필): 제가 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名稱問題 가지고 이미 合意된 問題이지만 中國語 表記 問題와 關聯해서 지금 이거는 本會談하고 實務接觸까지 하면 한 4~5 차례 지나다가 貴側에서 이 問題를 계속 要求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案을 研究해 냈는데.

南(張忠植): 아니 貴側에서 研究한 案입니까? 中國에서 發表한 것입니다. 아까 團長께서는 이거 中國에서 發表했다고 그러시는데.

北(허혁필): 좀 들어 보십시오. 우리 中文學 學者들 하고 좀 討論해 보고 그 다음에 中國 言論界에 있는 個別的인 아는 사람들 하고 意見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任代表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中國 組織委員會나 中國 當局에서 公式 發表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南(張忠植) : 아까 團長께서 公式 發表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北(허혁필) : 中國에 公式 發表한 말씀은 안했죠. 그래서 그것은 個別的인 記者들이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一部 出版物에도 이렇게 난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에는 中語 表記 問題를 어떻게 하겠는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제 個別的인 생각은 그저 中國사람들이 그래도 「高利亞」라 석자로 쓰는 境遇에도 제일 좋다면 우리말로 하면 「고려아」로 쓰면 이게 제일 理解하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런건 안하고 우리가 오늘 높을 「高」字 에다가 이할 「利」字, 버금 「亞」字 이런 案을 내어 놓았는데, 이제 張首席代表 先生도 그런 말씀하는거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글자의 品位도 考慮되고 發音도 考慮되고 그래서 되도록 우리의 品位에 맞는 그런것 하자.

이래서 우리가 그 사이 별로 이 問題에 대해 안해도 일 없다 하던 問題인데 이제는 年末이 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案을 提起했는데 오늘로서…….

南(張忠植) : 案을 提起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단장 께서는 이것을 『中國組織委員會에서 公式名稱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알아 들었다 말씀이죠.

北(김형진) : 中國側에서 뭐냐 하면…….(雙方騷亂)

南(任台淳) : 오해하기 좋도록 말씀하셨다구요.

南(張忠植) : 團長께서 分明히 말씀하셔야죠.

北(허혁필) : 저의 생각에는 그 쪽에서 이제 두개 案을 이미 提起했고

그래서 우리가 相當期間 研究했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이제 中國語 發音의 見地에서 보나 그 漢字를 역시 우리 말로도 發音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意味에서 보면 그쪽에서 提起한 「커리아」 嬸을「可」字에다 마을 「里」, 버금 「亞」 보다는 높을 「高」字에다가 이할 「利」字 쓰고 버금 「亞」字 이것이 우리 民族의 구미에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놓은 겁니다.

南(張忠植) : 물론 우리가 嬸을「可」字를 쓴것도 이것도 내 個人이 만든 것도 아니구요.

내 나름대로 中國語를 하는 분들 하고 또 中國 사람들 하고도 상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이거 卽興的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貴側에서 이게 무어나 하면 이러한 案이 나왔으면 지난번까지는 中國語 表記에 대해서는 전혀 意思를 表示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貴側에서 案을 내 주시길 부탁했고 우리 案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했는데 오늘 비로소 이걸 내 놓으신거라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公開會談을 하는 것 만큼 다 이걸 알게 될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貴側에서 提案한 이걸 가지고 우리 學者들 하고 相議해서 다음 번에 어떤 것이 되든지 말씀이죠. 우리가 中國에 건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貴側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提案하고 또 우리 側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提案을 하게되면 中國側에서 이걸 쓰건 또 다른걸 쓰건 어떠한 適切한 表現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合意書를 만들때 英語 表記는 決定이 되었고 우리말 表記도 決定되었다 말입니다. 問題는 「高麗」를 우리가 안쓰겠다고 지난

번에 團長께서도 口頭로 合意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中國말 表記만 決定되면 이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單一팀 構成하는데 基本的인 核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主催國이 거기서 어떤걸 選擇하느냐, 단 우리는 參考資料로 내놓자 이거죠.

北(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다가? 그렇게 합시다. 張先生님! 貴側에서 「可里亞」, 「可禮亞」에서 무얼 選擇하시겠습니까? 두 案중에서, 하나를 選擇한다면 어느 것을 選擇하겠습니까?

南(張忠植) : 나는 그 앞에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돼요

北(김형진) : 우리는, 貴側의 意見을 말씀하십시오. 두 案이니까 두 案을 다 勸告하시겠습니까? 하나를 집으십시오. 「可禮亞」?

南(張忠植) : 그러시다면 말이죠. 後者の 예도 「禮」字가 들어간 것을 나는 썼으면 좋겠어요.

北(김형진) : 後에 거요. 「可禮亞」?

南(張忠植) : 아까 品位 있는 글자를 말씀하셨으니까…….

北(김형진) :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張先生님. 貴側에서 「可禮亞」를 主催國에 勸告할 것을 집었다면 우리는 貴側이 「可禮亞」로 選定한 것을 第11次 아시아 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勸告 한다는 것을 同意 합니다.

南(張忠植) : 예, 좋습니다.

北(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任先生 됐습니까?

南(任台淳) :진작 그렇게 나오시지 또 …….

北(김형진) :案을提起하라니까 됐어요. 승意된 다음에 더 말할 必要 없  
고 그럼 이 問題도 승意 됐습니다. 「可禮亞」.

그 다음에 團長 問題죠.

南(張忠植) :예, 團長問題 인데요. 우선 고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을 가지고 나가서 實質적으로  
그 500~600 名의 選手를 管理하고 또한 거기에 나가서 서로 「팀」  
별로 監督·코치가 말이죠. 南北間에 서로 한 「팀」속에 속해 있는데 거  
기에 團長이 들어 나온다 하면 아무래도 거기 構成員 가운데 코치라든  
가 監督은 자기 쪽의 團長 말을 들으려고 하지 相對方側의 團長 말을  
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團長이 들어 있었을 境遇에 여러가지 變化되는  
狀況 그 現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問題들에 대해서 번갈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組織委員會에서도 團長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困難을 겪을 것이고 또 하나는 OCA 憲章에도 違背되는  
하나의 事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民族團合의 精神을 가지고서 南北의  
歷史上 처음으로 單一팀을 만드는 이 마당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를 만들려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貴側에서 金團長이 된다고  
하면 내가 副團長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내 役割을 할 수 있고.

北(김형진) :내가 미안스럽지요.

南(張忠植) :아니죠.

北(김형진) :北과 南이 똑같이 했으면 좋지, 내가 團長이 되고 張先生

副團長되면 내가 미안스럽죠 뭐.

南(張忠植):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하면 貴側에서 그랬잖아요. 소위 監督, 코치에 대해서는 말이죠 選手가 많은 側에서 監督을 내고.

北(김형진): 張先生님 그러하면 우리가 또 共同委員會에서 또 나오라고 그런 겁니까?

南(張忠植): 글썽 그러한 것이 合理的인 提案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놓고.

團長을 둘이 다 가가지고서 現地에서 複雜하고 意見이 말이죠 對立되었을 境遇에 몸은 하나 만들어 놓고 머리 둘이 되어 가지고서는 絶對的으로 北京 아시아競技大會에 參加해서 圓滑하게 팀을 運營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대한 團長을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提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北(김형진): 예, 張先生님!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張先生님은 團長의 代表權 行使 問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는 둘인데 몸뚱이는 하나죠. 이렇게 해서 結果적으로 張先生님 말씀하시는 건 代表權 行使에서 어색한 감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어색한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方法을 윤번제로 하는 걸로 妥結할 수 있다. 얼마든지 또 생각하면 더 좋은 方法 있고.

그래서 이 윤번제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 내용상 具體的으로 整理해 말하면 隔日制로도 할 수 있고 開·閉幕을 앞뒤로 갈라서 절반을 해서 두 部分으로 나눠서 隔日制로도 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오손 도손 하면 組織委員會 뿐만 아니라 아시아 競技大會에 參加한 분들도 이전에는 제각기 參加하던 팀이 서로 團長이 둘이다 손목 쥐고 나와서 오늘은 이 團長이 代表權을 行使해도 아무 말쟁 없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결코 좋은 거죠. 나쁠거야 없죠.

南(張忠植) : 말은 오손 도손 쉬운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金團長께서 團長 經驗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團長이 뭐냐 하면 말이지요.

實際적으로 그것이 아까 우리 會談을 할때 會談을 하는데도 여기에서 發言하는 問題가지고 神經을 쓰고 말을 沮止한다 안한다 이런 霧圍氣 인데.

하물며 근 30個 種目に 가까운 南北韓 參加 選手를 한테 합쳐서 거기에 數많은 코치, 監督이 있는데 어떻게 團長 들어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끌어 나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提案하는 團長 單一制는 이것은 가장 合理的인 方法 이에요.

北(김형진) : 合理的이다. 變動이 없다 이 말씀이죠?

南(張忠植) : 예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體育界에…….

北(김형진) : 그러니까 首席代表先生으로서는 變動이 없다 그러면 貴側의 案으로 理解합니다.

北(김세진) : 이거 저 首席代表先生님! 그럼 共同團長이 좋으나, 團長이 좋으나 하는건 實務會談에서 充分히 意見이 交換됐습니다. 그래 서로 參酌을 해서 좋은 案을 가지고 나와서 이번에 妥結하자 이렇게 約束도 되었고.

그런데 오늘 좀 섭섭한 것은 首席代表先生이 이 會談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하나라도 修正案이라도 내놓다든가, 하다 못해 뭐 하나 同意하는 맛도 있든가 뭐 이래야지.

이제 그거 하나 남은 問題가지고 그렇게 一方에 要求만 자꾸하시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보실 必要가 있지 않겠는가.

妥結해야 되겠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繼續하겠소?

南(張忠植): 이것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雙方이 말장난하자 또 무슨 누가 내놓은 것이 讓步를 하고 讓步를 받아서 이루어 진게 아니에요.

問題는 우리가 提案했던 것이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北(김세진): 그럼, 우리가 提案한게 무리가 뭐 있어요?

南(張忠植): 예,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團長이 둘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現地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만약에 나 하고서 金團長이 둘이 갔을 때에 한 팀에서 어떤 시합에 나간다고 합시다. 축구면 축구시합에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選手를 우리는 내 보내야겠다 했을때 코치간에 말이죠 意見對立이 있다 이거예요. 코치간에 意見對立을 하는데.

하물며 거기 가서 團長간에 意見이 對立되었을 때 그 팀이 되겠습니까?

北(김세진): 그러니까 問題는 代表權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 團長先生이 代表權 問題를 얘기했죠.

또 이제 首席代表先生이 말씀하신 거는, 問題는 다 民族和合의 見地에서 思考하고 생각하고 行動하면 이게 큰 問題 아닙니다.

南(張忠植): 우리가 民族團合에…….

北(김세진): 자꾸 對決하고…….

南(張忠植) : 對決이 아니예요. 가만 있어 보세요. 民族團合에 있어서 우리가 名稱問題라든가, 團旗問題 라든가요, 團歌問題는 이미 民族的인 團合의 精神에서 이미 合意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團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技術的인 問題, 行政的인 問題, 거기에 대한 權限의 問題 이러한 問題들인데.

이것을 實際的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 가지고 할 問題가 아니라 實際的으로 팀을 이끌어 갈수 있는 效率性에 있어서도 合理性이 있으나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내가 우리 쪽 南側에서 團長을 가겠다고 하면 내가 고집쟁이예요.

이것을 北이든 南이든 間에 우리 民族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내놓는데 團長을 둘 만들었다. 이걸 내가 볼때 實際的으로 볼때 두개 팀을 상징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이겁니다.

北(김형진) : 됐습니다. 張先生님 또 그래서 이거 繼續 論議한 건데. 張先生님! 首席代表께서 貴側에서 單一團長으로 하는게 가장 適當하다. 이 말씀이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그럼 내 案을 하나 提起하겠습니다. 修正案 提起 하겠습니다.

南(張忠植) : 말씀하십시오.

北(김형진) : 唯一팀 團長과 關聯한 問題에서 지금 論爭을 많이 거듭했는데 이 問題를 妥結하기 위한 修正案을 내가 提起하겠습니다.

北南 選手들로 構成되는 唯一팀의 團長은 원래 우리가 提起한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共同團長制로 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公明正大的



案입니다.

그런데 貴側이 繼續 貴側의 主張을 撤回하지 못하는 條件에서 共同團長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貴側이 우리 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互相合意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團長問題에 있어서는 오랜 時間 一步도 前進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事實上 이것으로 해서 繼續 論爭만 벌려서는 唯一팀을 成事시킬 수 없는 것은 自명한 事實입니다.

또 우리는 雙方 代表들이 北南唯一팀을 構成할 使命을 지닌 代表들인 것 만큼 만약 이렇게 된다면 團長問題로 해서 唯一팀을 成事시키지 못하면 온 거래 앞에 自己任務를 다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重大한 使命感으로 부터 選手團 團長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修正案을 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修正案 입니다.

『選手團 團長은 選拔된 選手가 많은 側에서 맡고 적은 側에서 名譽團長을 맡도록 하되 團長과 名譽團長이 提起되는 모든 問題를 合意하여야 하며 代表權은 團長이 行使하도록 한다』

南(任台淳) : 名譽團長이 모든 것을 協議합니까?

北(김형진) : 아니 團長과 名譽團長이 提起되는 모든 問題를 協議해야 하며 代表權은 團長이 行使하도록 한다.

南(張忠植) : 그럼 名譽團長은 무슨 機能을 갖죠?

北(김형진) : 代表權은 團長이니까 만약에 우리 側에서…….

南(任台淳) : 그러니까 事實上 말하자면 團長을 둘을 두자하는 內容으로.

北(김형진) : 아니죠. 代表權이야 團長이 갖죠.

南(任台淳) : 그러니까 代表權만 한 사람이 갖고 團長의 役割은 들어서 遂行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北(김형진) : 아니죠.

南(任台淳) : 그런 얘기 아니에요?

北(김형진) : 어떻게 그렇게 돼요? 團長이야 代表權이 있는데.

南(任台淳) : 그런 얘기 아닙니까?

北(김형진) : 아니 그렇다면 설사 많은 側에서 團長을 맡고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맡았을때 副團長·團長 協議 안해요?

南(張忠植) : 물론 協議 해야죠.

北(김형진) : 그럼 같은 거죠.

南(任台淳) : 그거야 組織委員會가 있지 않습니까? 組織原理가,

北(김형진) : 그러기 때문에 名譽團長 입니다. 團長이 아니고 名譽團長.

南(張忠植) : 名譽團長으로 해서 副團長 役割한다 이거예요?

北(김형진) : 그러니까 副團長이건 名譽團長이건 行使는 代表權을 다 團長이 한다 이거죠. 團長, 團長이 하는데요 뭐.

南(張忠植) : 名譽團長을 副團長 役割을 하는 겁니까? 이름만 名譽字를 붙이고.

南(任台淳) : 하여튼 기발한 着想들만 하십니다.

南(朴秀蒼) : 金團長님 名譽團長 털어 버리십시오. 털어 버리세요.

北(김형진) : 예? 털어 버리다니. 名譽團長인데.

北(장 응) : 任先生님, 首席代表先生 그쪽에도 올림픽委員會에 名譽委員長 있지요? 그거예요.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별로 다르게 생각할 必

要 없어요.

南(任台淳) : 團長이라는 것은 「치프」이고 「쉐이프」 이라는건 그게 아니에요.

北(김형진) : 거 우리 側에서 團長이 나오고 그러면 아까 張先生이 내가 團長이 되고 張先生이 副團長이 되면 그거 미안하여 됩니까? 그래도 名譽團長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代表權을 내가 한다 하고 …….

南(張忠植) : 우리가 民族團合 이라고 하는 和解라고 하는 이러한 기반에서 單一팀을 만들어서 歷史上 처음으로 우리가 分斷된 以後 처음 單一팀을 만들어서 좋게 前進하자고 해놓고 굳이 머리를 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은 이게 可能性이 없는거고.

北(김형진) : 張先生님 조금 뭐 …….

南(曹英承) : 首席代表先生님 제가 말씀좀 하겠습니다.

南(張忠植) : 말씀해 보세요.

北(김형진) : 讓步하실 때가 된것 같은데.

南(曹英承) :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團長께서 이제 提議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종전보다 相當히 變化가 된 것이고 名譽라는 이런 用語도 나오고 해서 相當히 意味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問題는 그동안 一貫되게 죽 團長 單一案을 主張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좋은 用語를 갖고 提議를 했으니까.

問題는 단지 代表들끼리만 論議해서 정할 事項이 아니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돌아가서 各自가 競技團體하고 또 關係機關들하고 이렇게 協議하는 過程에서 과연 이게 좋겠는지 나쁘겠는지 한번 더 相議하는 그런 節次를 갖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北(김상부) :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團長 同志가 貴側이 團長問題와 關聯해서 繼續 자기 主張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 問題 妥結하지 못하면 우리가 唯一팀을 構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團長 問題와 關聯해서 이제 修正提議案을 提議 했는데 貴側에서 그것을 研究하겠다고 하니깐 그래서 우리 意圖를 正確히 알려 드리자고 합니다.

우리가 提起한 名譽團長 그러니까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내고 적은 側에서 名譽團長을 내되 그 團長과 名譽團長이 提起되는 모든 問題를 合意하고 代表權을 團長이 行使토록한다 하는 이 修正案은 貴側에서 提起한 모든 團長問題와 關聯한 그 案을 充分히 接受해서 充分히 考慮해서 이를 提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가 解決되며는 貴側에서 念慮하고 있는 代表權 問題라든가 그 다음에 몸이 들인데 머리가 하나라는 이런 問題, OCA 憲章 問題 이런 모든 問題가 다 解決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며는 貴側에서 充分히 納得이 갈 수 있는 問題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貴側의 案을 充分히 考慮했기 때문에 接受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더 말할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게 現實적으로 北과 南이 唯一팀을 構成하는 만큼 이 唯一팀 本然의 目的에도 맞고 또 스포츠 精神의 原則에도 맞고 그 다음에는 民族的 團合과 和解를 이룩하는 側面에도 다 맞는 이런 案이기 때문에 이런 問題를 아시고 이 案이 正當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南(李學來) :제가 이 問題와 關聯지어서 한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曹代表께서 그동안 우리가 提案했던 여러가지를 考慮해서 進一步된 案을 그쪽에서 내놓으셨다고 判斷이 돼서 이걸 좀 더 具體的으로 研究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回答을 드리는 方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한가지 質問하고 싶은거는 그럴 경우에 副團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北(김형진) :글쎄 그런 경우에 副團長은 團長이 안낸데에서 내고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러면 相對便에 名譽副團長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南(任台淳)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曹代表가 이걸 研究를 하도록 하는게 어떻냐 하는 이런 意見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이게 뭐 研究를 한다는 것 보다도 난 貴側의 이 案이 본래의 案에서 基本的으로 變化가 없는 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修正案을 보면 윤번제 案을 내 놓으셨고 그 다음에 名譽團長制 案을 내놓으셨고 했는데 이것을 基本的으로 團長을 둘을 두자 하는 案이라고 우리는 解釋할 수 밖에 없는데 基本的으로 團長을 둘을 두자는 案은 單一팀을 構成하자는 基本趣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團長을 選手가 많은 側에서 말고 副團長을 選手가 적은 側에서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이 우리의 立場인데 여기에 대해서 貴側이 기본적으로 團長을 둘로 하는 案으로서 여러가지 變形된 이러한 案을 내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는 貴側 역시 돌아가서 가지고 다시 한번 團長을 單一團長으로 하는 問題에 대해서 檢

討가 있으시기를 期待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貴側에 드리고 싶습니다.

北(김세진) : 任代表 무슨 修正案 이래도 하나 내놓고 우리 보고 研究하라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그걸 가지고 또 研究하라 그래요.

南(張忠植) : 지금 修正案을 내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貴側의 다섯분만이 議論하는게 아니죠? 또 體育界의 여러 高位層 指導者들 하고 相議하실 問題아닙니까?

北(김세진) : 代表들이 할 수도 있죠.

南(張忠植) : 諮問도 받고 議論도 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體育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貴側에서 名譽團長制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것을 그 提案을 提案하신 거니까 提案한걸 가지고 제가 한번 相議를 해서 體育界指導者들하고 우리 委員長님 하고 相議해서 과연, 나로서는 사실 貴側에서 團長이 되든 우리 側에서 되든 單一팀의 團長은 하나다 이제 못박고 싶지만 貴側에서도 이 會議에 대한 誠意를 表示하여 주는 거고 서로 성의를 表示해야 되는거니깐 그 問題는 받아 들여 가지고 가서 議論해서 다음에, 다음 모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討論하게 되면 좋은 結果가 나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깐 이제 우리 案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研究해서 對答을 주시겠다?

南(張忠植) : 그렇죠.

北(김형진) : 그렇다면 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돌아가서 研究하시겠다는 것은 事實上 貴側이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맡고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맡을데 대한 案에서 일정한 우

리의 修正案에 共感을 表示하고 研究하시지 않느냐 하는 뜻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서 研究하실 바에는 어떻게 하나 단장문제를 종결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唯一팀이 合意가 되는거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唯一팀 團長問題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이러한 條件에서 돌아가서 研究를 하셔야 되겠다니까 내가 다른 修正案을 劃期的인 것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더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對答을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서 주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음에 나왔을 때 또 새로운 案 提案하겠습니까?

南(張忠植) : 좋아요.

北(김형진) : 아마 들어보시면 여기서 금방 答辯 주실 수 있는 提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貴側에서 이제 選手數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적은 側에서 명예단장을 말도록 할데 대한 우리 修正案도 研究해 보시겠다고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肯定的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貴側의 代表들과 首席代表先生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많은 側에서 團長을 말고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말아야 한다는 貴側의 意見에 變動이 없다는 것으로도 또 理解됩니다.

그런것 만큼 우리가 두차례 씩이나 修正案을 내 놓았지만 貴側이 사실상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一同웃음)

南(張忠植) : 요지부동이 아니라…….

北(장 응) :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다 요지부동이었지 뭐.

北(김형진) : 雙方會談인데 그래도 이제는 貴側이 어느 하나만은 조금 받아들이는 것 있어야 될 때가 이젠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唯一팀 構成을 바라는 北과 南의 體育人들과 온겨레의 절절한 念願을 反映해서 어떻게 하나 唯一팀을 成事시키려는 崇高한 目的으로부터 選手團 團長問題와 관련한 새로운 修正案을 提起하겠습니다.

修正案은 다음과 같습니다.

『唯一팀 團長은 올림픽 競技에서 世界的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으로 하며 副團長은 상대팀에서 낸다』

南(張忠植) : 다시 한번요.

北(김형진) : 『唯一팀 團長은 올림픽 競技에서 世界的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으로 하며 副團長은 相對側에서 낸다』

역시 이 案에서도 團長과 副團長은 合意制를 이룩해야 한다.

南(任台淳) : 아니, 어떻게 하는게 世界的으로 이름을 날린 겁니까?

北(김형진) : 가만히 계세요.

이 경우에 우리는 貴側에 있는 孫基禎先生이 唯一팀 團長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唯一팀 團長을 할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南(張忠植) : 이젠 난 또…….

北(김형진) : 우리의 修正案은 그동안 難問題로 되어온 唯一팀 團長問題를 對決의 方法이 아니라 民族의 和解와 團합의 견지에서 해결하기 위한 劃期的인 案입니다.



우리 民族이 日帝의 植民地 統治下에서 수난을 겪고 있을때 第 11 次 아세아競技, 아니 國際올림픽競技大會 「마라톤」競技에서 1等を 한 孫基禎先生을 唯一팀 選手團의 團長으로 하면 온 겨레와 體育人들 속에서 共感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世界 體育界에서도 열렬히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修正案은 孫基禎先生이 현재 올림픽委員會 常任顧問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側에서 볼때는 크게 양보하여 提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劃期的인 修正案에 대해서 貴側에서 應당 肯定的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南(張忠植) : 지금 말이죠. 내가 만약에 貴側에 올림픽大會에서 이름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貴側의 團長을 아무개를 指名을 해서 그 사람으로 團長을 내시요.

이거는 물론 孫基禎先生은 우리 民族의 體育人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고 지금 團長님 말씀하신대로 말이죠. 정말 歷史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명예를 우리한테 안겨준 분이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側의 올림픽委員會 常任顧問으로 계시는데 이걸 우리側의 團長으로 指定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表示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側의 團長資格을 貴側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 이것은 會談外的인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單一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것은 外的인 表現이라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 張先生님 !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孫基禎先生을 團長으로 하시는건 안됩니다?

南(張忠植) : 그건 내가 決定할 問題가 아니예요.

南(曹英承) : 내가 조금 얘기할게요. 우선 修正案을 내신데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本質적으로 團長體制를 어떻게 할거나 하는 것은 나중에 選手團이 構成되고 난 뒤에 그 선수단에 包含될 여러가지 직접 관계인들의 趣向과 希望과 意見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案을 낼 때에는 적어도 우리 代表들끼리만 이렇게 協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單一팀이 構成되었을 때 직접 參與할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選手, 指導者 또 監督등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 의견을 綜合해서 이 問題를 定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修正提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이전에 이 問題를 더이상 討議하기 보다는 일단 修正提議로 보고 돌아가서 저희들이 討議해서 다음에 意見을 내어서 또 다시 討論해 보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首席代表께 건의를 드립니다.

단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貴側 단장께서 우리側에 있는 人物을 한사람 選定을 해서 존경을 表示한데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南(張忠植) : 예. 그래서 오늘 提案을 하신 거니까 뭐 孫先生님에 대해서 우리 南北 온겨레가 존경의 뜻을 表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團長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렇게 올림픽에서 명예만 떨쳤다고 하는 問題보다는 그분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는 團을

이끌어 왔던 經驗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면에서 이것을 檢討를 해야 될 問題인데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體育指導者들 하고 상의를 해서 貴側의 案에 대한 것을 우리가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南(李學來) : 우리가 한가지 追加로 質問할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修正案에 대한 修正案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修正案을 두가지로 내놓으신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첫째 修正案은 選手가 많은 쪽에서 團長을 적은 쪽에서 名譽團長을 하는 것 하나 하고 이것 修正案 중에 하나고, 두번째 修正案이 첫번째 修正案을 다시 修正한 것이 아니고, 다시 두번째 修正案으로서 올림픽에서 名聲이 있는 분 중에서 團長을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그말씀이 맞죠. 團長님?

北(김형진) : 예.

南(李學來) :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選手數가 어디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孫基禎先生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외에는 그럴 경우에 團長감이 없다고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 體育人들이지만 體育人 立場에서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어째서 이렇게 이러한 表現을 김단장님께서 별안간에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底意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제가 잘못 느낌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團長問題를 協議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누가 團長이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이것이 歸結이 될지도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特

定人을 指稱을 해서 그분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首席代表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純粹한 體育會談 外的인 어떤 다른 것이 말이죠 여기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그러길 바라는데 제가 느낌이 그러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까 우리 曹代表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돌아가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차례 내놓았던 案에 대해서 貴側에서는 아무런 다른 代案이 없다가 오늘 새로운 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 案을 다 일단 研究·檢討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장 決定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좀 研究·檢討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얘기가 나누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김형진): 아 가만, 저한번 장동무 한번좀.....

北(장웅): 한마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曹英承代表의 말을 듣고 曹英承代表가 比較的 우리 意思를 正確히 理解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李學來先生께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하는데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하겠는데 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 모든 民族들이 자기 民族에게 올림픽競技에서 優秀한 成績을 특히 이런 長距離 分野에서 爭取한 이런 사람들을 다 내세우고 있고 또 尊敬의 뜻을 표하고 있고 어떤데나 最善의 자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핀란드」의 「파본드롬」이라든가 「이디오피아」의 「아베베」라든가 「체스코슬로벤스코」의 「자토벤코」라든가 다 그렇게 하고 또 團長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純粹한 우리 스포츠인들의 民族的次元에서 결국은 이런 對決意識을, 次元을 넘어서 여기서 우리가 내놓은 것입니다.

한데 그저 專門體育을 하시는 學來先生이 理解를 못하시는데 잘 理解를 하시길 바랍니다. 曹先生은 理解를 하시는 것 같은데 學來先生이 잘 못 이해하시는데…….

南(張忠植) : 내말 한마디만 저기 장웅代表께서 들어주세요. 뭐냐하면 孫基禎先生을 높이 評價해 주시는 것 그건 다 우리 民族에 하나의 共感的인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問題는 團長이 어느 쪽에서 될지 몰라요. 選手選拔을 해봐야 말이죠. 한사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團長을 하는 사람 하자고 우겨대는 사람 모양으로 그러니까 너희 側에서 뭐냐하면 團長이라 하면 이사람 이외에는 資格者가 없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쪽으론 孫基禎先生 높이면서 우리 側에 대해서는 代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외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들린다 이거예요.

北(김형진) : 張先生! 이제 體育人들의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北(김세진) : 제가 한마디 이야기 합시다. 團長問題는 이 會談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妥結을 봐야될 가장 重要的 그런 項目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쪽 曹英承先生도 이제 상당히 肯定的인 그런 立場에서 우리 意見を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孫基禎先生 밖에 없다 하는 이 뜻은 그건 뭐 남쪽에 孫基禎先生 밖에는 團長을 할 사람 감이 없다 이

런 뜻은 아닙니다.

올림픽歷史에 이름을 날린 이런 유명인사, 그런 有名한 體育 「스포츠맨」중에서 낸다면 우리가 念頭に 두고 孫基禎先生 밖에 없다 하는 이런 뜻은 北에도 올림픽競技에 가서 金메달 탄 사람들이 있고 南에도 또 金메달 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期間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孫基禎先生을 이렇게 念頭に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은 北과 南으로 갈라지기 이전 또 우리 民族이 수난을 겪고 있던 그런 때에 民族의 名譽를 떨친 그런 의미에서 이제 孫基禎先生 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南(張忠植) :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孫基禎先生님 말씀을 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로선 不快한 생각이 들어요.

北(김세진) :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야기 합시다.

北(김형진) : 理解 하셨습니까?

南(張忠植) : 저 요다음에 貴側에서 두가지 修正案을 냈어요. 團長問題에 대해서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내고 적은 側에서 名譽團長을 낸다. 그런데 名譽團長에 대한 機能을 분명히 말씀 안했단 말씀이죠. 役割 또는 權限 단지 그저 選手團長과 合意해서 한다 그러니까 實際的인 副團長의 役割을 하는 것 아닙니까?

北(김세진) : 協議權만 가진다는 얘기에요.

南(張忠植) : 알겠습니다.

北(김형진) : 말씀하십시요. 다 하셨습니까?

南(張忠植) : 그래서 일단 우리가 案을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體育

指導者들하고 우리 委員長님들 하고 相議해서 다음번에 여기에 대한 貴側의 案이 妥當하느냐. 내 지금 個人의 立場에서는 자꾸 고집스럽다,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얘기지마는 어느 쪽에서 나오든 團長이 한사람이 되어 한다는 것은 저는 選手團長의 經驗을 네차례나 가져왔던 사람이고 그러한 經驗에서라도 나는 이것이 절대 고집이 아니라 團長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면 가장 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合理的인 提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貴側에서 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그만 여기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제가 몇가지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團長을 내는 問題에 대해서 이제도 張先生님 말씀을 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論爭했고 또 우리가 두차례에 걸쳐서 輪番制까지 하면 세차례, 基本方案까지 하면 네차례, 이렇게 團長問題를 거듭 세차례에 걸쳐서 修正案을 提起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修正案으로 놓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意見を 좁히고 妥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研究해서 사실상 貴側도 負擔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런데로부터 우리가 내놓은 修正案입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우리 修正案을 名譽團長 問題와 孫基禎先生을 團長으로 내는 問題에 대해서 反對하지 않고 研究하겠다고 대해서는 일정하게 共感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뜻을 表示하면서 사실상 團長問題를 아까 우리 歡談에서 얘기를 했지만 今年中으로 마무리 지어서 唯一팀 誕生의 基礎를 마련하도록 하자고 意向을 表示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가

지고 가서 研究하시고 다음 會談에 나오면 그것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렇게 밀립니다.

그런 條件에서 貴側에서도 이미 討議했고 唯一팀 團長問題는 唯一팀 構成問題에서 중요한 問題이다. 이렇게 역시 맞습니다. 중요한 問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重要한 問題를 여러차례 걸쳐 이제 提案을 냈고 貴側은 이제 張先生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貴側의 案;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맡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案이라고 거듭 強調했습니다.

물론 討議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상 이 問題에서 우리는 이렇게 論爭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合意를 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명백히 합니다.

아홉달 동안에 걸쳐서 唯一팀 構成을 위한 10 個項을 討議해서 지금 이해 未인 지금에 와서는 이 時刻에는 단 한問題 團長問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論爭해서 이제 妥結짓지 못하면 사실상 50년대나 60年代, 70年代에 걸쳐 이룩하지 못한 北南唯一팀이 團長問題로 해서 또 80年代末인 오늘에 와서까지 이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唯一팀 構成을 責任진 우리가 어떻게 民族앞에 자기 任務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온겨레와 體育人들은 어떻게 하면 唯一팀 構成을 하루빨리 成事시키겠는가 하는 이런 念願으로부터 이 會談場에 눈길을 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겨레가 그토록 渴望하는 北南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이 會談場에서 우리가 서로 자기 主張만 固執하여서 唯一팀 構成에 그들을 던진다면 온



민족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北과 南이 唯一팀을 구성해서 民族의 슬기를 떨  
침으로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祖國統一의 디딤돌을 마련해 가는 이  
聖스러운 偉業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立場으로부터 唯一팀 團長問題에서  
貴側의 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하면 選手數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맡고 적은 側에서 副團長  
을 맡는다고 한 貴側의 案에 同意를 表示합니다.

南(李學來) : 또 바뀐 겁니까? 아까 提案한 것하고?

南(任台淳) : 그러니까 오늘 몇가지 案을 얘기를 한 겁니까? 混亂이 와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北(장 응) : 同意한다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北(김형진) : 가만히 계십시오. 唯一팀 團長問題에서 貴側의 案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사실상 北南 唯一팀 誕生을 貴重히 여기는 이런 우  
리의 對等한 立場으로부터 出發한 誠意의 表示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北南唯一팀 構成을 위한 雙方이 내놓은  
10 個項 討議는 合意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南(曹英承) : 首席代表님! 제가 首席代表님 말씀하시기 전에 參考되게 하  
기 위해서 제가 느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貴側에서 두번의 案을 냈습니다. 첫번의 修正案을 낼 때도 우리가 團  
長體制에 關해서는 直接 그것과 利害關係를 密接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  
까 앞으로 選手들이라든지 그다음 指導者들 또 여러關係 體育人들의 意  
見을 들어야 할 事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眞摯하게 檢討해서 案  
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또다시 修正案을 낸데 대해서도 많은 缺陷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缺陷을 따지기 이전에 또 그것을 하나의 修正案으로 보고 또 우리는 眞摯하게 다음에 討論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자리에서 세번째 다시 修正案을 낸다고 하면서 終局的으로 우리案을 받아들이는 이런 그 現狀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하나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하는 것은 從前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낸 案은 어떤 利害關係를 떠나 가지고 純粹스포츠原則과 慣例에 따라 어느 것이 가장 옳으나 하는 것을 文章化해서 協議를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終局的으로 이렇게 우리側 案에 同意해 올 것 같으면 그 純粹性이 認定이 되어서 했을텐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混亂스럽게 첫째 修正案, 둘째 修正案을 내면서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代表들이 混亂스럽다 하는 것은 分明히 우리가 指摘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會談인 이상 貴側에서 修正案을 낸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 것은 우리 修正案을 그대로 固執하겠다 하는 그런 意味가 아닙니다.

일단 貴側 修正案이 상당히 새로운 修正案이니까 우리가 檢討해 보겠다 하는 것은 우리案과 貴側案을 綜合해서 우리가 檢討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終局的으로 修正案 낸데 대해서 우리가 意見を 낸데도 不拘하고 우리 意見を 無視해 버리고, 우리는 檢討하겠다는

自體가 상당히 큰 意味를 담고있는 우리의 意見입니다.

그런데도 修正案내고 또 修正案내고 終局的으로 우리案을 받아들일것다 하는 式으로 한다며는 우리는 그러면 貴側에서 낸 修正案에 대해서 貴側案만 檢討해서 나중에 안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決定하는게 아니라, 우리側 案과 貴側案을 전부 綜合해서 정말 이 南北 통털어서 「스포츠맨」한테 가장 適合한 案이 무어나 하는 것을 새롭게 檢討해 보겠다 하는 自體가 하나의 案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받아들였다면 그걸 끝내야지, 뭐 修正案을 또 내고 우리側 案을 받아 들이겠다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좀 遺憾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셋째로는 이 修正案을 마지막으로 내면서 이것만 合意하며는 10 個項을 다 合意하기 때문에 그런 憧憬에서 이 修正案을 우리가 내면서 우리案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合意해야 할 事項들이 事實은 앞으로 太山같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가 그 第9項 「共同推進機構」에 別途規定으로 定하는 問題, 이 그냥 別途規定 정한다 말만 協議할게 아니라 別途規定이 뭐냐 하는 것을 내놓고 討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認定을 하고 또 내놓았습니다.

내가 당장 여기서 檢討해 보니까, 共同委員會 規定案이 있고 細則이 있고, 共同事務局 細則이 있습니다. 이 案만 보더라도 28 個 細項이 되는 겁니다. 이런 項이 다 討議되기 전에는 이 10 個項이 다 討議되는 것이 아닌데도 不拘하고 團長制 이것만 하나 되며는 10 個項 다되는 것 마냥 이렇게 表現하면서 團長制를 우리側 案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意味가 다르다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리에서는 團長制를 決定하기 보다는 貴側이 두번이나 세번이나 낸 그 案에 대해서 또 그 뜻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도 再考해 보고 다음에 討議하기를 내가 首席께 建議드립니다.

北(김세진) :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니까 曹先生은 貴側이 내놓은 團長構成問題를 그 方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데 대해서 反對하는 겁니까?

南(曹英承) : 反對도 아니고 贊成도 아닙니다.

北(김세진) : 그러면 뭐…….

南(曹英承)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北(김세진) : 아니 말씀이랑게 우리 修正案을 내놓으니까는 貴側에서는 어떤가 그 疑問을 가지고 研究를 해 보시겠다. 그래서 이것 또 어디까지나 조금 不足點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그대로 接受를 했는데 그러면 反對인가 아닌가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해야지 反對도 아니고 贊成도 아니다. 自己가 내놓은 그 方案을 接受를 했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대신에 反對도 아니고 贊成도 아니고 研究해 보겠다.

南(張忠植) : 고맙다, 고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南(任台淳) : 貴側이 修正案을 내놓으신데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南(張忠植) : 예. 한마디 하세요.

南(任台淳) : 지금 보려는 事實 그 呼稱問題, 中國語 表記를 合意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난 本會談에서 몇차례, 그리고 이제 세번째 實務接觸

을 거쳐서 몇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雙方間에 原則적으로 合意가 돼있는 問題를 가지고 그 글자를 하나 받아들이든가 貴側의 案을 내놓으라 하는데 대해서 貴側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拒否反應만 보여오다가 오늘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修正案을 내다가 또 研究해 보겠다 하니까 그러면 貴側案에 同意하겠다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團長制問題에 대한 討議過程을 놓고 보며는 나는 貴側의 態度에 상당히 體育外的인 이러한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려는 이걸 뭐 會談場에서 이 案을, 修正案을 내놓은거 가지고 우리가 닦할 必要가 없죠. 한데 事實 이 案의 內容을 볼 것 같으면 南側에는 어떤 한사람 以外에도 選手團團長을 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이걸 적어도 體育會談代表가 마주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거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며는 貴側은 지금 團長制 問題와 關聯해 가지고 네번째 修正案을 하루에 지금 내놓은 겁니다.

처음에 從來 主張을 했다가 다음에 輪番制 아 그러니까 처음에 從來 主張이 있고 다섯가지로구만. 主張이 있고 이제 輪番制로 하자. 또 修正案을 내겠다 해가지고 내는걸 보면 名譽團長制 制度를 두자. 또 修正案을 내겠노라 해가지고 南側에는 어떤 한사람 밖에는 團長을 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러한 案이 또 나왔는가 하려는 그다음에 또 이걸 뭐 우리側

案에 同意한다고 한마디 하면 될걸 가지고도 이걸 또 계속 무슨 修正案을 提示하겠노라. 修正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修正案이 되었느냐 하며는 자기側의 수없는 修正을, 다시 修正하려니까 이게 修正案이 된거예요.

결국 우리側 案을 받아들이겠노라 한마디 하기 위한 論理가 그렇게 장황했는데, 아마 이러한 것을 봐가지고는 과연 團長制를 合意하겠다고 하는 眞意를 가지고서 提案을 하는 것인지 이 다섯가지중에 어느 것이 정말로 眞意가 들어있는 提案인 것인지 우리로서는 지금 混亂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曹代表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公式的인 우리의 立場은 다음번에 表明을 할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團長制를 單一團長制로 하자는 우리의 既存立場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다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北(장 응)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修正을 자꾸 내놓기 때문에 混亂이 됐다. 그래 複雜하다 그러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한번 會談 全過程을 考察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實例를 들면 우리는 選手選拔問題에서 당초 具體的인 案을 내 놓았습니다. 貴側에서는 이 具體化된 選手選拔項이 複雜하기 때문에 共同委員會에다 넘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뺐습니다. 다음에 貴側에서 또 다시 우리가 당초에 내 놓았던 것을 變形시켜서 내 놓았습니다. 우리가 接受를 했습니다.

南(曹英承) : 아니 장웅代表!

北(김형진) : 가만 있어 봐요.

南(曹英承) :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北(장웅) : 얘기를 듣고 하세요.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接受를 하니까 또 다시 修正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會談에서는 互相 合意點을 찾자는게 會談이니까 修正案들을 내 놓을 수 있겠다. 修正案을 자꾸 내 놓는 것은 互相妥協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複雜해서 못하겠다. 修正案 오늘 研究 하겠다고 했는데 貴側에서 왜 우리 것을 接受했냐 이런 理論인데 이거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요.

南(張忠植) : 내 말씀, 예. 알겠어요, 내 말씀 들으세요.

北(장웅) : 우리가 지금 내 놓은 것은 修正案 둘다 내 놓았는데, 오늘 내 놓았는데 貴側에서 接受하겠다 研究, 接受하지 못하고 研究를 하겠다, 그러니까 修正案을 내 놓은 것입니다.

1989年度가 다 갑니다. 來年度는 1990年度에 들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貴側의 案을 同意하겠다고 했는데 同意하겠다는 底意가 무어나 論理가 이렇게 展開되는데 이것이야 明白한 것인데 여기에 무슨 다른 意義가 있어요?

南(張忠植) : 알았어요, 알았어요. 장대표님 말씀 알았습니다.

北(김형진) : 아 그러니까, 張先生님.

南(張忠植) :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北(김형진) : 아 자꾸 캐지말고 그러니까 同意를 주었는데, 同意를 준거 안

받겠다. 그리고 또 任先生 뭐인가, 우리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 적은 側에서 副團長은 우리 변함 없는 立場이다.

그러면 窮極에 가서 우리는 貴側의 案을 받아들였다 하고 했으면 오히려 貴側이 잘 말씀하면 多幸스럽다든가, 더 나가서 感謝하다든가 뭐 이런게 있어야지 이거 修正案을 提起했고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그 底意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貴側에서 選手가 많은 側에서.

南(張忠植) : 이거 보세요. 우리가 提案한 問題가…….

北(김형진) : 가만히 계세요.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맡고.

南(張忠植) : 合理的인 이러한 提案을…….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張先生! 내말,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인건데…….

南(張忠植) : 처음부터 받아 주었으면 그러면 表現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

北(김형진) : 받아들인건데 됐지. 거기 또 무슨 曹先生, 또 뭐 아까 저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더 생각해 보겠다. 이건 또 뭐니까? 貴側이 내 놓은 案 確固不動하다. 그래 우리가 받아들인다. 아 이렇게 되었으면 合意된거지 거기 또 뭐 있어요?

南(張忠植) : 마치 말이죠. 貴側에서 우리한테 不合理한 우리가 提案을 한 것을 貴側에서 讓步를 해서…….

北(김형진) : 方法이야 이렇건 저렇건 關係없이 받아들이면 된거지.

南(張忠植) : 表現에 있어서 뭐냐하면 貴側에서 말이죠.

南(任台淳) : 그러니까 修正한 것을 또 修正하셨습니까 그러면.



北(김형진) : 最終的으로 貴側에서 말씀 못들었습니까? 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張忠植) : 그러니까 貴側에서 修正案을 거둬 들이고 우리案을 받아들였다.

北(김형진) : 예, 예. 그거예요.

南(張忠植) :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貴側에서 그것을 複雜하게 만들었죠.

北(김형진) : 複雜하긴 貴側의 案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選手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맡는다는 貴側의 案에 同意를 表示합니다. 됐습니까?

南(張忠植) : 예, 내 말씀 들으세요. 貴側에서 우리側의 案이 合理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하고 거기에 修正案을 내서 윤번제로 하자,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니까 名譽團長制로 하자.

北(김형진) : 아 이거 張生先, 또 억지부리는구만.

南(張忠植) : 억지가 아니죠.

北(김형진) : 接受하는게 부족점도 있지만은 唯一팀을 우리가 받아들인거고, 그런것도 있고 正當한 것도 받아들인거 있고 그렇지. 貴側은 또 뭐인가. 이제 張先生님 그 트집은 뭐인가.

南(張忠植) : 트집이 아니죠.

北(김형진) : 우리案이 正當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을 비쳐야 돼요? 그래야 接受해요? 아니 글썄 正當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南(張忠植) : 아니 그러니까 合理的이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北(김형진) : 아니 張生先님 雙方의 팀인데.

南(李學來) : 김단장! 내가 조금만 얘기하고.

北(김세진) : 團長問題와 關聯해서 이걸 어떻게든가 우리는 이 問題를 打開하려고 낸거지. 首席代表先生 얘기대로 한다면 이 問題 討論하기 위해서 修正案도 못 낸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複雜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北(장 웅) : 받아들였으면 됐지. 무슨 또 우리거 안받으니까 그렇잖아. 우리거 하나 좀 받지.

南(李學來) : 김선생!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요 이런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張生先! 그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 다 됐습니다. 이젠 다 理解됐습니다.

南(張忠植) : 아니, 우리案 다 받으신거죠?

北(김형진) : 예, 아니 그럼 됐죠.

南(張忠植) : 混亂을 빚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最終적으로 받아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보고 感謝하게 생각하라. 뭐 그러한 얘기를.

北(김형진) : 아니 또 張先生님, 받았으면 됐지 또 前後 가지고 그럴 것 있나요?

北(김세진) : 그걸 또 받았으면 됐지.

北(김형진) : 거기에 무슨 混亂이고 沒理解고 뭐가 있습니까?

南(張忠植) : 가만히 계세요. 아까 우리가 實務接觸에서 우리側에서 共同機 構에 대한, 共同委員會에 대한 그때 構成·運營方案에 대한 것을 準備했

냐고 말씀하셨다가 오늘 가지고 나오셨지요? 우리側 案을 한번 들어 보  
세요.

北(김형진):張先生 그전에 한가지 討議方法 좀 물어 봅시다. 여기서 하  
자는 겁니까?

南(張忠植):내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案을 提示하겠습  
니다.

北(김형진):아 그거 넘겨 주십시오. 12時 이제 半됐습니다. 넘겨주시면  
돼죠. 뭐 그거 읽어보면 돼죠.

南(任台淳):아니 여기서 한번 朗讀해야 돼죠.

北(김형진):예, 하십시오. 朗讀을 하십시오.

南(張忠植):그래서 우리側 案을 貴側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貴側  
의 案과 우리側의 案이 어느 程度의 差異가 있는가.

가장 重要한 것은 이제 우리가 共同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서 果然 이  
것이 共同委員會가 잘 되어야 되는 거니까.

北(김형진):예, 예. 읽으십시오.

南(張忠植):예. 들어보셔야죠.

#### 南北單一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 方案

雙方은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單一팀構成・參加를 推進하기 위해 南  
北單一팀 共同委員會 및 共同事務局의 機能・構成・運營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定한다.

##### 1. 共同委員會

가. 機 能

(1) 共同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가)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

- ① 種目別 合同訓練 參加人員數(選手, 監督 및 코치)
- ② 種目別 合同訓練 및 選手選拔戰 日程 및 場所
- ③ 種目別 選手選拔戰의 具體的 方法,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및 審判選定
- ④ 合同訓練 및 選拔戰時의 輸送, 宿所, 通信 등 諸般便宜事項
- ⑤ 合同訓練 및 選拔戰時의 醫療 및 技術要員에 관한 事項
- ⑥ 合同訓練 및 選拔戰時의 參觀團 交換 및 記者交換·取材에 관한 事項
- ⑦ 合同訓練 및 選拔戰時의 選手團 및 關係者의 活動保障에 관한 事項

(나)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

- ① 選手團長, 副團長, 種目別 選手 및 任員(監督, 코치) 選定에 관한 事項
- ② 行政要員(總務, 涉外, 公報 등), 醫療要員(醫師, 看護員, 안마사 등), 技術要員(보우트맨, 펜싱 정비공, 총기 정비공, 자전거 기능공, 수송요원, 요리사, 피아니스트 등) 選定에 관한 事項
- ③ 參加申請書 提出에 관한 事項
- ④ 參加申請書 提出後 選手團의 問題發生時 解決方案講究에 관한 事項

- ⑤ 選手 強化訓練에 관한 事項
- ⑥ 選手團 結團式 및 解團式의 時期・場所 및 具體的 方法에 관한 事項
- ⑦ 選手團 出發 및 歸還과 관련된 輸送 및 經路 등에 관한 事項

(다) 「아타세」選定에 관한 事項

(라) 大會 開催期間中 競技進行 및 運營과 關聯하여 열리는 各種 會議參加 및 大會同伴審判 選定에 관한 事項

(마) 選手團 構成・參加와 關聯된 選手 및 關係人員의 南北往來와 關聯한 事項

(바) 選手團 團服 및 參加에 따른 裝備에 관한 事項

(사) 其他 單一팀 構成 및 參加에 따른 諸般 事項

(2)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選手團 構成이 完了되고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 參加申請書を 提出한 以後에는 選手團 參加와 關聯한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의 各種 連絡 등 對外的 機能을 遂行한다.

(3) 共同委員會는 對外的 機能과 關聯하여 雙方 올림픽委員會가 北京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國際體育機構 및 다른 國家올림픽委員會와 갖는 接觸 또는 連絡 등의 고유한 權限에 關與할 수 없다.

나. 構成

(1) 共同委員會는 雙方에서 各各 共同委員長 1名, 幹事委員 1名, 委員 8名, 都合 各 10名으로 構成한다.

- (2) 共同委員長은 雙方 올림픽委員會委員長으로 하며, 幹事委員을 包含한 委員은 雙方 올림픽委員會 委員 및 競技團體 代表로 한다.
- (3) 共同委員會 傘下에 記錄種目, 採點種目, 鬪技種目, 球技種目別로 選手 選拔 및 訓練問題를 擔當하는 專門委員會를 둔다.
- (가) 專門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必要한 人員으로 構成한다.
- (나) 專門委員會 委員長은 雙方 共同委員長이 共同委員會 委員 中에서 各各 1 名씩 指名하고 委員은 雙方이 該當分野 專門家를 各其 選定한다.
- (4) 共同委員會의 運營에 필요한 諸般 行政 및 連絡業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해 서울·平壤에 共同事務局을 設置한다.

#### 다. 運 營

- (1) 共同委員會는 南北單一팀 構成·參加에 대한 合意書가 採擇된 後 15日 以內에 構成, 業務를 始作하며 大會終了後 雙方間에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된 諸般事項이 終了될 때까지 存續한다.
- (2) 共同委員會 會議는 서울·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하며, 첫 會議는 서울에서, 次期 會議는 첫 會議 開催後 15日 以內에 平壤에서 開催한다.
- (3) 共同委員會의 定期會議는 每月 2回 以上 가지며 어느 一方이 要請하면 臨時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 (4) 會議는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하며, 合意方式은 南北 雙方合意制로 한다.
- (5) 雙方 合意內容은 各其 2 통씩 文書로 作成하며, 雙方 共同委員長이

署名한 文書를 1 통씩 交換한다.

(6) 會議結果의 報道는 各其 便利한대로 하며 雙方 合意가 있을 境遇  
合意內容을 共同으로 作成하여 發表한다.

라. 雙方은 共同委員會 會議 參加에 따른 30 名 內外의 隨行員과 50 名  
內外의 報道陣을 帶同하며 會議期間中 自由로운 取材活動을 保障한다.

마.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問題의 協議·解決과 그 실행의 實效  
性を 保障하기 위해 일체의 體育外的 問題를 거론하지 않으며 雙方  
當局이 이를 保障하는 覺書를 交換한다.

바.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와 관련한 合同訓練, 選拔戰, 選手團構  
成, 強化訓練 過程에서 南北間의 人的往來와 連絡을 위해 南北通行·  
通信에 관한 合意書를 採擇하고 雙方當局이 이를 保證하는 覺書를  
交換한다.

## 2. 共同事務局

### 가. 機能

- (1) 共同委員會 決定事項의 執行
- (2) 共同委員會의 會議召集·運營·記錄 등과 關聯한 事項
- (3) 單一팀 構成·參加와 關聯된 人員의 南北往來에 따른 諸般 支援 및  
連絡事項
- (4) 其他 共同委員會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한 諸般 行政事項

### 나. 構成

- (1) 共同事務局은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며 事務室은 雙方 올림픽委員會  
建物內에 둔다.

(2) 共同事務局은 雙方 各其 局長 1名, 副局長 1名 및 關係人員 20名으로 構成하며, 雙方은 相對側 共同事務局에 副局長을 團長으로 하는 連絡人員 20名을 派遣·常駐시킨다.

(3) 共同事務局長은 共同委員會 委員中 雙方 幹事委員이 兼任토록 한다.  
다. 運 營

(1) 共同事務局은 共同委員會의 發足과 同時에 業務를 始作하며 共同委員會가 解體될 때까지 存續한다.

(2) 共同委員會의 運營 및 選手選拔·訓練·其他 行政事項을 圓滑히 處理하기 위하여 共同事務局間에 直通電話 10回線을 設置·運用한다.  
라. 雙方은 共同事務局의 勤務人員에 대하여 交通·宿食·通信·醫療·換錢 등 業務遂行에 必要한 諸般 便宜를 最大限 提供하며 그 人員의 地位는 1961年 4月 18日字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에 依據 모든 權利를 保障한다.

이렇게 오늘 南北單一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에 대한 方案을 提示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合意를 하는데 굉장한 問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이것이 果然 되는데도 여러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라고 생각돼요.

北(김형진) : 勿論 努力해야죠.

南(張忠植) : 이것이 合意가 된 다음에 果然 어떻게 履行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아까 내가 말씀한대로 保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北(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까?

南(張忠植) :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이 많이 貴側에서도 우리



案을 研究하시고, 檢討·研究하시고 우리도 貴側에서 내 놓으신 것을 研究·檢討해서 서로 엇갈리는 것이 무언가 이런것을 우리가 檢討를 해서 다음에, 오늘 지금 2時間 半程度 우리가 時間을 使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會議때 우리가 만나서 오늘 未盡했던 일들을 貴側에서 提案한 問題와 또한 未解決된 問題들 이런것을 다음에 만나서 우리가 한번 合意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會議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한가지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貴側한테 처음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내가 會議場에 들어오면서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體育會談을 한다고 하면서 貴側에서 말이죠 이 달력을 記者들한테 막 나누어주고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이 體育會談을 하자고 提案한 側에서 말이죠, 오늘 6次會談때 그걸 내 놓고.

또 내가 아까 김세진代表께서 날보고 말씀이죠 合意事項에 대한 무슨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는 그런 覺書條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은 대체 무슨 뜻이나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北(김형진) : 이제 곧 밝히겠습니다.

南(張忠植) : 거기에 대해서 무어나 하려는 왜 우리가 體育外的인 問題를 여기서 자꾸만 擧論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까 貴側에서도 單一團長制問題를 내 놓고 修正案을 내 놓은 그 動機가 받아들여지면서도 말이죠, 거기에 그 많은 節次가 말이죠.

北(김형진) : 張先生님! 아니 또 시작합니까?

南(張忠植) : 아니 내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代表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피차간에 우리가 신경을 會談外的인 問題인데.

北(김형진) : 웬만큼 또 體育實務者들의 정신상태라는걸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張先生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南(張忠植) : 우리가 이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選手들이 앞으로 말이죠 南北間에 往來를 하고 코치, 監督, 體育人團들이 말이죠 가고, 또 公開에 대한 概念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實務接觸할때 나는 이 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다 봤단 말씀이죠.

北(김형진) : 張先生님! 내가 하나 質問 좀 합시다.

南(張忠植) : 제 말씀듣고 말씀하시라요. 제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죠.

北(김형진) : 말씀하세요 예.

南(張忠植) : 그래서 뭐냐면 그 公開에 대한 概念도 果然 이것이 選手하고 監督, 코치만 가는건지 貴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側에서 公開概念이라고 하는것은 우선 코치, 監督, 選手들 그 다음에 體育人, 參觀團들만 가는것 그 다음에 自由스러운 取材活動을 하는 이러한 것도 貴側에선 그 概念속에 받아들여서 公開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이것을 따로 確認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貴側에선 뭐냐하면 말이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記者들한테 달력을 이렇게 나누고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냥 會談外的인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代表 立場에서 말이죠. 이분들이 이게 자꾸만 會談과는 거리가 먼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故鄉訪問團도 잘 合意가 되어가지고서는 말이죠. 나는 今年末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

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허울 좋게 뭐 合意다 合意다 다 해놓고, 讓步다 讓步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實際말이죠 選手團을 交換할 수 없는 그러한 狀態에 간다고 할것 같으면 이걸 體育人한테만 이것은 충격을 주는게 아니라 이걸 7千萬 온 거래한테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 만든다 이거예요.

나는 實際的인 體育人으로 볼때 거기에 대한 責任을 지기 때문에 그 貴側의 여러가지 修正을 거듭 되풀이하는 過程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代表들이 神經을 쓰신 거예요. 그걸 理解를 하셔야 될거예요.

北(김형진): 예, 張先生님 내가 하나 提起하겠습니다.

이제 張先生님, 貴側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 設置問題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도 아까 基本發言에서 發表를 했고, 事實上 놓고 보면 內容上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北(장웅): 團長님,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北(김형진): 예, 물어보세요.

北(장웅): 요거 저 張首席代表先生, 요게 (3)인데. 이거 3페이지 3에 (3)에 『共同委員會는 對外的 機能과 關聯하여 雙方올림픽委員會가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國際體育機構 및 다른 올림픽委員會와 갖는...』 이거요 問題에서.

南(朴秀蒼): 예.

北(장웅): 共同委員會가 固有한, 하여튼 雙方올림픽委員들이 遂行하고 있는 機能에는 干涉하지 못한다는 건데.

南(任台淳) : 當然한거 아니겠어요?

北(장 응) : 예. 當然한 건데 北京아시아競技 그러니까 베이징 아시아競技大會에 參加하는 問題와 關聯해선 除外조?

南(朴秀蒼) : 參加를 하는 것은…….

北(장 응) : 고건 除外하고.

南(朴秀蒼) : 그거는…….

北(장 응) : 하여튼 고건은 共同委員會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北(김형진) : 예, 그래서.

南(朴秀蒼) : 그런데 이제 그 效力을 發生하는 것이 언제나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지요.

北(장 응) : 차이 없어요.

北(김형진) : 예, 그래서 內容을 보면 貴側의 內容을 對比해 보면 差異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正式提議합니다.

貴側이 내 놓은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의 細則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同意합니다.

南(張忠植) : 우리것 다 檢討하셨어요?

北(김형진) : 예, 그대로 內容 다 뜯어 봤습니다.

北(김세진) : 內容 다 해야 될 일들이예요.

北(김형진) : 예. 內容 이제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貴側이 내놓은 共同委員會의 構成과 共同事務局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貴側의 案을 그대로 同意하는 바입니다.

南(張忠植) : 예, 좋습니다.

다음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제 共同委員會에서 合意한 그 內容을 앞으

로 우리가 어떻게 誠實하게 履行하느냐 거기에 대한 雙方間에 어떠한 保障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次會談때 거기에 대한 貴側이 案을 提示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北(김형진) : 아 그러니깐 그 保障이란건 뭐 어떤 內容입니까? 난 지금 그 內容을 잘 몰라서 어떤 內容이 包括되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南(張忠植) : 우리가 共同委員會 하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이 반드시 提起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本會談보다 더 複雜한 그러한 問題가 나올 겁니다.

選手選拔問題라든가 監督, 코치에 대한 問題, 方法에 대한 問題, 뭐 여기에 提示했던 이 問題를 貴側에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實際로가서 選手選拔問題라든가 또는 選拔戰에 있어서의 審判選定問題라든가 또는 時間問題라든가, 場所問題라든가 이러한 具體的인 問題가 수 많이 얘기된다 이 말입니다.

北(김형진) : 예. 알만합니다. 뜻을 알만합니다.

南(張忠植) : 그러며는 本會談에서 여러가지 다 合意를 해 놓고 共同委員會 와서 그러한 다른 問題를 가지고서 뭐냐하면 이 팀構成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合意한 것에 대한 誠實히 履行하겠다고 하는 그 保障이 必要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南北單一팀의 選手往來라든가 合同訓練을 위한 또는 選拔戰을 위한 選手 또는 그 體育人團들에 대한 往來가 그것이 간단한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어렵지만 해야지요. 아, 이 큰일 하는건데 뭐…….

南(張忠植) : 民族團合과 和解의 그러한 精神으로써 이러한 單一팀을 만들자 이렇게하고 다른 會談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會談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필 體育會談하시면서 남의 問題까지 神經쓰십니까?

南(張忠植) : 내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말씀 좀 듣고 그러면 내가 提議하는 그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故鄉訪問團도 雙方間에 合意해 놓고 나중에 여러가지 問題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불과 2~3日동안 往來하는 問題인데 더군다나 이 選手團을 構成하기 위한 往來라고 하는 것은 빈번한 往來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故鄉訪問團은 비록 今年末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來年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北京아시아競技大會에 選手團을 構成하는 問題는 時間이 制限되어 있다 이거예요. 時間을 갖다가 마구 길게 잠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體育外的인 그러한 問題를 가지고서 이 會談을 合意해 놓고, 세상에 合意해 냈다 해놓고 實際적으로 單一팀 만들어서 派遣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나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提案을 하는 겁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이제 말씀 뜻을 理解할만 합니다. 상당히 노파심이 많은 것 같은데…….

南(張忠植) : 노파심이 아니지요. 過去의 經驗을 생각해 볼때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北(김형진): 張先生님, 이 問題를 빈말로가 아니라 實踐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그 뜻인데 역시 우리 그걸 擔保합니다.

그래서 이제 張先生님 말씀한 그 뜻이 여기 다 包含되어 있습니다. 擔保하는거, 어떻게 保障, 保證을 받아야 한다 하는거 하며 그다음에 具體的인 事項이 들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擔保해서 貴側에 同意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이거 雙方會談이고 나는 뭐 내 個別資格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으로서 團長으로 任命되어 나온것인 만큼 내 個別的인 資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貴側 張先生님도 그러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빈말인게 아니라 雙方會談인것 만큼 두 올림픽간에 會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徹底히 合意한건 履行해야 됩니다.

역시 나도 勸告하건데 貴側에서 우리가 細則을 同意하고 10個 條項을 다 合意했습니다. 10個條項을 다 合意한 條件에서 이것을 履行하는가 못하는가 만약 여기에 障礙를 造成시켜서 履行 못하게 한다면 그 障礙를 造成한 側이 民族앞에 責任을 져야 합니다. 자명한 事實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明白히 하건데 이 民族앞에 정말 唯一됨을 세상에 처음으로 탄생시키는 이런 慶事를 앞으로 人民들의 기쁨으로 그대로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우리 兩側이 實踐을 통해서 徹底히 具現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複雜한 問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合意한 10개項의 原則과 또 具體化된 細則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尺)로 해서 그 原則에 따라서 問題를 풀면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事業이란 創造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려운 것이 부닥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처럼 合意하고 힘을 합친다면 어려운 問題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第6次 本會談에서 事實上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이 시각에 아홉달 동안에 걸쳐 이제 우리가 해온 이런 唯一팀構成 方案 討議가 事實上 合意를 이룩했습니다.

苦盡甘來라고 事實 이러저러한 迂餘曲折도 있었지만 이거는 대단히 慶事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唯一팀 構成을 위한 10個方案 討議가 合意로 끝난것 만큼 이 文案을 整理하는 事業은 뭐 어려운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貴側에서도 이미 表示했고 또 우리가 서로가 다 이때까지 討論하는 過程에 다 이제 뜻을 理解한것 만큼 文案整理事業을 위해서 實務代表接觸을 해서 合意書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7次會談때 合意書를 發表하도록 하자는 것을 正式 提起합니다.

南(張忠植): 지금 아직 우리가 이 名稱問題 이것도 지금 完全合意는 안 되었습니다. 중국말 表記…….

北(김형진): 예? 왜 안되었습니까? 張先生님 또 그…….

南(張忠植): 아니지요, 우린 지금 提案을 한거 아니에요 그건.

北(김형진): 「可里亞」로, 아니 「可禮亞」로…….

南(張忠植): 우리가 그건 내 놓은건데 그러니까, 中國側의 反應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北(김형진) : 아 그러니까 승의를 못했다는 뜻입니까?

南(張忠植) : 아니지요. 우리끼리는 승의했지만…….

北(김형진) : 글썄 그러기 때문에 10個項 討議에서는 貴側이 表明한대로 中國語로는 「可禮亞」로 第11次 아세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에 쓰도록 通報한다. 이거 승의된 거지요 뭐…….

南(張忠植) :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이제 다른 말씀은 안하시겠지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 내가 中國側 代表입니까? 이거 잘못 理解하고 있구만, 내가 어디 組織委員會 사람이예요?

南(張忠植) : 그 共同團長制 우리案 받아들였어요.

北(김형진) : 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거 받아들였지요. 採點制 處理하는거 받았지요.

그 다음에 共同事務局 設置場所問題 貴側案대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選手數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맡고 적은 側이 副團長을 맡는다. 貴側案에 同意했습니다.

그 다음에 貴側이 내 놓은 共同委員會 및 事務局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細則 그대로 接受했습니다.

南(張忠植) : 이제 우리가 다음 會談에서 내가 貴側에서 保障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北(김형진) : 아니 여기 쓴것 외에 또 있습니까?

南(張忠植) :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具體案을 제가 좀 다음 會議때 提示를 하겠어요.

北(김형진) : 아, 그러니까 項 討議야 끝났습죠. 項이야, 거기 어디 10個

項이 우리 하는데 保證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條項이 있어요? 이걸 履行하자면 앞으로 이런 것을 討議할 수 있겠다 이런거지, 項討議야 明白히 끝내서 말하자면 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前提가 이젠 確固하게 마련됐다. 이거야 明白한건데 자꾸 그렇게 돌리십니까?

南(曹英承): 제가 이 段階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는 常識으로는 會議의 進行은 雙方 首席代表 또 貴側은 團長이지만, 雙方首席께서 처음 提議한 基本發言文 여기에 따라서 會談이 進行되고 또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首席께서 發表하신 基本發言文을 貴側에서 다 메모를 하고 있는가 또는 記憶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提議한 事項이 한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重要的 事項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그 提議內容을 討議도 안해보고 10個項을 다 合意했다. 이런식으로 一方的으로 宣言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常識적으로 容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記憶이 안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發言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履行保障, 履行保障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한 趣旨는 貴側 團長께서도 아주 強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側에서 먼저 提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履行保障에 관한 事項으로서 뭐가 있느냐 分明히 우리가 첫 發言文에 首席께서 提議를 했습니다.

예컨대 하나만 들머는 合意事項의 用語定義 이런 말씀을 貴側에서 理解를 하고 있는지 그 內容의 重要性을 또 감지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는

데 이점에 있어서도 討議를 해 보아야 합니다.

具體적으로 조금 說明을 드리며는 10 個項을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많은 時間이 걸려서 討議를 했습니다마는 그 10 個項의 表現이 字句의 內容이 상당히 包括的이고 해서 앞으로 共同委員會가 다루어야 할 일을 勘案해 보면 예컨대 共同委員會가 앞으로 될 다루어야 될거나?

競技가 細部種目を 따지면 308 個가 됩니다. 308 個나 되는 細部種目中에서 그 競技 하나하나마다 合同訓練, 選拔戰, 強化訓練 이 세 「파트」만 하더라도 따져서 308 個의 세개만 곱하더라도 천여개나 됩니다. 천여개의 事項을 協議決定해 나가면서 執行해 나가야 되는 아주 커다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10 個項의 이 조금 모호한 이런 內容의 合意만 가지고 10 個項 合意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고 그 協議內容中에서 이 用語의 定義가 뭐고 範圍가 뭐냐 하는 어떤 基準, 完全히 細密하게 정할 수 없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共同委員會가 앞으로 準則으로 해야할 事項들을 合意해야 된다 하는 內容이 바로 合意事項의 用語定義라는 제 提案으로 提示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직 討議도 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 이것도 우리 分明히 提示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貴側에서 좀 眞摯하게 그럼 우리側 案이 뭐냐 우리도 다음에 내 놓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討議를 하면서 이것이 終結이 났을 때 비로소 10 個項에 대한 合意段階를 어떻게 볼거나 하는것도 雙方 合意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一方的으로 10 個項을 다 合意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복잡다단한 業務를 處理할 共同委員會 출범을 앞두고 매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段階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아까 이미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理解를 돕기 위해서 말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討議한 事項中에서 1 項에서부터 10 項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컨대 4 項나號같은 것은 그냥 共同委員會에서 4 項나號에 따라서 하도록 그냥 팽개쳐 버리면 절대 이 問題가 부딪쳐서 共同委員會 機能이 제대로 發揮하지가 못할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具體的으로 表現해야 되는 問題를 우리가 合意를 해야 됩니다.

形式이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예컨대 4 項나號중에는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段階에서 公開的으로 實施한다』하는 것은 우리側은 分明히 南側은 南側대로 公開한다는 뜻이 아니다.

南側과 北側이 어느쪽이든지 할때 南側參觀團이 北側에서도 보고 또 北側에서 하는 蹴球競技를 中繼放送해서 南側에서 볼수 있고 하는 그런 內容을 말한다든지 貴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事項들을 우리가 協議해야 하든지.

또 예컨대 이런것이 있습니다.

北(김형진) : 曹先生, 그건 共同事務局에서 할 일이에요.

南(曹英承) : 하나만 들어보세요. 이게 果然 共同委員會에서 해야 될건지 안해야 될건지 들어보세요.

可能한限 均衡을 顯著하게 잃지 않도록 構成한다. 이렇게 原則을 정했

습니다.

정했으면 果然 共同委員會에서 顯著하게 均衡을 잃지않는 範圍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것만 가지고 1年을 討議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北(김형진) : 그거 안하자는 거구만, 曹先生!

南(曹英承) : 내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막 말하지 마시고.

南(張忠植) :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北(김형진) : 아, 1年 討論해야 한다면 언제해요? 曹先生, 1年 討論해도 合意를 못본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南(曹英承) : 제 얘기 안들으십니까?

南(李學來) : 그런 뜻이 아니예요.

南(曹英承) : 내가 예를 얘기하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北(김형진) : 말이야 특하고 다르고 탁하고 다르지, 曹先生 다 合意해 놓고 이제와서 合意 안됐다.

이 條項 하자면 1年 넘어 걸린다, 이거야 雙方會談인데 曹先生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北(김세진) : 曹先生, 曹先生 말을 正確하게 해야지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南(曹英承) : 내 얘기 들어 보세요. 내 한마디만 듣고 그 다음 내가 進行합니다.

北(김형진) : 여기 世上사람 다 지켜봐요. 다 合意되었는데 合意된 事項을 가지고.

이것만해도 1年 넘어걸려요. 아, 이거 열개항이야 다 合意되었죠.

열개항이야 솔직히 말해서 雙方이 다 調節해서 열개項目을 만들어 놓고 요것대로 하자, 다 合意봐서 요거 討論끝내자, 討論 다 끝냈다 열개.

그러면 그다음에 共同委員會, 共同事務局의 構成과 運營細則을 討論하자, 討論했다. 우리가 發表하고, 貴側도 들어보니까 다른것 더 차이없다. 合意 되었다.

南(曹英承) : 아니 뭐 團長이, 代表가 얘기하는데 막 끊어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北(김형진) : 아니 合意된거지. 아, 무얼, 무얼 거기에 .....

南(曹英承) : 우리 代表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北(김세진) : 거 代表가 말을 .....

北(김형진) : 거, 말을 잘해요 말을. 表現을 잘하라고요 表現, 말을.

北(김세진) : 曹先生 말을 들어보면 항상 말이 좀 이해가 까다롭게 이렇게 된다고.

南(李學來) : 얘기나 다 들어보고 나중에 .....

北(김세진) :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提起되는데 그건 曹先生도 좀 注意를 해야되요.

北(장 응) : 거 合意가 안되었다.

南(李學來) : 계속해 보세요.

北(장 응) : 그다음에.

南(曹英承) :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

北(김형진) : 1年 걸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南(曹英承) : 김단장님! 相對方이 얘기할 때는 내가 좀 失禮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고 하나만 例를 들테니까 들어보시요.

北(장 웅) : 들어봅시다.

北(김형진) : 예, 하십시오.

南(曹英承) : 顯著하게 均衡을 잃지 않도록 한다하는 規定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넘겼다가는 顯著하게 均衡을 잃지 않는 範圍가 얼마냐? 적어도 範圍만은 定해줘야 할 任務가 우리 本會談에 있다 하는것이 아까 基本發言文에서 提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基本發言文에도 없는 엉뚱한 것을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例컨대 北側이 競技力이 우리보다, 南側보다 훨씬 우세해서 갈 수 있는 最大值가 뭐냐하는 정도는 우리가 理解를 해 뒤야된다 이겁니다.

그런 範圍의 設定이라든지 또 앞으로 共同委員會가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거 複雜・多樣的걸 해나가려면 무슨 準則이 있어야 됩니다. 準據해야 할 原則이 있어야 되는데 그 原則이 우리가 의례히 생각하는 스포츠精神의 慣例에 따른다든지, 政治・社會・文化・軍事 등 體育外的인 問題는 連繫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準則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最大限度로 知慧를 짜내서 앞으로 共同委員會가 제대로 機能하게끔 하는 準則을 짜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基本文에서, 發言文에서 분명히 提議했는데 이걸 그냥 지

나가 버리고 10 個項을 合意했다 이렇게하면 안되지요. 그점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北(김세진) : 아니 曹先生, 또 그런 소리 또 하는구만.

北(장 응)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南(任台淳) : 아니, 새로 뭐 또 合意할 것 아니잖아요?

北(장 응) : 어드른거요?

南(任台淳) : 이제 저 뭐야, 그거 …….

北(장 응) : 아니, 그거 曹先生 얘기한 것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라 …….

지금 오늘 本會談 形勢를 보면 問題의 爭點이 어디 있는가? 問題의 爭點. 우리가 지금 여섯차례의 本會談을 하고 세차례의 實務會談을 해서 雙方間의 意見에서 差異가 있던 問題들은 다 接近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讓步했다는 말씀은 자꾸 아니라고 하기때문에 讓步했다는 말은 안쓰겠습니다. 讓步했다는 말 안쓰고 接近을 했다.

해서 열個 條項에 대한 討議가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놓은 걸 보면 분명히, 貴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이게 우리것 아닙니다. 貴側에서 내놓은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받았습니다. 貴側의 案입니다. 이 案에 다 同意를 했습니다. 同意를 했기 때문에 열개項目 討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는 지금 열개項目 討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雙方會議인데 貴側에서 내놓은, 調節해서 내어놓은 案들에 우리가 다 同意를 했고, 貴側에서 오늘 내놓은 이 運營細則 이 問題도 우리가 몽땅 合意를 했습니다. 合意를 해 놓으니까 지금 이게 合意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項이 무엇인가?

南(張忠植): 내 말씀 들으세요.

北(장 응): 이게 問題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우리가 理解를 하  
라는가? 어떻게?

南(曹英承):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

北(장 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엇이 합의 안됐으며,  
뭐이 합의가 안됐는가.

南(任台淳): 내가 조금 얘기하겠어요.

지금 장선생, 全部 합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오늘 會  
談에서 相當한 進展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討議하고 있는 것이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하는  
問題에 대해서 基本的인 討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雙方間에는 討議의 進展의 편의를 위해서, 項目을 10 個  
項目으로 設定해서 構成・參加 方案으로써 10 個項을 設定을 하자 해가  
지고 項目別 討議를 進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項目別 討議를 進行하는 過程에서 10 個 項目에 대한 基  
本的인 합의가, 意見의 一致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제 오늘 會談의 成果  
라고 貴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가지 問題를 提  
起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하면 單一팀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別途 規定  
의 問題 이 부분에 대해서 貴側은 이것을 한번보고 그대로 同意한다.

이 同意한다는 말씀은 貴側이 提示했던 細則案은 撤回을 하시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뭐 異意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안, 우리가 내놓은 이 方案 그대로 表記까지를 다 同意를 하신다면, 별 問題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또 論議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同意도 아니고 意見의 一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項目 하나하나를 놓고 지난번 實務代表接觸의 過程에서 우리 經驗을 본다 하더라도 貴側에서 이미 同意를 했다 合意되었다 이렇게 發表했던 內容에 대해서도, 相互間에 相當한 時間에 걸쳐서 論亂을 거쳤던, 그러한 內容들이 얼마든지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 方案 問題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問題를 實際로 實踐에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立場에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檢討하고 討議를 하는 그러한 姿勢를 적어도 보여주는 것이 옳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同意를 …….

北(장웅) : 그러니까 또 同意를 하면, 同意를 하면 또 眞摯한 姿勢가 없다 이거야 어디.

南(任台淳) : 나는 지금 同意를 한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具體적인 討議를 우리는 할 必要가 있다 하는 問題를 提起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晝代表께서 자세하게 그 內容까지 굳이 說明을 드렸습시다마는 사실 이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는 問題, 그동안의 南北對話의 經驗이라든가 또 南北關係의 現實狀況이라든가 또 사실 오늘 이 統一閣에서의 會談雰圍氣가 썩 좋지 않다고, 안았다고 나는 지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首席代表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들어올때부터도 相當히 우리側の 비위를 거슬리고 또 南北間의 좋은 霧圍氣를 해 칠 수 있는 그러한 事例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狀況을 고려할 적에도 적어도 이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는 問題는 매우 重要하다. 이 무게는 내가 불적에는 10 個項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를 지니는 그러한 重要的 部分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10 個項을 合意함에 있어서는 이 附帶條項에 대한 相互間의 確實한, 그러한 合意가, 附帶措置가 合意事項에 붙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提示했던 이 여섯가지 중에서 共同機構 構成・運營 方案에 관한 具體的인 內容과 그리고 誠實한 履行을 保障하겠다는 部分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을 相互提示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雙方間에 확실하게 이만하면 靚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土臺위에서 우리는 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를 作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側の 意見을 말씀을 드립니다.

北(김형진) : 그러니까 …….

南(任台淳) : 다음에 다른 會談을 한번 더 …….

北(장웅) : 그러니까 合意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南(任台淳) : 다음에 會談을 한번 더 하자는 …….

北(장웅) : 合意가 안됐다는 거예요?

南(任台淳) : 아니, 지금 確認해야 될 事項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北(김형진) : 그거 또 무슨 確認 …….

北(장웅) : 아니, 10 個項目 合意가 안됐다?

南(任台淳) : 貴側은 이제 合意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北(김형진) : 아니, 안된 것은 뭐예요? 안된것 提起하라구요.

南(任台淳) : 아니,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어느 거예요, 項을 짚으라우요. 어느 거예요? 어느거냐고.

南(朴秀蒼) :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것이 合意가 안됐다 하는 얘기나 하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봐야 理解를 돕는데는 아무런 必要가 없기 때문에 直說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項 「可禮亞」라고 하는 우리가 내놓은 案에 우리 北側에서 同意를 했습니다.

北(김형진) : 예.

南(朴秀蒼) : 「可禮亞」로 하자. 그러면 北京아시아大會 組織委員會에 「可禮亞」를 南北이 그렇게 쓰도록 「提議한다」고 지금 우리 表現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北(김형진) : 勸告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勸告한다.

南(朴秀蒼) : 北側은 지금 勸告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北(김형진) : 아니, 그쪽이 그렇게 되었죠. 우리側의 條項이 그렇게 됐습니까?

南(朴秀蒼) : 우리는 提議한다 라고 表現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北(김형진) : 아, 그럼 提議한다, 提議한다.

南(朴秀蒼) : 그러면 提議를 한다고 하는 具體的인 意味가 무엇이나 이겁니다. 그러며는 組織委員會에다가 우리 南北은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꼭 던져버릴 것이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中國側에서 쓸수 있도록 最大한 우리는 努力을 한다 하는 그런 意味고, 그 다음 또하나의 例만 들겠습니다.

北(장 응) : 여기다가 그것 補充하자는게 아닌가?

南(朴秀蒼) : 아, 나중에 그 意見만 一致시키면 되는 겁니다.

北(장 응) : 그러니까 本會談에서 이거 文案整理까지 다 하자는 거예요?

南(朴秀蒼) : 아니, 그건 나중에 …….

北(장 응) : 本會談에서 文案整理 하자는건 아니죠?

南(朴秀蒼) : 아니, 그것은 …….

北(장 응) : 本會談에서 文案整理할 수 없지 않소?

南(朴秀蒼) : 實務代表接觸을 통해서 그건 얼마든지 …….

北(장 응) : 그러니까 열개 項目이 合意된거지 뭐.

北(김상부) : 文案整理까지 여기서 …….

北(장 응) : 도장 찍자는 건 아니라고.

南(朴秀蒼) :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만, 그 지금 顯著하게 均衡을 잃지 않는다 하는 問題에 있어서 우리 北側이 우리가 내놓은 案에 同意를 했어요. 同意를 했는데, 顯著하게 均衡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具體的인 意未가 무엇이냐 하는것을 우리 韓代表께서 最小限度 이 本會談에서 그 限界를 設定을 해가지고 共同委員會에 넘겨주어야 共同委員會에서 作業하기가 순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北(김형진) : 또 朴先生 이렇게 하누만.

南(朴秀蒼) : 그 顯著하게 均衡을 잃지 않는다 하는 問題에 대해서 北側에서 만약에 그것은 4 : 6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3 : 7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

北(장 웅) : 이걸 또 다른 소리야, 다른 소리. 완전히 다른 소리야.

南(朴秀蒼) : 雙方間에 벌써 意見의 差異가 있다 하는 겁니다.

北(장 웅) : 완전히 다른 소리를 지금 하는데.

南(朴秀蒼) :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충분히 이것은 어떤 意味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줘 가지고 共同委員會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意段階다 이런 얘기에요.

北(장 웅) : 그러면 貴側에서 張首席代表先生이 지난번 5次 會談에서 하신 말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데. 年內 合意를 하고 뭐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또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게 合意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이제 무슨 問題로 나오는가? 選手團의 團服은 옷복은 곤색으로 하고, 아랫복은 회색으로 한다까지 다 해야 되겠다는게 아닌가? 論理가 그렇게 整理된다 이거야.

南(朴秀蒼) : 選手들의 옷도리는 곤색으로 하고, 아랫도리는 뭐로하는 問題는 …….

北(김형진) : 예, 그것까지 정리된다 이거지.

南(朴秀蒼) : 共同委員會에서 할 일이에요. 그건 共同委員會에서 해요.

北(장 웅) : 그건 이미 貴側에서 내놓은 案에 따라서 合意가 되었다는 거지요.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質問을 하여서는 얼마든지 답을 드리겠단니까.

北(김형진) : 張先生! 張先生, 이렇게 합시다.

南(張忠植) : 이거 보세요.

北(김형진) : 10個項 討議에서 명백히 복잡하시다고 그랬는데, 아까 張先生

도 나도 그런데, 10 個項 討議에서 合意 못된 것 무얼니까?

南(張忠植) : 여보세요.

北(김형진) : 아니, 내말씀, 質問 좀 들어 주세요. 지금 討議 못된게 무얼  
니까?

南(張忠植) : 우리가 .....

北(김형진) : 이 10 個項 討議에서 討議 못된게 무얼니까?

南(張忠植) : 우리가 共同委員會에 대한, 構成方案에 대한 案을 提示했는데  
貴側에서는 읽어도 안보고 團長께서도 .....

北(장 웅) :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체크할 것 하고 다했습니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내 말씀 우리가 接受하겠다고 하는데 읽어보지 않  
고 接受했다. 우리가 貴側의 案을 接受한다 했는데 그게 論理的으로 맞  
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읽어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하  
세요.

南(張忠植) : 檢討도 안 해보고 .....

北(김형진) : 아, 檢討內容이 다 맞는데.

南(張忠植) : 이 많은 內容에 대해서 말이죠.

北(김형진) : 남이 接受하는 걸 또 疑心할 건 또 뭐 있습니까? 나 이  
것 정말 답답해.

北(장 웅) : 接受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까?

南(張忠植) :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죠.

北(김형진) : 接受하지 말아 달라?

南(李學來) : 제가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北(김형진) : 아니 李先生님, 잠깐만요. 내 한가지 물어보구요.

그러니까 10個項 중에서 運營細則에서 合意 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南(李學來):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北(김형진): 예, 뭐니까?

南(李學來):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選手選拔과 관련된 事項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選手團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均衡을 잃지 말자고 하는 것이 前提條件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實際內容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實現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問題點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記錄競技에 있어서는 무조건 記錄이 좋은 사람이 가는 걸로 요전에 合意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均衡을 維持할 수가 없죠? 우선 記錄이 좋은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採點競技에 있어서도 最小限度 한 名은 가도록 하자 하는데 다른 것 까지 같이 얹어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取消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成績 좋은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鬪技種目, 貴側에서는 맞붙어 겨루기입니까? 그런 種目이 있죠? 유도, 레슬링, 권투, 펜싱 이러한 種目이 있죠? 이러한 種目도 모든 體級이 優勝한 사람, 이긴 選手가 出戰하도록 그렇게 規定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 네그룹 중에서 세그룹이 優秀한 選手가, 優秀한 競技力을 發揮한 選手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顯著的 均衡을 잃지 말자고 하는 것 하고 內容的으로 들어가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겁니다 現實的으로.

그 다음에 均衡을 維持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것이 그나마 球技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蹴球인 경우에 20名이다. 엔트리가 20名이다. 그런데 11名이 뛰지 않습니까? 나머진 교체 멤버이고.

그럴 경우에 이긴 쪽에서 11名의 正 選手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쪽에서 나머지 9名의 選手를 가지고 적당하게 人員分配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當初에 前提했던 選手團 均衡을 維持한다는 것 하고 實際內容面에 들어가서의 問題點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論議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제 立場에서 말씀 드릴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北(김세진) : 아니, 이거 合意한 것 아닙니까?

北(김형진) : 合意한 것 아닙니까?

南(李學來) :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合意했다는 이야기는 選手團의 人員數의 均衡과 관계없이 이긴 쪽이 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合意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北(장 응) : 아니, 이것 또 지금 다른 소리 學來先生 또 나오는데, 貴側의 案을 그대로 읽겠어요.

南(李學來) : 우리 案이 어떤 건데요?

北(장 응) : 均衡을 顯著히 잃지 않도록 한다.

南(李學來) : 그렇죠.

北(장 응) : 했죠? 거기에 合意했죠?

南(李學來) : 예, 그건 合意가 됐어요.

北(장 응) : 合意했으면 되는 거지.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것을 合意해 놓고 이젠 이걸 다시 論議하자고 하니 이걸 도저히 理解가 안 갑니다.

南(李學來) : 均衡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야 되는데.

北(장 옹) : 그러니까 새 提案이요? 새 提案입니까?

北(김형진) : 그러니까 10 個項에 보충하는 겁니까?

南(李學來) :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절대적인 均衡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됐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가지 그룹에 있어서 均衡維持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現實的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討論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問題를 10 個項을 綜合的으로 終結을 짓기 이전에 한번 概念을 말이지, 한번 意見交換을 하고 넘어가야 할 事項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선 誤解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北(김세진) : 그런 問題 討論을 여기서 할 건가? 여기서 討論하자는 얘기는.

北(김형진) : 張先生! 10 個項 討議를 貴側이 提起한 案 그대로 다 討論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運營細則에 관한 貴側의 案을 우리가 接受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6 次會談에서는 唯一팀 構成을 위한 南側이 내놓은 10 個 方案을 또 우리가 내놓은 10 個 方案을 討議해서 合意를 이룩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細則問題에서 貴側이 提起한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細則을 우리는 명백히 同意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會談에서는 10 個 項目 討議와 細則 討議가 合意됨으로써 北南 唯一팀을 構成할 수 있는, 誕生시킬 수 있는 確固한 展望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앞으로 이에 土臺해서 實務代表接觸 또 더 나아가서는 共同委員會와 共同事務局에서 이미 合意된 10個 項과 細則에 따라서 그를 자(尺)로 해서 事業을 하면 아무런 難關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貴側에서 唯一팀 構成과 關聯한 共同訓練으로부터 選拔競技 全期間에 關聯한 保證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貴側이 提起한 이 保證問題를 理解하고 역시 철저히 貴側의 要求대로 이 項을 우리가 合意본 10個 項과 細則의 遵守를 위해서 確固히 擔保한다는 것을 다시 明白히 이야기 합니다.

南(張忠植) : 다 말씀하셨죠?

北(김형진) : 그렇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會談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實務代表接觸과 또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書를 이제 文案整理도 하고 細則도 討論하고 이렇게 해서 實務代表接觸을 이미 合意본대로 넘기고 그 다음에 本會談 7次會談에서 오늘 妥結된 問題들을 完全히 우리가 合意해서 世上에 發表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正式 提議합니다.

南(張忠植) : 예. 내 말씀 들으세요. 제가 조용히 들었지요? 김단장님!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제가 조용히 들었지요?

北(김형진) : 예, 예. 말씀하세요.

南(張忠植) : 우선 오늘 우리가 提案했던 問題에 대해서 輪廓的인 面에 있어서 김단장 받아들이는 그러한 誠意를 表示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重要한 南北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誠意를 表示하

는 그러한 態度가 말씀이죠 내가 볼 때는 화려한 表現으로는 참 잘 되었습니다마는 …….

北(김형진) : 아, 接受 안 하는게 아니고 接受를 했는데.

南(張忠植) : 내 말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이 檢討도 誠意있게 안 해보시고 接受한다 거기에서 나는 우선 김단장이 單一팀을 만드는 文章이라든가 接受한다는 것 이것으로다가 말씀이죠 그럴 듯하게 表現하시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김단장의 眞意가 果然 이 共同委員會에서 다루어야 할 이 問題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問題인가.

北(김형진) : 어이 張先生! 張先生 왜 團長의 役割을 될 남이 생각하는 걸 간단히 생각하건 빨리하건 아 그야 내가 團長으로서 내가 할 權限에 屬하는 건데 貴側의 案을 接受해서 接受하면 좋은 것이고 아주 그런 肯定을 表示해야지 接受하는 걸 또 그걸 뭐 姿勢와 뭐 어떠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南(張忠植) : 이것 보세요.

北(김형진) : 接受한건 그것으로 끝난거죠.

南(張忠植)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誠意있게 이것을 한번 檢討하시고.

北(김형진) : 아 誠意있게 接受했다는데 誠意있게 또 檢討하라는 것은 또 뭐이나요? 그게 무슨 論理입니까?

南(張忠植) : 글썄, 그러니까 接受했지만 가서 다시한번 또 檢討하시고.

北(김형진) : 아니 貴側이 내놓은 案『誠意있게 接受해서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對答을 주었는데 또 誠意있게 研究해서 對答을 달라』

아니 對答을 주었는데 또 對答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對答하십니까?

南(張忠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다음에 이 合意事項에 대한 誠實한 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닌가. 제가 거기에 대한 具體的인 案을 다음 接觸이나 會談때 제가 提示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貴側에 대한 그것 無條件 그렇게 말 한마디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北(김형진): 아니 張先生! 여기 細則이 있잖아요? 「當局의 保證도 있어야 된다」 아 그 이상 뭣이 있나요? 아 여기 細則이 다 있는데 무얼 또 거기에 무엇이 또 있어요? 예?

南(任台淳): 아니 저 장선생! 우리 常識이 통하는 方法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다. 常識이 통하는 方法으로.

北(김형진): 아, 글썄 통하는 方法이죠. 常識이 常識 밖의 問題죠. 合意를 다했는데 그건.

南(張忠植): 그건 論爭이 많이 나올지 모르실 것 아녜요? 그 細則이 말이죠.

그것을 내가 7次會談 때 내놓겠습니다.

北(김형진): 아 뭐이 나오든지 그걸 다 들어 있는데 뭐이 또 무슨 뭐가 나와요?

南(張忠植): 가만 있어요! 그것을 내가 7次會談 때 내가 그것을 提示할테니까 그것을 한번 檢討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요, 두번째 오늘 우리의 案을 받아 주시는 誠意를 表示하면서 .....

北(김형진): 그건 좋은 건데요 뭐.

南(張忠植) : 아니 내 말씀 들으세요. 表하면서 다시는 우리 會談에 말이  
조 相對方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달력 같은 것 이런 것 말  
씀이죠 配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北(김형진) : 그거 자꾸 달력, 달력하는데 달력 記者先生들이 지금 繼續  
달라고 그런데요?

南(張忠植) : 貴側에서 말이죠 우리側에 왔을 때 내가 그러한 式으로 그  
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뿌려놓고 會談에 임한다고 생각했을 때 果  
然 이게 南側에서 이거 單一팀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意圖를 가지는  
지 .....

北(김형진) : 張先生, 張先生! 자꾸 말씀을 다른 말씀을 돌리시지 마시고.

北(장 응) : 어이 首席代表先生! 거 우리 말 안하려다 하는데요. 그 저  
달력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도 말 안하려다 이거 하는데 그쪽에서  
도 내놓았습니다. 그쪽에서도 내놓았지요? 그뉘 자꾸 그 이야기 합니까?  
다른데서 내놓은 걸 우리가 달라고 그랬소 뭘 했소? 그쪽에서도 畫報  
用으로 다 내놓지 않았소?

南(任台淳) :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거예요 정말?

北(허혁필) :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죠. 그쪽에서도 畫報도 내놓고 그렇지 않  
았어요?

北(김세진) : 우리도 또 할 소리가 있는데.

北(장 응) : 그거 우리 이야기를 안해요 그것.

北(김세진) : 아니 내 가만 참고 있었는데 한마디만 좀 하자구요.

이거 오늘 會談보니까 成果가 좋고 오늘 合意도 다 끝냈고 아주 그  
우리가 하자고 하는 말하자면 代表들이 自己任務를 영예롭게 遂行했는데 .....

北(김형진) : 그래 이것 밝은 얼굴이 돼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貴側에서 .....

北(김세진) : 지금 하고난 뒷끝에 論議되는 거 보게 되면 이러쿵 저러쿵 자꾸 색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問題가 뭐이 있는가? 내가 느껴지는게 이제 首席代表先生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認定을 하고 다 接受하고 履行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相對側 代表를 왜 믿지를 않는가?

오늘 여기 雙方 對話인데 어째 그것을 믿지 않는가? 하자고 하는데 왜 믿지 않는가? 나는 互相對話이기 때문에 이런 側面에서 相對方을 疑心하거나 그걸 實踐的으로 놓고 보아도 우리는 提起된 事項들을 다 執行해 나가고 또 問題를 討論하자고 어떻게든가 修正案도 내놓고 그래도 안되어서 다 實踐的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妥結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南(張忠植) :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죠.

北(김세진) : 그리고 앞으로도 問題를 處理하는데서 이렇게 해나가자고 하는 우리側의 立場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쉽습니다 하기 때문에 首席代表先生 앞으로 말씀하시는데서 이런 것은 좀 注意 하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내가 이야기할 것은 이 問題는 뭐인가? 앞으로 우리가 執行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複雜한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南(張忠植) : 됐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北(김세진) : 그러나 이러한 問題들은 다 結局은 뭐인가 唯一팀을 하겠느

나 안하겠느냐 이 問題입니다. 하겠다는 立場과 觀點을 바로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면 다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南(曹英承) : 김세진선생 !

南(李學來) : 아니 김선생 !

北(김세진) : 그러나 안하겠다고 하는 立場과 觀點을 가지면 이렇게 問題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觀點에서 보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자고 討論을 해야지 왜 자꾸 이미 討論한 걸 뒤집고 이런 問題 저런 問題 복잡하게 자꾸 提議를 하는지 …….

南(曹英承) : 그건 제가 分明히 알려드리겠습니다.

北(허혁필) : 오늘 10個 項에 대해서 다 合意보고 아 그거 뭘 못미더워서 合意를 못 보았다고 그러느냐?

南(李學來) : 아니 그게 아니라 團長 選定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아까 …….

北(김세진) : 團長問題도 오늘 그런 式으로 하자면 合意 안돼요. 어떻게서나 그 사람 하자고 해서 오늘 다 合意되어야 돼요.

내 가만 놔두고 두고 보니까 아주 이거 말도 互相 注意를 하지 않고 말이야.

南(曹英承) : 자 내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北(김형진) : 가만 말씀하는데 세진대표선생 조금 높은 말을 했지만.

南(李學來) : 多血質이에요. 아주 多血質이라구요.

北(김형진) : 말씀이 맞아요.

南(曹英承) : 아니 뭣이 맞는 얘기예요?

이 會談의 진척을 위해서 제가 하나 意見을 내겠습니다. 지금 雙方間의 差異는 뭐냐하면.



北(김세진) : 또 「差異」요?

南(曹英承) : 아니 가만! 김세진대표 너무 그러지 말고 .....

北(김세진) : 또 差異로구만.

南(李學來) : 김세진대표 또 그러시네.

南(曹英承) : 差異는 뭐냐하면 貴側에서는 이제 10個 項을 다 合意했다 하는 그런 性格規定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두가지 側面에서 10個 項을 合意했다 하는 性格規定을 오늘 지을 수 없다.

北(김세진) : 이거 오늘 妥結이 안되었습니까?

南(曹英承) : 가만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야기 하라니까요.

北(김세진) : 그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제?

北(김형진) : 예. 하십시오.

南(曹英承) : 김세진대표 전번 實務代表接觸 때는 안 그렇더니 어떻게 오늘 이상하다.

자, 이것 重要的 얘기입니다. 잘 좀 들어 주세요. 合意을 하나, 하나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會談이 되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예, 예. 하십시오.

南(曹英承) : 貴側에서는 오늘 10個 項을 다 合意했다 하는 式으로 오늘을 規定지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뭐냐? 두가지 側面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10個 項을 다 討論하고 意見의 一致는 보았다.

北(김형진) : 뻔하지. 意見의 一致를 보았죠? 그러니까 보았죠? 예?

南(曹英承) : 하지만 두가지 側面에서 合意했다고 發表할 段階는 아니다 하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그 두個가 뭐냐?

北(김형진) : 예, 말씀하세요. 두個.

南(曹英承) : 10個 項이 일단 討論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10個 項을 中心으로 해서 合意할 段階에 들어가서는 10個 項의 前提가 되는 根本精神의 項目들을 要約해서 表現해야 될 序文의 問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0個 項目들을 …….

北(김형진) : 序文이다. 첫째 序文.

南(曹英承) : 이 10個 項目들의 履行을 保障할 裝置의 問題가 있습니다.

北(김형진) : 둘째 保障.

南(曹英承) : 이 序文과 履行保障의 裝置問題 이야기는 貴側은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10個項 以上の 比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側面에서 오늘 完全히 合意했다고 發表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고 또 둘째 貴側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우리 「共同委員會 및 事務局 構成・運營方案」 이 方案은 앞으로 貴側이 내놓은 細則과 같이 規定化 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基本的인 事項만 열거해 가지고 方案을 提示하는 겁니다.

이 方案을 가지고 아까 10個項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方案을 中心으로 해서 앞뒤로 들어가야할 準則들이 상당히 重要한 部分이 있습니다.

예컨대 10個項의 하나하나 表現이 있는데 그 表現의 定義와 權威 한 여덟가지 정도가 상당히 重要한 한個 以上 權威와 그 다음에 …….

北(김세진) : 曹先生! 우리 이거 유치원아이 데려다가 하는 거냐요 지금?

南(李學來) :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北(김세진) : 아 그 項目 다 애길해 우리 다 듣고…….

南(曹英承) : 아 내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안할게요.

北(김세진) : 아니 거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南(李學來) : 이야기 하는데 자꾸 말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北(김세진) : 여기 우리 그 말도 못듣는 그런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왜 여기에 앉아있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南(曹英承) : 가만,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라고요.

南(李學來) : 지금 말을 막잖아요?

北(김세진) :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거슬리게 말을 하오?

南(曹英承) : 그래서 우리가 提示한, 내 얘기가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提示한 「共同委員會 및 事務局 構成・運營方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뼈대를 構成하는 方案입니다. 이 方案을 가지고 貴側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方案을 中心으로 規定化해야 될 準則과 指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이 方案이 貴側에서 受容됐다고 해서 構成・運營에 관한 規定案 말하자면 細則이 다 作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合意書 作成에 있어서 우리가 比重을 두는 前文과 履行保障에 관한 事項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構成・運營方案을 規定으로 만드는 그런 細細한 內容의 補完 이 두가지를 다음 會談때 서로 提示해 놓고 討論해서 終結짓는 方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끝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南(張忠植) : 그래서요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南(任台淳) :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北(허혁필) : 任代表! 한마디도 말 못했는데. 저한테 좀 發言權 한번 주십시오. 제가 좀 제일 末席에 앉은 代表로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상한 感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首席代表先生 첫 發言하실 때 지금 合意 그 사이에 이제 實務代表接觸 過程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이제 合意를 다 했는데 몇개 몇개해서 여섯가지가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南(李學來) : 예, 여섯가지 입니다.

北(허혁필) : 예, 여섯가지 내가 그래서 그것 아까 「메모」를 했는데 呼稱問題・採點種目問題 이렇게 해서 여섯가지 중에서 그 첫 發言에서 한가지는 그쪽에서 이제 讓步를 하신 겁니다. 處理했으니까 그러면 다섯가지 남았던 중에서 오늘 이 다섯가지 중에 우리가 다 이제 合意를 그쪽 내놓은 여기 案 그대로 글짜하나 틀리지 않게해서 다 合意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首席代表先生 이야기한 그 여섯가지 남은 問題中에서 그

쪽에서 이제 첫 發言에서 處理했기 때문에 다섯개가 남았는데 그 다섯개를 우리가 다 合意를 주었다. 이렇게 했으면 이 10個項目에 대한 合意는 基本上 完全히 그것 끝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途中에 말씀을 들어보면 共同團長問題와 關係해서 우리가 이런 案, 저런 案 내놓다가서 이제 거기에다 同意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異常하다. 이걸 異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南(曹英承) : 그 以上 들을 必要가 없습니다.

北(허혁필) : 그래 마저 이야기 들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내놓은 案이 우리로서는 그게 和解의 見地에서 좋은 것인데 그쪽에서 研究를 해보겠다. 그것도 또 무슨 肯定的으로 研究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南(曹英承) : 허허 또 저런 얘기를…….

北(김형진) : 가만 있어요.

北(허혁필) : 研究를 해보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만 내놓고 그래서 어쨌든 우선 5次會談때 張首席代表先生 말씀한게 제가 아직도 記憶이 生生한데 『年內 合意를 보고 적어도 來年 1月末 前에는 妥結을 해야된다』고 말씀한게 지금 제 記憶에 生生한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해서 이 唯一팀을 構成해야 되겠다는 이런 立場으로부터 우리가 내놓은 案이 우리 생각에는 좋지마는 그쪽에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는? 年內에 合意를 봐야 되겠으니까 조금 우리에게 마음은 안들지만 合意를 한다. 그래서 다 同意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못 믿어서 『그게 異常하다』 그래서 現實的으로 지금 그

쪽에서 내놓은 이 文案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이거 우리 글짜하나 틀리지 않게 基本上 合意를 주었다. 그러하고 오늘 細則을 내놓은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보았어.

南(曹英承) : 아니 合意를 주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異意를 이야기합니까?

北(김형진) : 아 글썬 가만 있어요. 자 가만 있어요.

北(허혁필) : 말마저 들으십시오.

南(曹英承) : 그쪽에서 合意를 주었다는데 대해서 누가 이야기 합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是非한데 대해서 合意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北(허혁필) : 마저 들으십시오.

北(김형진) : 아니 曹先生! 가만 있어요.

南(曹英承) : 그것은 이제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北(허혁필) : 曹先生! 實務代表接觸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멀리 앉으니까 조금 달라졌구만. (一同웃음)

南(曹英承) : 허대표가 말이야 아 그거 오손도손하게 이야기 잘 나가더니 오늘은 왜 상당히 변한 것 같아요.

北(허혁필) : 글썬, 나는 이제 처음 말합니다. 내가 이거 처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運營細則과 관련된 것도 저희 생각에는 우리도 案을 내놓고 이제 그쪽에서도 案을 내놓았는데 이 案이 상당히 具體的으로 研究가 되어서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내놓은 案이.

南(曹英承) : 우리야 뭐 잘하자고 案 내놓는 것 아닙니까?

北(허혁필) : 아 물론이죠.

南(曹英承) : 그러나 補完할 것이 뭐가 있는가?

北(김형진) : 아 조금 가만 있어요.

南(曹英承) : 그래서 規定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음 段階에서는.

北(허혁필) : 그래서 이것을.

南(張忠植) :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北(김형진) : 任先生 말…….

北(김세진) : 任先生 말한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요.

北(허혁필) :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런 意味에서 오늘 우리 처음 歡談 시작할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冬至날에 이거 우리 合意가 되었으면 事實이야 난 지금 이거 合意가 되어서 너무 기뻐서 朴先生하고 握手를 지금 請하려고 그러던 차인데 『아 이것 合意가 안되었다』 아 이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理解를 해야 되겠는가?

南(曹英承) : 내가 率直히 이야기 해 볼까요?

北(허혁필) : 예.

南(曹英承) : 지난번에 말이죠.

北(허혁필) :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基本上 오늘 合意가 되면 아주 큰 慶事인데 하나의 이게?

南(曹英承) : 이야기 끝났습니까?

北(김형진) : 예. 대단한 것입니다.

南(曹英承) : 내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北(김세진) : 時間 많이 갔는데 曹先生!

南(曹英承) : 이것 보세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北(김세진) : 曹先生이 이거 首席代表들끼리…….

南(曹英承) : 아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北(김세진) : 자꾸 저 뭐 옆에서 자꾸 複雜하게 만들지 말고 이젠 代表 저저 首席代表先生! 다음 討論하도록 합시다.

南(曹英承) : 首席代表先生! 제가 한말씀 드릴 수 없겠습니까?

南(張忠植) : 예, 짧게 하나 말씀하세요.

北(김형진) : 張先生님!

南(曹英承) :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것을 妨害 하자든지 遲延 이런 意味가 전혀 없는데도 不拘하고 자꾸 誤解를 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分明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은 이 南北體育會談을 合意했다.

여러분들이 10 個項에 대해서 우리한테 同意해준 것을 내가 反對한다든지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네요.

北(김형진) : 예, 10 個項이 合意되었죠?

南(曹英承) : 오늘 體育會談에 대해서 모든 것을 合意했다 하는 發表段階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그…….

北(김형진) : 아니 뭐이 못 믿어워서 이야기를 못한다 그거예요? 예?

南(曹英承) : 얘기를 들어 보세요! 合意書에는 아주 10 個項 以上の 무게가 있는 事項도 있고 또 이 方案을 中心으로 해서 規定으로 만들어야 될 補完事項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故訪團」事業때 말이죠 合意했다 合意했다 다 定했고 다 음에 가서 아주 重要的 部分이 특 튀어나와 가지고 結局은 겨레들한테



失望을 준 事例가 있습니다.

그래서 基本的인 것은 우리가 다 討論을 했지만은 合意書 作成段階에 들어갈 때까지 상당히 重要的 部分이 있으니까 오늘은 『合意했다』 이렇게 發表해서는 안된다 하는 性格도 조금 지닌다 이것입니다.

北(김세진) : 이 10個 事項에 대해서는 이미 合意를 다했고…….

北(김형진) : 曹先生! 이거 다 放送에 廣판 나가요 지금. 合意한거야 合意한거지 무엇이 못믿어워서 그래요?

南(張忠植) : 자 整理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北(김형진) : 가만 張先生! 이제 그래요 이거 아까 우리 허혁필대표도 이야기했는데 貴側에서 아까 張首席代表先生이 이번 7次 會談에서 6個 事項이다. 10個 事項이다. 10個 項中에서 合意못된 것이 6個 事項이 남았다.

그래서 하나는 撤回하고 5個, 5個 나머지 中에서 우리가 接受했다 同意했다 이렇게 되면 合意 끝난거죠? 貴側에서 基本發言에서 6個 나왔는데 하나 撤回하고 5個를 討議하자고 했는데 5個를 받았으면 끝난 거죠. 거기에 무엇이 걸려서 아 이게 다 公開 다 나갔는데 合意 다된 건데 여기에 또 무슨 『合意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合意했다고 發表하면 안된다』 發表 다 나갔어요 이거 나갔는데 안되었다고 한다.

그다음에 두번째 細則問題도, 細則問題도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하면 허 대표 동무가 貴側의 案이 우리 것보다 具體化되고 좋은 案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貴側의 細則案대로 한다.

그러면 貴側에서 오늘 合意하자고 들고나온 案을 우리가 同意했다. 이거 뭐 同意로 끝난거죠 아 거기에 그 다음에 그안에 들어가서 生産되

는 問題는 더 討論할 것 있으면 아 共同委員會에서도 할 수 있고 또  
會談도 할 수 있고 共同事務局에서도 할 수 있고 아 이렇게 되는건데  
아 무엇이 못 믿어워서 다 討論한 걸 그럼니까?

南(張忠植) : 나도 말좀 합시다. 나도 말좀 하자고요.

北(김형진) : 그래서 明白히 할 것은 貴側에서 무슨 事情이 있는지 모르  
겠는데 그저 이미…….

南(張忠植) : 事情없어요. 事情없습니다.

北(김형진) :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 나간대로 세 상에 公布된대로 合意된  
거야 合意되었다고 하면 되는거지 무슨 「唯一팀 構成되었다」 이거 아  
네요.

南(張忠植) : 이것 보세요! 우리가 意見이…….

北(김형진) : 唯一팀 構成을 위한 10個項 討議에서 意見を 같이 하였다.  
아 이거야 뭐 明白한건데 뭐.

南(張忠植) : 이제 時間 많이 가고요. 지금 貴側에서는 『合意했다』 우리  
는 意見이 다 接近되었다고 말이죠 생각을 하지마는 거기에 共同委員會  
그 細則에 대해서 좀더 補完을 하고 合意하는 그러한 節次를 밟자 이  
렇게 지금 曹代表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南(曹英承) : 예.

南(張忠植) : 그러면 그 意見도 이쪽 意見도 뭐나하면 생각하는데 그러면  
無條件 『合意만 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補充提案을 해서 共同委員會가 보다 誠實하게 履行할 수 있도록 그 案  
을 우리가 다음에 내놓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이 또….

北(김형진) : 무슨 案요?

南(張忠植) : 共同委員會에 대한 細則을…….

北(장 응) : 그 10 個項은 아니고.

北(김형진) : 아니고, 예. 10 個項은 아니고.

北(김세진) : 다 合意됐다는 것을 내 놓겠다.

北(김형진) : 10 個項은 合意됐다.

南(張忠植) : 그 細則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合意한 事項에 대한 誠實한 履行을 하기 위한 雙方間에 우리가 문서상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細目을 雙方間에 내놓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貴側에서 말로만 받는다 이러지 마시고 그걸 具體的으로 내 시라 이거예요.

北(김형진) : 그러니까 올림픽委員會가 담보를 하잡니까? 當局이 담보를 하 잡니까?

南(張忠植) : 아니, 우리 雙方이 담보를 해야죠.

北(장 응) : 아니, 그러니까 10 個項은 合意돼고.

北(김형진) : 글썄 10 個項은 合意됐다 그랬어요.

北(김세진) :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있지 뭐.

南(張忠植) :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檢討를 한 다음에 다음 會議에 받아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合意한 事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協議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北(김형진) : 貴側에서 말하는 裝置問題.

南(張忠植) : 예. 裝置問題 그걸 우리 다음 會談에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時間이 다 갔으니까 요 다음에 實務接觸을 아까 貴

側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10日날부터 12日날 사이에 갖자  
이거예요.

北(김형진) : 다 말씀했습니까?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내가 조금 말씀하죠.

이제 張先生님도 명백히 하시고 또 아까 任先生이나 曹先生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唯一팀 構成을 위한 10個項目 討議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貴側에서 내놓은 우리側에서 내놓은 「共同委員會와 共同事  
務局 運營과 構成에 관한 細則問題」도 우리는 貴側의 案을 그대로 받  
아들임으로써 명백히 合意를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唯一팀 構成을 위한 方案討議에서는 10個  
項 方案과 細則討議에서는 아주 커다란 前進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貴側에서도 이제 張先生님 그런 뜻으로 表示했  
기 때문에…….

南(張忠植) : 그거 完全한 合意가 아니예요.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完全한 合意가 아니라구요. 우리가 지금 條件을 提示했어요.

그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北(김형진) : 무슨 條件이요? 거기 또 合意해 놓고 무슨 條件이 있습니  
까?

아니 基本發言에서 이것을 接受하는 條件에서 10個項을 接受한다 討議  
를 끝낸다, 어디 있어요 거기?

南(張忠植) : 合意書를 우리가 作成할 단계에 가서 우리가 걸림돌이 될수

있는 그러한 問題를 해결하고…….

北(김형진) : 張先生님 ! 내가 정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그런 말은 안했는데 正式으로 내가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唯一팀을 構成하자고 마주 앉은 이상 자꾸 그렇게 合意된 問題를 되돌아서 合意 안된 것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理解해야 됩니까?

南(張忠植) : 아니 내가 否定합디까? 내가 否定해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님 ! 아 否定하죠.

南(張忠植) : 거기에 내가 조건을 내가 붙이지 않았어요?

北(김형진) : 合意가 이룩되지 않았다. 이룩됐습니까? 이룩됐죠!

아 條件, 또 合意됐는데 무슨 條件이 또 이 條件이에요. 合意됐는데 무슨 그게 조건부 合意예요? 어떻게 조건부 合의가 되나요. 이게 10個項 討議인데. (雙方騷亂)

南(張忠植) : 細則을 우리가 빨리 定하자 이거예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 !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말씀 오늘 처음하는데 그 張先生님 아까는 뭐 底意요 뭐 하는데 진짜 底意를 理解 못 하겠어요.

唯一팀을 構成하자는가 안 하자는가 이렇게 내가 따지지는 않겠어요.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 이해가 안갑니다.

北(장 응) : 條件붙이자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아요.

南(朴秀蒼) : 아니 말을 우리가 한 다음에 하셔야지.

北(김형진) : 아니 이제 말을 한 다음에 내가 하잖아요. 말한 다음에 내가 말하는데. (雙方騷亂)

南(曹英承) : 이건 方案입니다.

北(김형진) : 그러니까 다 승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貴側에서 조건부가 될 수가 없는 문제를 조건부라 하는 겁니다. 이미 승의討議와 細部討議가 끝나서 승의를 이룩한 問題입니다.

問題이고 그 다음에 그 승의된 問題와 細則의, 아니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가만히 좀 들어요. 曹先生 내말 또 들어야지 듣지 못하고 다른 말하면 안돼요. 특히 曹先生 잘 들으라요.

方案 10個와 細則問題가 다 승의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내말 들으십시오. 승의됐는데 貴側에서 말하는 조건부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승의된 10個 項目과 運營·構成 細則을 더 잘 관찰하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議題討議 問題입니다. 혹은 다음에 우리가 討論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10個項이야 분명히 討論됐고 승의됐고 또 細則이야 분명히 貴側에서 내온것 승의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 自體를 무슨 조건이요 어찌니 하면서 이것을 승의 안 된 것으로 하는데 그 무슨 의도가 있는지 理解 안됩니다. 무엇이 걸려 그러니까?

南(張忠植) : 發表할 段階가 아니에요. 發表할 段階가.

北(김형진) : 아니, 그러니까 승의됐다는걸 世上에 宣布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무엇이 걸렸어요?

아니 세상에 宣布하면 履行이 안됩니까! 더 잘 履行이 돼죠. 온 겨레가 너희들 마주 앉아서 승의를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되느냐 안되느냐 아 이걸 지켜보면 더 좋죠.

南(張忠植) : 아니, 가만있어 봐요. 우리 지금 曹代表가 말씀하시는걸 내말 들어보세요.

아니 승의한 事項을 성실하게 이행을 할 것을 보장하자고 하는데…….

北(김형진) : 그러니까 글썬 합의는 됐다 그거죠?

南(張忠植) : 前提條件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北(김형진) : 아니 그거야 합의는 됐죠.

南(任台淳) : 問題는 兩側이 意見一致나 뭐 用語論爭 아납니까? 用語論爭, 合意書가 採擇돼 가지고 땅땅가서 署名을 하면 그거야 안전한 合意죠. 그런데 合意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差異 아납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合意라고 또 내라, 用語論爭입니다.

北(장 웅) : 합의 안됐어요?

北(김형진) : 안됐어요?

北(장 웅) : 어디가 안됐어요?

南(張忠植) : 完全한 合意가 안됐어요.

北(김형진) : 왜 안됐어요? 왜? (雙方騷亂)

南(朴秀蒼) : 完全한 合意書가 採擇됐을 때 合意가 된거라구.

南(任台淳) : 그건 基本, 基礎的인 合意만 되는 것이지.

北(장 웅) : 아니 一致됐으면 合意되는 거지 무슨.

南(李學來) : 하나의 案으로 내놓은 거고 그 案이 하나의 合意書로 탄생이 되어야 合意가 된거지 안 그래요? 案을 갖다가 合意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

南(張忠植) : 意見一致가 됐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北(김형진) :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貴側에서 意見一致다 또 이제 는 말가지고 意見一致다 合意다 그러는데 意見一致건 合意건 10個項 討議와 細則討議에서는 合意 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世上에 다 나갔습

니다.

南(張忠植) : 그건 김단장 생각이고 우리가 意見을 一致시킨 것 하고 合意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前提條件이 있어요. 뭐냐하면 合意된 事項을 誠實하게 履行할 수 있는 그 保障이 되지 않고서는 完全한 合意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내가 그 案을 낼 테니까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님!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張先生님, 10 個項 貴側에서 내 놓았지요? 이 合意가 이룩되자면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들이 受諾되어야 한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南(李學來) : 여기 있어요.

北(김형진) : 어디 있어요 여기? 前提條件이 어디 있어요?

北(장 응) : 전제조건이 어디 있어요?

北(김형진) : 貴側이 세상에다 대고 首席代表로서 基本發言을 했는데 6개 남았다, 이거하면 된다 그랬는데 張先生 그거 이해 안되요.

南(張忠植) : 왜 여기 없어요? 내가 發言文에다 다 얘기했는데 前提條件이라 그랬는데 뭘.

南(任台淳) : 前提條件 내지는 附帶措置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글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 個項 討議問題가 아니에요.

10 個項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履行을 잘하기 위한 討議지, 그 10 個項의 이행을 잘하기 위한 討議지 아니 그게 어떻게 10 個項인가요?



야 그거 張先生!

南(張忠植): 細則을 우리가 더 내놓고 合意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實務代表接觸을 定해서 끝냅시다.

北(김형진): 그러면 貴側에서는 合意가 이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회담 그대로 이행하겠어요.

南(張忠植):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北(김형진): 우리는 貴側에서 10 個項 討議와 細則에 대해서 合意를 이룩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10 個項 討議에 意見一致를 봤다는 것을 명백히 宣布하겠습니다.

南(張忠植):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北(김형진): 아니 그거야 貴側에서, 張先生! 그거 무슨 論理입니까 合意하고도…….

南(張忠植):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實務接觸 10 日부터 13 日날 사이에…….

北(김형진): 張先生! 雙方會談인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南側 記者先生들도 貴側에서 다 合意해 놓고 前提條件에서 合意한다 또 合意 안됐다 이렇게 되면 南側 記者先生들도 헛갈려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南(曹英承): 다음번 實務代表接觸 날짜 정하고 끝내죠.

北(김형진): 아니, 合意된 건 合意된 거죠.

南(張忠植): 자, 10 日날부터 12 日날 사이에 實務接觸을 갖자구요.

北(김형진): 實務接觸을 금년내로 매듭짓자고 한 것은 張先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잘해보자 했는데 實務接觸은 금

년내에 아직도 날짜가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한두차례 합시다.

南(張忠植) : 이게 年末이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年末年初를 놓고서 뭐  
나하며는…….

北(김형진) : 費側에 個人事情 뭐 또 있습니까?

南(張忠植) : 아니 개인사정이 아니라 우리 體育會 代表들 또 다 바쁘고.

北(김형진) : 아니 實務討論 이걸 가지고 내일모레라도 하면 되는건데 아  
니 또 거기까지 버딤니까?

南(李學來) : 아니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南(張忠植) : 아니 그러니까 10日날서부터 12日날 사이에.

北(김형진) : 아니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부터 필요하다면 오늘 오후부터라  
도 文案整理 합시다. 다 된건데.

南(張忠植) : 아니 年末年初에 다른 일들도 해야죠.

北(김형진) : 아니 이 이상 더 重要한 問題있어요?

南(李學來) : 연구를 해 가지고 合意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모이기만 한  
다고 合意가 돼요?

南(張忠植) : 거기에 대한 共同委員會가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細  
則도 우리가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北(김형진) : 가만히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 本會談을 1月11日로 하고 그  
다음에 實務代表接觸 금년중에 한두차례하고 또 뭇하면 來年初에 해서  
11日날 우리가 本會談에서 討論합시다.

南(張忠植) : 이제 우리가 意見이 많이 接近됐으니까요.

北(장 응) : 接近된게 아니고 合意됐죠.

北(김형진) : 接近된게 아니고 合意됐지, 接近은 무슨 接近이야 다 받아 먹

었는데.

南(張忠植) : 김단장 ! 實務代表接觸을 10日날서부터 12日날 사이에 갖고 그 結果에 따라서 우리가 本會談 日字를 定함시다.

北(김세진) : 그럼 오늘 여기서 本會談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南(張忠植) : 오늘 정하려면 정함시다.

北(김형진) : 張先生님 ! 그래서 實務代表接觸이야 뭐 이제는 큰 어려운 난관이 없어요. 우리가 貴側의 細則도 그대로 통채로 받아먹은 만큼 그래서…….

南(張忠植) : 내가 오늘 時間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確認해 보려고 하는데 公開에 대한 貴側의 意見과 우리의 公開에 대한 意見이 과연 그것이 나중에 서로 다른 말 만나오도록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 ! 우리가 뭐 보태고 合意했다 合意안했다 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럼 그걸 어디 公開함시다. 公開해서 그렇게 하면 觀客들이 보고 錄畵를 보고 그거는 세상사람들이 合意했다 안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겁니다.

南(曹英承) : 이제 만 이야기 하지 말고 말이죠 날짜 정하고 끝냅시다.

北(김형진) : 그래서 글썄 우리 唯一팀 方案 다 討論해 놓고서 合意했다 안했다고 자꾸 이러는데 討議된것 意見一致를 보고 이런 것은 明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명백합니다. 다음 本會談은 1月11日 貴側에서 張先生님께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 基調發言에서 12月달까지 合意를 보고 1月달에 가서는 타결하자. 우리도 貴側의 입장을 尊重해서 가급적 빨리

타결짓기 위해서 年內에 한번도 좋습니다, 貴側이 정 사정이 많다면.

내일도 좋고 오늘도 좋고 한번 만나서 實務討議해서 전번에 우리가 實務討議 해 보니까 수다한게 接近되고 아주 오손도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年內에 貴側이 두번하기 바쁘면 한번하고 그 다음에 더 미진한게 있으면 1月달에 한번 더 討論하고 이렇게 해서 1月 11日날 本會談 합시다.

南(張忠植) : 1月 10日날부터 12日사이에 實務接觸을 갖고 17日날이나 18日경에 本會談을 갖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월달에 한번 더 하면 다 끝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北(김형진) : 年內에 實務接觸을 하고 1月 11日에 本會談을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南(張忠植) : 아니 나는 오늘 내가 날짜 提議하는 것을 받아 주셔야죠.

北(김형진) : 아니 그거야 뭐 提案해도 雙方會談인데 우리가 그렇지 저번에 우리가 提起하니까 貴側이 雙方會談인데 貴側것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貴側 案대로 했습니다. 貴側 案대로 오늘 定한 겁니다. 바로 한달 지나서 週期를, 우리가 열이틀 보름전에 하던 週期를 늦잡는 통에 오늘 한달 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1月 11日날 本會談을 하고 그래서 實務接觸 年內에 합시다. 아니 年內에 하는게 다 된건데, 정리하는 건데 뭐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南(張忠植) : 그러니까 1月 12日날 實務接觸을 하고 本會談은 17日날이나 18日날 합시다. 이제 貴側에서 오늘 내놓은 問題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보다 共同委員會가 잘 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여러가지 細部事項에 대해서 우리도 論議하고 誠實하게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해서 合意를 우

리가 完全히 볼 수 있도록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1月 12日날 實務接觸 갖고 本會談을 17日날 내지 18日날 합시다.

北(김형진) : 時間이 뭐 必要해요? 貴側의 案대로 다 받았는데 時間이 무슨 必要할게 있어요?

北(김세진) : 아니, 首席代表先生님! 날짜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수석대표선생이 年內에 이것을 다 타개해야 되겠다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한 것을 履行問題가 오늘 많이 論議가 됐는데 그것도 履行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서는 唯一팀을 빨리 탄생시킬데 대한 문제는 온 겨레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實務接觸을 빨리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야 날짜를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問題인데 그것을 왜 시간을 자주 끄는가 하는 얘기에요.

北(김형진) : 아니 그 張先生님 자꾸 時間이 促迫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理解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좋다, 貴側 案대로 하자.

南(張忠植) : 이게 不渡가 안나야 되거든요.

北(김형진) : 아니 그렇다고 不渡가 안납니까?

南(張忠植) : 이게 文章 잘하고, 말 잘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實際履行하는데 가서는 여러가지 걸림돌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北(김세진) : 그건 앞으로 首席代表先生이 잘 하세요. 우리는 그런 것 없으니까 거기서만 잘하면 우리는 걸릴게 없습니다. 지금 首席代表先生이 말하는게 合意됐다 해 놓고도 안 했다 하고 자꾸 이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混同이 돼서 그래요.

北(김형진) :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張先生님 基調發言에서도 계속 나와

서 강조하시고 12月달에 타개를 하고 그래서 唯一팀 構成을 빨리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尊重해서 年末에 한두차례, 貴側에서 뭐 정 사정이 있으면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고 來年初에 가서 또 하고 해서 實務會談은 今年度에 바쁘시 다니까 한차례하고 明年도 90年代 정초에 설을 쉰 다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1日날 代表接觸 이렇게 하면 그저 쪽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南(任台淳) : 電話로 連絡하기로 하죠. 電話로 連絡합시다.

北(김형진) : 아니 任先生! 電話는 또 무슨 前例가 없이 오늘 여기서 合意보면 되겠는데.

南(張忠植) : 아니 1月12日날 우리 實務接觸 해 가지고서 本會談 한차례 17日날 하면 될텐데 될 그러세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 理致的으로 봐도 年內에 다 타결된 것, 다 合意된 것을 이걸 文案整理하는 것을 보세요 보면 다 合意되는 건데.

南(張忠植) : 重要한 事項에 대해서 우리가 不渡가 나지 않도록 確實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北(허혁필) : 그러니까 張先生님은 좀 바쁘실 수 있는데 實務代表接觸은 曹先生님이나 任先生님은 좀 重要發言 하시죠. 지난번처럼 좀 잘해 봅시다. 되도록 일이 잘되는 方向에서.

南(曹英承) : 날짜문제 말입니까?

北(허혁필) : 예.

南(曹英承) : 날짜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가 外部에 표현하는 문제 이거는 신경쓰지 말고 實質的으로 앞으로 일을 어

떻게 잘 하겠느냐 이런 基準에서 볼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共同委員會의 細則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細則을 定하면 共同委員會가 그것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細則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상세한 內容의 發掘은 상당한 協議와 討議가 必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過程은 時間을 좀 갖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側 案이 首席께서 貴側에서 提議한 實務代表接觸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고 날짜는 1月10日, 12日 사이에 정하자. 그 다음에 本會談 날짜는 정할 것이냐 안 정할 것이냐 하는것은 貴側이 꼭 정하자면 한 18日날로 首席代表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方向으로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北(김형진) : 아니 좋아요. 가만히 좀 있어요.

貴側이 원하니까 本會談날짜는 1月18日로 합시다. 張先生님 1月18日로 합시다.

南(張忠植) : 18日날? 예.

北(김형진) : 예. 1月18日로 하고 그 다음에 實務討議는 今年中에 한번 합시다. 이거 張先生님 무턱대고 날짜 정하는 것까지 담벽으로 미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 會談 전체를 위해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貴側에서 정한대로 두번째는 1月10日날에 합시다.

南(張忠植) : 그게 간단히 選擇할 問題가 아니에요.

南(李學來) : 김단장님! 제가 年內에 實務會談을 하는 게 별 效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北(김형진) : 또 李先生!

南(李學來) : 아니 제가 現實的인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온 代表들이 代表라고 해서 全權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 요. 김단장님! 결국은 아시안게임에 出戰하는 사람들은 選手들 입니다.

北(김형진) : 그럼요.

南(李學來) : 選手들이죠?

北(김형진) : 그렇죠.

南(李學來) : 그 選手들이 지금 年末에 말이죠. 글썄 貴側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選手들이 전부 休暇가고 없어요. 그리고 協會도 休暇떠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狀況에서 우리가 一方的으로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고 決定한다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月4일이면 休暇갔다가 전부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自體會議를 해야죠. 각 選手를 거느리고 있는 각 加盟競技團體들 하과의 協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側 案대로 하죠.

北(김세진) : 이거 오늘 우리가 18日 本會談 날짜는 단장동지가 讓步를 해서 18日 하자고 했으니까 또 거기서 實務接觸 날짜는 하나 讓步를 해서 互相 讓步心을 가지고 이렇게 決定합시다.

南(張忠植) :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北(김형진) : 張先生님! 實務代表接觸을 1月10日날 딱 해야 되겠어요?

南(張忠植) : 예. 우리 사정이 그렇다고요.

北(김형진) : 10日날 한번 하겠어요?

南(張忠植) : 그건 그때까지 한번하든 두번하든…….

北(김형진) : 18日 어간에 몇번이고 계속해서 좁혀야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그렇게 하면 뭐 10日날에 사정이 있다면 1月 10日날 합시다. 그렇게 하고 張先生님 우리 모든 意見을 實務代表接觸에서 해보니까 아주 좋지요.

그래서 아까 난 그 처음들은 말이 돼서 履行을 위한 裝置問題 이것도 實務代表接觸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討論합니다.

北(장 응) : 뭐 또 이제야 曺先生 밝아지누만.

北(김형진) : 오늘이야 사실상 다 合意해 가지고 얼굴이 밝아야겠는데 흐려가지고 되겠소.

오늘 대단히 기쁩니다. 10個項 討議 다 되었지, 그 다음에 細則 우리가 다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張先生님 대단히 기뻐요.

南(張忠植) : 오늘 10個項을 잘 討論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北(김형진) : 이거 오늘 상당히 기쁩니다. 9個月 동안 10個方案 討議해서 오늘 合意보니까 대단히 기뻐요.

南(張忠植)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

---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



##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89. 12. 22(金) 14:40 ~ 14:53
- \*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張忠植 首席代表

### 1. 記者會見文

그러면 오늘 會談狀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 6 次 南北體育會談은 正刻 10 時에 시작해서 午後 2 時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다섯차례의 本會談과 세차례의 實務接觸에서 合意되지 못한 事項 가운데 6 個 未解決 事項을 가지고 저희들이 北側과 會談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問題가 됐던 것이 呼稱問題입니다마는 그 英語表記와 우리말表記에는 전에 合意를 봤고 中國말表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案을 내 놓았습시다마는 北側에서는 그동안 案을 내놓지 않다가 오늘 北側團長이 자기들의 案을 내 놓았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의 案을 내 놓으면서 이것은 中國에서 公式으로 發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이 公式으로 中國에서 發表한 것이 아니라 個人的인 意見이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公式 中國말表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確認했고 이어서 저희들이 提案했던 傭을 「可」字와 禮道 「禮」字 그리고 버금 「亞」字를 받아들였습니다.

두번째 問題는 지난 實務接觸에서 採點種目에서 2 名 以上인 경우 진팀에서도 1 名씩을 포함한다고 하는 이 條項에 대해서도 北側이 저희들의

提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다음은 團長制 問題입니다만 우리側에서는 選手數가 많은 側에서 團長을 내고 選手가 적은 側에서 副團長을 내도록 提案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合意되지 못했다가 오늘 北側에서 修正案을 냈습니다.

첫째 그 修正案은 윤번제로 하자 그래서 그 윤번제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깐 두번째 낸것이 名譽團長制를 두어서 權限은 團長이 갖되, 決定權은 團長이 갖되 名譽團長은 協議對象으로 한다. 그래서 그 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세번째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그 세번째 修正案이 우리側에서 올림픽委員會 常任顧問으로 계시는 즉 伯林 올림픽大會때 金메달을 따신 孫基禎先生님을 團長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單一團長制를 낸 것은 우리側에서 될지 北側에서 될지 모르는데 一方的으로 우리側의 特定한 사람을 내세워서 마치 그 孫基禎先生을 자기들이 尊敬하는 — 물론 그 분이야 民族의 英雄이시지만 — 우리側 團長을 北側이 一方的으로 特定한 사람을 指定한다고 하는 것은 그 底意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結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주지 않자 마지막으로 單一團長制에 대한 저희側의 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團長制 問題도 解決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넷째 共同事務局 設置問題입니다만 지난번 實務接觸에서 우리側의 案에 대해서 北韓은 修正案을 냈습니다. 우리는 共同事務局을 平壤과 서울에 두어서 一定한 常駐人員을 派遣하도록 이렇게 해서 共同委員會에서 決定된 일을 執行할 수 있도록 이렇게 提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妥

當性を 받아들여서 그 修正案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 常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름씩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제 方式의 共同事務局 設置案을 냈다가 오늘은 전적으로 저희側の 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 問題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의 意見を 받아들였는데 한가지 저희들이 석연치 않은 것은 共同委員會에 대한 構成方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細部的으로 그걸 檢討해 볼 必要가 있는데 전혀 이것을 檢討도 안해보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희 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왜 疑心을 갖게 되느냐. 지난번 우리가 故郷訪問團때 모든 合意를 해 놓고 마지막 段階에서 豫想치 않았던 그러한 問題를 가지고서 결국 年末에 故郷訪問團 事業이 實現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데는 共同機構에 대한 構成·運營問題에 대해서 北側에서 전혀 檢討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果然 單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참다운 誠意를 表示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方案이 合理的으로 잘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 眞意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合意事項에 대한 誠實한 履行을 保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合意事項을 履行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전혀 이것도 檢討를 안하고 無條件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側の 案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立場에서 볼 때는 10個項에 대한 全體的인 意見은 接近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共同委員會에서 協議될 이러한 事項들 여기에 따르는 具體的인 細則을 내 놓지 않고서는 앞으로 選手選拔에 대한 어려운 問題 또는 共同機構에서 다뤄야 할 여러가지 團服問題라든가 選手選拔에 있어서의 均衡

문제라든가 器具使用 問題라든가 또는 兩側의 報道陣의 往來問題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전혀 檢討도 안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單一팀을 構成해서 이것이 北京大會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合意事項을 相對方이 깨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制度的인 裝置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無條件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細則을 내 놓지도 않았는데 無條件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 會談을 하기에 앞서서 첫째 그 사람들이 이 會談內容과는 전혀 다른 특정한 우리 韓國人의 寫眞이 실린 1990年度 「퀄런더」를 아마 여러 記者先生님들께 드렸습  
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이 會談雰圍氣가 자칫하면 政治的인 方向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憂慮를 저는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共同機構에 관한 細則方案도 전혀 檢討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北韓의 底意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實務接觸을 통해서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저희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側 사람을 우리側의 團長을 指名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越權行爲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孫基禎先生님이 우리의 7千萬 겨레의 정말 尊敬의 對象이 되는 그러한 스포츠인이라고 하는 것은 否定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團長制에 있어서 우리側 사람, 특히 KOC의 常任顧問으로 있는 사람을 團長으로 指名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 大韓體育會의 葛藤을, 分裂을 助長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疑心을 저희



가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北韓側의 일정한 사람을 指定해서 그 사람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團長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指定한다고 하게 되며는 이것은 하나의 越權的인 表現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충 오늘 날짜문제에 대해서 조금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우리 社會는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를 前後로 해서 年末까지는 대개 바쁘고 또한 正初에 우리 社會는 休暇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年末에 바쁜데도 不拘하고 年末에 實務接觸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正初에 本會談을 하자고 해서 우리들의 事情은 여러가지 加盟團體의 機關長들이라든가 또는 體育界의 여러 重鎮人士들이 年末에 바쁘고 또 故鄉에 가신 분들도 많고 해서 도저히 實務接觸을 우리는 年內에 할 수 없겠다. 그런데 거기서는 年內에 하자 그래서 저희가 1月 10日서부터 12日 사이에 實務接觸을 하고 다음 本會談은 1月 17日 乃至 18日날하자고 提議를 했더니 그 日程問題에 대해서는 저희案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2. 質疑・應答

質問：實務代表接觸이 그러면 10日이죠, 열?

答辯：예. 열흘입니다. 1月 열흘.

質問：우리 10個項에 대한 意見一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내놓은 細則을 저쪽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同意를 한 데 대해서 저쪽이 상당히 초조함까지도 우리가 느끼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理由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答辯 : 글썄요. 너무나도 저희로서는 당혹스러운 것이 共同委員會 構成方案 이라는 것은 대단히 重要的 問題고 單一팀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가장 要素가 되는 問題인데 상당한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한 장도 읽어 보지도 않고 同意해 나온다고 했을 때 果然 이것은 兩팀을 單一팀으로 하도록 이렇게 선전만 해 놓고 나중에 內容問題 가지고서 雙方이 서로 衝突할 問題가 많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故鄉訪問團처럼 다 하도록 되어 놓고 나중에 問題를 끄집어내서 單一팀 결국은 妨害가 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雙方이 다 못가도록 이러한 妨害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리 體育界 立場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質問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89. 12. 22(金) 14:04 ~ 14:31
- \* 場所：板門店 北側 地域 「統一閣」앞 階段
- \* 發表 및 答辯：김형진 團長

### 1. 記者會見文

기자선생님들 앞에 전번 제 5 차 회담때는 매우 만족을 주지 못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기쁜 얼굴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10개 방안 토의로 말하면 명년도 베이징에서 진행될 제 11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를 위한 북남유일팀 구성을 마련하기 위한 북과 남이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토의를 시작한 것은 금년도 3월 9일로부터 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9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9개월여에 걸쳐 진행되던 10개항 토의가 바로 오늘 우리측 통일각에서 있던 제 6 차 회담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제 11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민족의, 통일의 유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확고한 밝은 전망이 열렸습니다.

오늘 회담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6 차회담에서는 이미 5 차 회담이후 세 차례에 걸친 실무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서 10개항 문제토의를 좁혀 나갔습니다.

좁혀 나가는 과정에 오늘 본회담에까지 6개항목의 안이 합의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담에서는 합의를, 실무대표접촉에서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본토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의 기본발언에서 남측이 제기한 채점제 종목에서, 채점제 세부종목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에 북과 남이 각각 한명씩 참가해야 한다는 남측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남측이 기본발언에서 철회함으로써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합의가 이룩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사실상 남측에서 제기한 채점제종목 세부종목에서 두명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에 북과 남이 한명씩 참가한다고한 규정은 사실상 선수 선발 원칙이 합의된 조항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과 남에 선수들이 비록 차이는 있지만 한명씩 각각 참가함으로써 균형을 보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이런 견지에서 좋은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기본발언에서 이 좋은 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우리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유일팀의 구성을 위해서 귀측의, 남측안에 동의를 주었습니다.

또 우리측은 기본발언에서 남측이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공동사무국 설치장소문제에서 평양과 서울에 각각 공동사무국을 내오고 적당한 인원수의 인원을 상주시킬데 대한 안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는 명실공히 공동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팀구성 성사를 위해서 또 연말이 가까운 이것으로 해서 우

리는 기본발언에서 남측의 의견에 동의를 주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문제는 의제로서는 단장문제, 북남유일팀 단장문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측이 유일팀 명칭을 中語로 표기하는 문제를 여러차례 굳이 계속 주장하는데 대해서 우리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어 표기문제를 우리안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안은 「高利亞」 조선말로는 「코리아」입니다. 한문으로 해석하면 높을 「高」자에 리할 「利」에 버금「亞」 또 두번째 안은 상고할 「考」자에 마을「里」자에 버금「亞」자 이렇게 두자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토의할 문제도 아니지만 남측에서 계속 주장해 옴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이런 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하나 남측은 계속 남측이 주장한, 제기한 「可里亞」와 「可禮亞」를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한문 뜻에서나 별 큰뜻이 없는 표기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명칭을 가지고, 표기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면 가까운 시간이 갈 것으로 타산해서 상대측 의견을 존중해서 남측이 좋다고 하는 「可禮亞」에 동의를 줌으로써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可禮亞」로 표기해 줄것을 권고한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선수단 단장문제였습니다. 선수단 단장문제는 유일팀 구성을 위해서 유일팀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유일팀 구성문제에서 사소한 우열을 피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또 북과 남이 합쳐서 나가는 선수단이므로 공명정대하게 균형을 보장하고 이런 뜻으로부터 회담제안 초기부터 공동단장제를 주장했습니다.

공동단장제를 토론하는 과정에 남측은 공동단장의 대표권 행사문제에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담에서 단장문제에서 대표권행사문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윤번제로 대표권을 행사하면 누구나 부담없이 받아들이고 대표권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들은 회의에서, 회담에서 격일제로도 북과 남이 공동단장이 대표권을 바꾸어 가며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개막식과 폐막식 가운데를 절반씩 나누어서 일정한 기간 바꾸어 가면서도 대표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이견도 있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역시 이 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을 적은 측에서 부단장을 낼데 대한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오랜 아홉달 동안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열개항 토의가 이제는 마지막 곳에서 다만 선수단 단장 하나에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을 끌수가 없습니다.

또 온겨레가 이 시각 회담장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 체육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유일팀을 탄생시키려면 쌍방 회담인것 만큼 우리는 선수단 단장문제에서 보다 더 대범한 아량을 보였습니다.

다시말하면 선수단 단장문제에서 어떻게하면 공정성을 보장하겠는가, 이래서 수정안을 제기했습니다.

그 수정안은 선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을 맡고 적은 측에서 명예단장을 맡는다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여기서 대표권은 단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이 안에 대해서 사실상 대표권은 단장이 행사하지만 명예단장이라는 것도 단장이기 때문에 둘이다 하는 이런 부당한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도 역시 타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측은 이 문제에서 우리의 정당한 논리와 주장에 남측은 일정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답을 피하고 돌아가서 연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아까 기자선생님들 보신 바와같이 회담날짜를 종전과 같이 두주 일 또는 한주일이 아니라 한달 이상씩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구 한다면 10개항 토의가 또 그만큼 지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측이 돌아가서 연구할바엔 속제로써 다른 새로운 획기적인 수정안을 제기할테니깐 연구해 보시오 하고 다음에 수정안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올림픽경기 역사에서 민족의 이름을 떨친 사람을 선수단 단장으로 한다. 우리측의 이 안에는 일찍이 우리민족이 수난의 역사를 겪고 있을 때 제 11 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에 마라톤경기에서 1등을 함으로써 민족의 영예와 슬기를 떨친 손기정선생을 남측에는 손기정선생을 단장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안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안을 제기함에 있어서 온 나라 겨레 온 나라 체육인 더 나가서는 세계적인 체육인들이 이 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열렬히 환영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이 안에 대하여 손기정선생을 우리가 짚었다느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이 안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이 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한 손기정선생으로 말하면 남측 올림픽위원회 상임고문으로서 체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

일뿐입니다. 체육인 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손기정선생을 올림픽위원장으로 선수단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선발전 경기에서 북측이 선수수가 많아도 남측에 단장을 양보하고 북측이 부단장을 하겠다는 이런 대범한 자세로부터 출발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 제안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역시 기초발언에서 12월달까지 회담을 빨리 의제를 합의보고 1월달에는 타결해야 하겠다 하면서 역시 답변을 주지않고 뒤로미루고 후에 토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지막 문제는 단장문제 하나로서 유일팀 구성을 쉽게 타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각 이 시점에서 또다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우리 체육인들과 민족에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염원으로부터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미 회담들에서 우리가 논쟁한바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지만 남측이 제기한 선수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을 맡고 적은 측에서 부단장을 맡는다는 안에 그대로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일팀 구성을 위한, 북남유일팀구성을 위한 10개 방안 토의에서는 북과 남이 의견일치를 보고 토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 걸쳐서 온나라 겨레와 체육인들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이룩하지 못했던 유일팀이 80년대말인 오늘에 와서 제 11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유일팀이 북남유일팀이 구성되어 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밝은 전망을 안겨준 것으로 됩니다.

다음 오늘 회담에서는 남측이 이미 제 3 차 실무대표접촉에서 10 항 열



개항의 9항에서, 9항 반팔호 여섯번째에서 북남공동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런안을 제기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은 3차실무회담때 이 조항에서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6차회담에서 토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회담에 성의껏 임할 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이번이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발표했습니다.

남측도 역시 북남유일팀 공동위원회의 구성 또 공동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을 오늘 회의에서 내 놓았습니다.

남측이 내놓은 공동위원회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을 보면 조항상 구체화 돼있고 또 일부면에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부연해 말씀드리건데 여기에는 실무적인 해결방도 세칙들이 제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측이 제기한 공동위원회의, 공동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을 그대로 접수하고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오늘 제6차 회담에서 토의의제에 올랐던 10개항목 토의와 북남공동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 토의는 견해 일치를 보고 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기자선생들도 다 들어서 보고 알겠지만 10개항과 세칙문제가 의견일치를 보고 합의 보았지만 남측은 돌연히 이미 합의를 다본 10개항과 세칙문제에 합의를 이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미 남측 수석대표가 10개항 토의에서 나머지 문제가 아

까 토론된 문제만이 남았다, 이 문제를 타결하면 10개항 토의가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한 발언에 비추어 놓고 보면 사실상 10개항은 더 토론할 것이 없이 끝난 것이고 의견일치를 명백히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남측이 내놓은 세칙문제에서도 남측이 내놓은 세칙내용에서나 모든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일부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세부적인 조항도 포함시킬 것으로 해서 부담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측은 우리가 이미 합의본 문제를 의견일치본 문제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를 따지고 들자 전제조건을 제기했습니다. 전제조건, 전제조건은 합의사항 앞으로 합의서를 발표하겠는데 합의서 서론문제가 토론되어야 한다.

첫째, 두번째 합의서의 이행 보장을 위한 장치문제가 토론되어야 한다. 이것이 토론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에서 10개항 토의가 합의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회담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방송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는 것 만큼 이미 합의한 문제를 전제조건을 놓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일 뿐아니라 과연 귀측에서 유일팀 구성을 바라는 성의있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무엇이 부담이 돼 걸려서 못받는가 하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말로는 부담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다고 하면서 역시 두개의 전제조건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히 오늘 본 회담에서 본회담을 결성하면서 유일팀 구성을 위한 10개방안 토의는 견해 일치를 보고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유일팀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칙도 남측

이 제기한 안을 그대로 접수함으로써 토의가 완전 이룩됐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회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족의 유일팀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해서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유일팀을 출전시킬 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이제 합의서 초안 작성과 합의서 작성과 세칙 문안정리 문제를 실무대표접촉에서 진행할데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남측에서 제기한 합의서 서론과 합의서의 이행보장을 위한 장치문제도 실무대표접촉에서 가지고 나와 토론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날짜선정이었습니다. 날짜선정은 우리측은 남측이 그토록 12월달에 합의를 이룩하고 1월에 타결을 바란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것 만큼 남측에 의견을 존중해서 12월에 한 두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서 합의서 문안을 정리하고 세칙문안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세상에 발표할 수 있다는 이런 의지로부터 연내에 한 두차례 실무대표접촉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연말에 다른 사정있다고 제기하면서 실무대표접촉을 10일부터 12일 그 사이에 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말에 계속 진행할 것과 본회담을 1월 10일에 결정하고 그 사이에 실무대표접촉을 함으로써 빨리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이 완강하게 계속 12월말 1월초에 실무대표접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쌍방회담이므로 우리는 남측 의견을 존중해서 1월 10일에 실무대표접촉을 하고 1월 18일에 본회담을 진행하도록 합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회담에서는 사실상 유일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회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2. 質疑・應答

質問 : 사무국의 시기, 일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요? 공동 위원회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기, 일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答辯 : 공동위원회는 합의서가 발표된 후에 15일 이내에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국도 역시 공동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상설서기국인 것 만큼 그와 때를 같이해서 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質問 : 실무접촉 날짜가 열흘입니까? 열하루…….

答辯 : 열, 열.

다른 질문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